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박사학위 논문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강 성 민

# 국 문 초 록

##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강 성 민

인간의 살아있음은 움직임을 통해서 증명되며, 스포츠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살아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실천(a practice)이다.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의 형식으로 그 역사적 전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이는 스포츠의 근간을 유지하고 스포츠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밝히는 것은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이며, 스포츠의 규범적 준거를 제시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밝히고 여타활동으로부터 스포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스포츠의 근본 목적으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상정하고, MacIntyre의 실천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파악하였다. Aristotle의 윤리학적 관점을 이어받은 MacIntyre의 덕 이론은 행위 중심의 규범윤리학과 달리 인간됨, 즉 덕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덕과 함께 실천과 내재적 선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립된 인간 활동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으로서 실천은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고, 내재적 선은 실천의 목적으로 그것의 성취는 실천 본래의 모습을 유지시켜 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자는 상호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실천이 지니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발현에 의해 내재적 선이 성취되고, 그 내재적 선은 탁월성이 대상하는 바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인간의 활동으로 규칙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는 기술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이해가 발휘되어 내재적 선이 실현되는 실천이다.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탁월성이란 운동 경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체적 탁월성을 의미한다. 신체적 탁월성은 규칙에 의해서 제시된 행위의 형식에 기초하여 인간의 능력이 그것에 도달하고자 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운동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인 내재적 선을 추구하기 위해 신체적 탁월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며,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지향하는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이다. 신체적 탁월성은 탁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이며, 신체적 능력이란 경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과 학습에 의해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으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탁월성이며,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다. 즉, 스포츠는 자신의 근본 목적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이 성취되는 실천이다.

스포츠는 실천이라는 규범적 틀과 자신의 준거인 내재적 선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념 규정될 수 있다.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인간의 활동으로 규칙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는 기술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능력이 발휘되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다. 이때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나와 타자에 의해 구성되는 경쟁과 제도화에 의해 권위를 부여 받아 표준화된 규칙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신체에 의해 실현되며,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의 함양을 전제할 때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근거로 하여 스포츠 논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체스, 바둑, e-스포츠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 자체가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 그리고 양궁과 사격의 경우 비록 신체적 노력의 정도가 타 스포츠에 비해 적을지라도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의 성취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승마와 동력경기는 인간의 신체적 탁월성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스포츠라는 실천은 자신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여 나아가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 내재적 선의 성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현대 프로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라본다면, 스포츠 공동체에 그 단순함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상기해야 하며, 스포츠 공동체가 그것을 지향해 나갈 때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으로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 스포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하는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과 같은 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주요어: 실천, 내재적 선, 스포츠, 스포츠의 내재적 선, 고도의 신체적 기능

학 번: 2010-30418

# 목 차

제 I 장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의 성격 및 목적 .....	6
3. 연구의 구성 및 제한 .....	9
제 II 장 선행연구 고찰 .....	11
1. 개념의 혼란: 체육과 스포츠 .....	11
2. 스포츠의 개념과 내재적 선에 대한 기존 논의 .....	15
1) 스포츠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 .....	15
2)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기존 논의 .....	27
3. 왜 MacIntyre의 실천의 내재적 선인가? .....	31
제 III 장 MacIntyre의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 .....	38
1. 덕 이론의 성격과 덕의 개념 .....	38
1) 덕 이론의 성격 .....	38
2) 일반적인 덕의 개념 .....	42
2. Aristotle의 덕 이론과 선의 실현 .....	45
1) 덕의 개념 .....	45
2) 덕의 역할과 선의 실현 .....	49
3. MacIntyre의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 .....	52
1) MacIntyre의 덕 이론의 성격 .....	52
2) 덕의 개념과 역할 .....	55
3) 실천과 내재적 선의 개념 .....	59
4. 소결론 .....	65

제Ⅳ장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 .....	67
1. 실천으로서 스포츠 .....	67
1) 실천의 조건 .....	67
2) 실천의 조건에 부합하는 스포츠 .....	73
2. 실천으로서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 .....	80
1) 신체적 탁월성: 신체성의 부활 .....	80
2) 도덕적 탁월성: 덕의 함양 .....	87
3.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내재적 선 .....	92
1) 내재적 선의 특징 .....	92
2)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내재적 선 .....	96
3) 도덕적 탁월성에 기초한 내재적 선의 실현 .....	102
4. 소결론 .....	106
제Ⅴ장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적용 .....	108
1.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적용한 스포츠의 개념 규명 .....	108
2.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적용한 스포츠 논쟁에 대한 논의 .....	116
1) 스포츠 논쟁의 쟁점: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 .....	116
2) 스포츠 논쟁에 대한 논의 .....	120
3. 소결론 .....	131
제Ⅵ장 요약 및 결론 .....	133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50

## 표 및 그림 목차

표 1. 학자별 스포츠의 구성 요소 .....	26
그림 1. Suits의 벤다이어그램 .....	112
그림 2. Meier의 놀이, 게임, 스포츠 도식 .....	112



# I. 서론

## 1. 문제 제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도 살아있다는 전제 내에서 움직인다. 즉, 인간의 살아있음은 움직임을 통해 증명된다.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간의 움직임으로부터 정치·경제에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삶을 구현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활동 양식 중 스포츠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는 고도의 신체 기량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나아가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이 창조해낸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Jarvie, 2006; Cashmore, 2005; Kretchmar, 2005; Coakley & Donnelly, 2004; Arnold, 1997; Simon, 1991). 개인의 건강 개선과 여가 선용, 국가의 복지 향상과 위상 제고, 기업의 이윤 증대와 가치 창출, 인류의 화합 증진과 평화 실현 등 인간 삶에 있어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과 스포츠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스포츠는 인간 삶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제전경기로부터 현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양 문화의 근원인 고대 그리스에는 장례식 경기가 성행하였으며, 이후 각 도시국가 간 대항전이었던 범 그리스의 제전경기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당시 사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졌다(김복희·오동섭, 2002; 메치코프·에스테스, 2005). 그리고 그리스와 주변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운동경기에 대한 유물과 유적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운

동경기가 얼마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반증해주기도 한다 (Swaddling, 2004; Finkelberg, 1998).

스포츠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탄생과 발전, 반복과 퇴행을 거듭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 제전경기 이후 근대 올림픽의 부활은 인류에게 스포츠가 얼마나 뿌리 깊은 근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올림픽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은 인간의 신체 경연의 장으로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창던지기, 복싱, 레슬링, 판크라티온, 전차경기 등에서부터, 현대의 육상, 복싱, 수영, 체조, 스케이팅, 축구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신체적 행위 양식이 구현되었다. 스포츠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행해진 종목과 유사한 행위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것, 고도로 제도화되어진 것,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 등 그 행위 형식이 일정 부분 수정되고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이 전개된 서양으로부터 지역적·문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동양에서의 신체적 행위 형식인 무예(martial arts)도 신체활동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허건식, 2002).

스포츠는 인간의 활동으로 특수한 행위의 형식이 규칙에 의해 규정되며, 그 규칙은 제도화를 통해서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즉,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제한된 행위의 형식을 지니게 되어 개별 스포츠(a sport)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형식은 상대를 통한 경쟁의 성립 아래에서 특수한 목적을 향해 있으며, 그것은 신체에 의해 구현된다. 체조는 체조협회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서 제시된 신체적 행위 형식에 따라 상대와의 경쟁을 통해 신체적으로 구현되는 스포츠이고, 축구는 축구협회에 의한 규칙에 근거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상대팀과 신체적 경쟁을 하는 스포츠이다. 수영과 야구 등도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스포츠라는 유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체스와 바둑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도화된 규칙과 경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포츠라는 유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를 발생하게 된다. 체조, 수영, 축구, 야구 등은 스포츠에 속하게 되지만 체스

와 바둑이 스포츠에 속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의 목적과 스포츠의 근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체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인정종목이며, 바둑은 대한체육회(KOC)에 가맹되었고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포츠에 대한 개념 규정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개념은 그것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형성되며, ‘스포츠는 이러저러한 활동이다’라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스포츠철학자 Arnold(1997)<sup>1)</sup>가 밝히고 있듯이, 스포츠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기술적(descriptive)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적 접근 방식이란 현상에 기인하여 그 대상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현상이란 대상의 드러난 바, 즉 변화되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 방식이란 변화되지 않고 대상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 목적에 기인하여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과 거리를 두고 있다. 기술적 개념 규정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대상의 외재적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사안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체스와 바둑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일종의 스포츠로 인정받게 되었다.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 개념 규정 방식에 반해 규범적(normative) 방식은 대상을 유지하게 하고 지탱하는 본질적 특성과 목적을 통해서 ‘스포츠는 이러저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제시한다. 즉, 규범적 방식은 대상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외재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그 대상을 존속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대상의 개념 규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스포츠의 현상에 근거한 개념 규정에서 탈피하여 스포츠의 본질적 특성과 목적에 기초하여 스포츠를 바라봄으로써 스포츠의 성격/본성<sup>2)</sup> 혹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고 여타의 활동과 스포츠를 구별 짓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

1) 본 논문에서는 외국학자의 이름을 본문에 표기할 경우, 한글 번역판 저서의 저자는 한글로, 영문판 저서의 저자는 영어로 표기하였다.

2) 성격이란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본성이며, 본성은 대상의 본래적 성격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요소이다(두산백과; 표준국어대사전). 그리고 내재적 선이란 실천(a practice)의 목적이자 실천을 지탱하는 근간으로(MacIntyre, 1984), 성격/본성과 내재적 선은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해 본 연구는 여타의 인간 활동과는 다른, 특수한 목적을 지닌 인간 활동으로 스포츠를 구별 짓고, 그 정체성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덕 윤리학자 MacIntyre가 제시한 실천(a practice)<sup>3)</sup>과 내재적 선(the internal good)의 개념을 수용하였다.<sup>4)</sup> 실천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일관되고 복잡한 인간 활동의 양식으로, 탁월성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발현에 의해 실천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MacIntyre, 1984). 내재적 선이란 실천을 통해서 이해되고 성취되는 실천의 고유한 선으로, 실천의 목적이며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이다(MacIntyre, 1984). 실천의 근간은 그 내재적 선에 의해 유지되고, 내재적 선은 실천을 특징적으로 설명해주게 되며, 양자는 순환적인 관계를 지니게 된다. 즉, 실천의 내재적 선을 밝히는 것은 실천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여 실천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나타내며, 이는 내재적 선을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인식하여 탐구해 나갈 때 가능하다.

MacIntyre의 실천의 개념은 농업, 건축, 음악 등 인간의 가치 있는 삶과 관련된 인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실천의 개념을 통해 스포츠가 실천에 부합한다면, 스포츠는 내재적 선을 담지하고 있고, 그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여 여타의 활동과 스포츠를 구별하며, 스포츠를 스포츠이게끔 만드는 본질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실천의 개념 속에서 스포츠를 규범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고, 스포츠 논쟁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목적이자 스포츠가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의

---

3) MacIntyre의 a practice는 자신의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인간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실제(유제봉, 2000; 홍은숙, 2002), 실천전통(홍은숙, 2006), 실천(이정우 역, 1997)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Aristotle의 praxis와 일반적인 practice가 실천으로 번역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a practice를 실천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4) 제III장에서는 MacIntyre의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제IV장에서는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해 다루었다.

대상으로, 무엇에 대한 탁월성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통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의 내재적 선은 외재적 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재적 선은 실천과 관계하는 반면 외재적 선은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institutions)와 관계한다(MacIntyre, 1984). 제도의 근본적 존재 이유는 실천이지만 실천과 거리를 두고 있는 외재적 선을 성취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스와 바둑 협회가 스포츠 기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체스와 바둑이 실천으로서 스포츠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실천으로서 스포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 활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어떠한 활동이 스포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제시하여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실천의 규범적 준거로서 역할을 할 수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국-일본축구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한국스포츠계는 팔목상대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스포츠(학)계는 스포츠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은 요소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상업주의화, 운동선수의 기계화와 자본화, 승부조작 등 스포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스포츠가 담지하고 있는 목적과 근원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스포츠의 외재적 선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의 근본 목적인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포츠와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목적과 스포츠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을 제시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명맥을 이어나가야 한다.

## 2. 연구의 성격 및 목적

본 연구는 MacIntyre의 덕 이론<sup>5)</sup>에서 제시된 실천과 그 내재적 선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덕 이론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덕(virtue)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덕이란 고대 그리스어 arete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덕(virtue) 혹은 탁월성(excellence)으로 풀이된다(Aristotle, 1999; MacIntyre, 1984; Reid, 2002). 특히, Aristotle(1999)에게 있어 arete는 자신이 지닌 목적에 잘 기능하는 것으로, 인성적 성질로서는 덕, 기능적 성질로서는 탁월성이다. 그에게서 덕은 두 가지 악덕(vices)—감정(feelings)이나 행동(actions)에서의 부족함(deficiency)과 과함(excess)—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덕이란 두 악덕의 중간(intermediate)에 위치하는 상태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중용(a mean)<sup>6)</sup>이라고 하며, 중용은 덕이다. 중용을 실천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탁월함을 지닌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기(courage)라는 덕은 비겁(cowardice)과 무모(rashness)라는 두 악덕 사이에 존재하며, 이를 잘 실천하는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도덕적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인간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Aristotle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은 MacIntyre(1984)의 이론에 있어서 덕과 함께 실천과 내재적 선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실천의 내재적 선은 실천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게 덕이란 인간의 획득

---

5) 오현택(2006)은 덕 이론(덕론)과 덕 윤리학에 대해 개념적 분리를 실시하였다. 그는 덕 이론이란 덕에 관한 이론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덕 윤리학, 덕 정치학 등을 포함하며, 덕 윤리학은 덕에 대한 평가에 윤리학을 기초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MacIntyre(1984)가 제시하고 있는 덕 이론은 도덕적 이론에 관한 연구로서 윤리학을 의미하며, 의무론, 목적론과 구별되는 규범윤리학의 분과, 즉 덕 윤리학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덕 이론과 덕 윤리학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덕 이론을 덕 윤리학에 한계지어 사용하고자 한다.

6) 중용은 양극단으로부터 물리적 위치가 가운데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상태(a state)로, 치우침 없이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된 성질(an acquired human quality)로 실천들 간의 관계와 개인적 삶의 목표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실천과 개인적 삶에 역사적 맥락을 제공해 주는 전통을 유지하는데 있어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한다(MacIntyre, 1984). 실천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활동을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 양식이며, 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통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실천은 행위의 적합함과 부적합의 기준, 즉 실천의 탁월성의 기준과 그 탁월성이 목적하는 바인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다. 내재적 선은 실천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활동인지를 밝혀주며, 이러한 맥락에서 내재적 선의 추구는 실천의 근간을 유지시켜준다. 만약 실천이 내재적 선의 성취라는 근본 목적에 향하지 않고, 실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인 외재적 선의 추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면, 실천은 목적을 상실하여 그 근간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라는 실천을 행함에 있어 재화나 권력이라는 외재적 선의 성취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면 연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며, 이는 연구라는 실천의 토대를 허약하게 만든다. 내재적 선은 외재적 선과 구분되는 것으로, 내재적 선은 실천이 추구하는 바인데 비해, 외재적 선은 해당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도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제도(institutions)와 관계한다(MacIntyre, 1984).

MacIntyre의 실천의 개념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스포츠는 역사적 전통과 자신이 지향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지닌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실천이다.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성격은 스포츠가 구현되는 장인 올림픽의 예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온 신체적 탁월함의 경연장인 올림픽은 제우스신을 기리기 위한 고대 그리스의 제전 경기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 시대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인격화된 신을 기리는 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운동경기가 진행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김복희·오동섭, 2001; Finkelberg, 1998; Swaddling, 2004). 운동경기라는 방식으로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은 근대 올림픽의 부활에 이어져 근대 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추구하였던 전통을 이어받아 탄생한 근대 올림픽은 시련과 번영을 거쳐

신체활동의 경연장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확장했으며, 스포츠를 하나의 가치 있는 문화 현상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면에서 스포츠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Arnold, 1997).

본 연구는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MacIntyre의 실천의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 스포츠의 개념 규정과 내재적 선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여 MacIntyre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의 내재적 선 개념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2) MacIntyre의 덕 이론에서 제시된 실천과 그 내재적 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3) 스포츠가 실천의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고 있으며,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의 성격은 무엇이고,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4)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스포츠의 성격과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Aristotle의 윤리학적 견해를 계승한 MacIntyre의 덕 이론적 관점, 특히 그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의 내재적 선에 대한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밝히는 것이며, 이는 스포츠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적용되거나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에 대한 규범적 준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MacIntyre의 덕 이론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윤리학적 접근을, 그의 덕 이론이 윤리학뿐만 아니라 존재의 개념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접근을, 그가 Aristotle의 목적론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접근을, 스포츠라고 불리는 활동이 나타내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실천과 그 내재적 선의 개념에 근거하여 스포츠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접근을,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학/스포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스포츠라는 실천이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스포츠의 근본



목적은 제시하고, 스포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며,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본연의 위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3. 연구의 구성 및 제한

본 연구는 MacIntyre의 실천과 내재적 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스포츠라는 실천이 지향해야만 하는 근본 목적인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MacIntyre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 1984년 2판 『After Virtue』를 주로 사용하였고, 2010년 1판 『Dependent Rational Animals』를 참고하였으며, 그의 이론에 관련된 국내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체육/스포츠철학을 비롯한 체육/스포츠사,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등의 문헌을 참고로 하여 스포츠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을 토대로 각 장에서 진행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를 통해 스포츠의 근본 목적은 내재적 선에 의해 제시될 수 있으며, 내재적 선을 탁월성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밝힐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을 밝혔다.

제 II 장은 스포츠의 개념과 내재적 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를 위해 MacIntyre의 실천의 내재적 선에 대한 개념 적용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제 III 장은 MacIntyre의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덕 이론의 일반적 성격과 Aristotle의 윤리학적 견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MacIntyre의 덕 이론의 성격과 실천 그리고 그 내재적 선에 대한 개념 고찰을 시도하였다.

제Ⅳ장은 스포츠가 실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을 신체적 탁월성과 도덕적 탁월성으로 나누고,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덕의 함양과 관련된 도덕적 탁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Ⅴ장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적용하여 스포츠에 대한 개념 규정과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Ⅵ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MacIntyre의 덕 이론에 입각하여 스포츠를 다루었던 일부 스포츠학자들의 연구 과정과 내용이 본 연구와 일정 부분 유사한 면이 존재할 수 있다.<sup>7)</sup> 그리고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찾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제한적인 문헌에 의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이론적 중심이 되는 MacIntyre의 덕 이론 자체가 비판의 여지를<sup>8)</sup> 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 기초한 본 연구도 비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미진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밝히는 작업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한국 체육/스포츠(학)계에는 스포츠가 지향해야만 하는 바를 제시해주어 스포츠 공동체에 작은 울림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7) 그러나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의 대상을 통해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밝힌 작업은 미비한 상태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8) 일반적으로 그의 이론은 전통과 덕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라는 비판과 공동체주의를 이상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낭만적이라는 비판, 실천의 개념과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의 구분 준거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유재봉, 2002; 이원봉, 2007; 황경식·슬로트, 2009; Haldane, 1994).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개념의 혼란: 체육과 스포츠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는 체육이란 용어와 혼용되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고 본 논문에서 스포츠가 무엇을 지칭하는 지에 대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우선 체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체육(physical educ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노희덕, 1991; 신현규, 2008). 서양문화의 산물인 체육이란 용어가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개화기이다. 개화기는 19세기 후반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부터 20세기 초반 1910년에 경술국치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 서양문물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한왕택, 1999; 황태상, 1996). 개화기 체육관련 용어는 양생(養生), 섭생(攝生), 체양(體樣), 체조(體操), 체육(體育) 등으로 이들은 시기를 달리하며 혼용되기도 하였다. 한왕택(1999)에 따르면 1888년에 양생, 1889년에 섭생, 1895년에 체양, 1897년에는 체육<sup>9)</sup>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한편 체육이란 용어가 정착되기 이전에 체육과 등가의 성질을 지닌 용어로 체조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다(황태상, 1996).

정신적 교육이나 지적 교육에 대비되는 말로 신체적 혹은 신체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인 체육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서양의 physical education의 번역어인 일본어의 體育를 차용한 것이다(한왕택, 1999). 미국에서는 1791년 필라델피아에 첫 번째 수영장이 건립되고, 1820년 하버드대학교에 첫 번째 학교 체육관이 지어

---

9) 황태상(1996)은 1895년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書)의 삼육주의—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知養)—에 체양이 교육으로서의 체육의 의미하는 최초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1900년 이기(李沂)가 순한문체로 발표한 「一斧劈破論(일부벽파론)」에 제시된 삼육(三育)의 방법으로서의 체육이 한국에서 체육이란 용어의 최초 사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왕택(1999)은 1897년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발표된 「친목회 회보」 제5호에 제시된 사육(四育: 지육, 덕육, 미육, 체육)으로서의 체육이 체육 용어의 최초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졌으며, 1831년에는 Warren이 처음으로 physical education에 대한 이론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등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중반에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체육(physical education)이란 용어는 19세기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Core, 2010; Siedentop, 2009).<sup>10)</sup> 그리고 Caldwell(1834)과 Warren(1846)은 미국의 체육운동(physical education movement)의 태동에 일조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은 주로 의사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체육은 다소 건강, 위생과 관련 영역에서 다루어졌다(Berryman, 2010). 이후 1885년 미국체육학회(AAHPERD)의 창립을 계기로 체육은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직업(profession)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체육이란 용어 사용 전 혹은 사용 중에도 체조(gymnastics), 신체육성(physical culture)<sup>11)</sup>, 신체단련(physical training)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나타났다고(하남길, 2004; Bucher, 1975).

체육(physical education)은 신체적(physical)이란 형용사에 교육(education)이란 명사를 연결해 만든 복합명사로서, 신체적(physical)이란 인간의 몸(body)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육이란 신체 교육을 의미한다. Bucher(1975: 22)는 체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0) 1831년 하버드대학교 생리·해부학 교수인 John Warren이 『Theoretical Treatise on Physical Education』에서 Physical Education(체육)이 처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신현규, 2008). 송형석(2006b)은 Warren이 1831년, Pearson이 1840년에 physical education을 저서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이후 1861년 Spencer, 1861년 Maclaren이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Rush(1772), Webster(1790), Pestalozzi(1807)에 의해 Warren 이전에도 체육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현덕, 2005). 특히, Warren의 저서에서 physical education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Siedentop(2009: 26)은 단지 “Warren이 체육에 관한 첫 번째 이론적 논문을 출간하였다(John Warren published the first theoretical treatise on physical education in 1831)”고 제시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봤을 때, Warren이 체육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 체육에 관한 최초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Warren의 1831년 출간된 저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1846년 『Physical educ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health』가 2판인 점을 미루어 보아, 1판이 1831년에 발간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http://books.google.co.kr/books?id=Fa9YCsGfg2YC&printsec=frontcover&dq=john+collins+warren&hl=ko&sa=X&ei=wUthUdWQC8TxiAfi2YDYBQ&ved=0CDEQ6AEwATgU> 참조

11) Physical culture라는 용어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지만 19세기 후반까지 religious culture, social culture, intellectual culture 등과 대등하게 사용되었으며, physical training과 유사어로 사용되었다(Bucher, 1975: 18).

체육(physical education)은 전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된 신체 활동이라는 도구(medium)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적합한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a field of endeavor)이다.

미국의 경우 체육이란 용어가 19세기 중반에는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의 증진과 체력단련을 의미하였지만, 이후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체육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체육은 체력육성이나 체력단련의 의미를 지닌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으로부터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라는 관점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신체를 교육 전 과정의 영역으로 편입하여 건강과 단련이라는 제한적 의미로부터 그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신체의 교육’과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체육교육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내적으로 인식된 몸으로서 soma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somatics 혹은 somatic education이라는 대안적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정응근·오정석·박현우, 1992).

일반적으로 체육은 신체 교육(physical education)을 의미한다. 그것이 ‘신체의 교육’이든 ‘신체를 통한 교육’이든 혹은 ‘소매틱 교육’이든 모두 신체 혹은 신체 활동이 대상이며 논의의 중심에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 타 교과 교육과 차별성을 지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상으로서 신체와 신체 활동을 상정하고 있다. 체육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 교과 교육으로서 체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이라는 틀에서 체육을 생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김영갑·권옥동, 2006).

교과 교육으로서의 체육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확장하여 학문으로서 체육에 대한 접근이 20세기 중엽에 시도되었다. 이는 1960년대 불어 닥친 체육의 학문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4년 Henry는 그의 논문(Physical education:

An academic discipline)에서 학문으로서 체육의 정립을 통해 체육의 존재적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강성민, 2013; 김동규, 2005; Henry, 1964). 체육학은 학문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체육학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였다(Henry, 1964). 이를 통해 학과의 명칭도 학문으로서의 체육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Sport science나 kinesiology의 탄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체육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체육은 건강 증진이나 체력 단련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지식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신현규, 2008). 이 과정에서 체육은 각 모학문에 기반을 두고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운동학습 및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역사 및 철학, 스포츠 및 체육 관리와 같은 체육학의 하위 영역을 탄생시키게 되었다(송형석, 2012; Henry, 1978). 결론적으로 체육이란 용어는 체력과 건강, 교과교육,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면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학문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일정 부분 스포츠와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체육은 종래의 교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체육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차이를 지니게 된다. 북미와 유럽에서 사용되는 체육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며(함정혜, 1996), 서양과 동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육은 영어의 ‘physical education’에서 차용된 것으로 체육은 교과 교육으로서의 체육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의미의 영역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나영일, 2002; 사또, 2005).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sup>12)</sup>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육과 스포츠는 그 의미하는 바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체육이라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영어에서는 스포츠(sports)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체육은 교과 교육의 한 영역이라기보다 스포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해 체육은 일상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

12) 현재의 공식 영문 명칭은 ‘Korean Olympic Committee’이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한국 사회에서 ‘신체 활동’ 전반을 포함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광의의 체육은 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과 교육, 스포츠, 그 외 신체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과 스포츠는 그 지칭하는 바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체육이란 용어의 의미 변화에 기인하기도 하고, 외래어의 유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역적·역사적 기반의 차이로 인해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체육(physical education)과 스포츠(sports)<sup>13)</sup>가 현재 영미권에서는 그 지칭하는 바가 확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경계가 모호하여 사용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체육을 교과교육으로서 신체 교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며, 스포츠—스포츠가 신체 교육의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를 교과 교육의 성격을 배제한 ‘제도화된 규칙에 의한 경쟁적 신체활동’에 한정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의 모호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스포츠의 개념과 내재적 선에 대한 기존 논의

### 1) 스포츠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sup>14)</sup>

사어(死語)가 된 영어의 ‘disport’ 혹은 ‘desport’ 는 일을 중지하고 기분

---

13) 스포츠(sport)는 일반적으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형태로 쓰인다. 가산 명사의 형태로 쓰일 때는 단수형인 a sport나 복수형인 sports로 사용되고, 불가산명사의 형태로 사용될 때는 sport로 표기되며, 불가산명사인 sport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대신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포츠’ 를 사용하였다.

14) 본 논문 작성 중 2013년 4월 30일에 ‘스포츠 구성요소의 성격’이라는 소논문을 「체육과학연구」에 투고하였으며, 해당 소논문의 ‘서론’과 ‘스포츠 정의에 대한 기존 논의’는 ‘스포츠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 해당 소논문은 2013년 7월 16일 현재 조건부 게재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전환을 위해 유희를 즐기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desportare’와 고대 프랑스어 ‘desport(er)’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세기 경 어두운 di(de)가 탈락하여 오늘날의 sport로 정착하였다(박주한, 2002; 하남길, 2004; 함정혜, 1996; Sansone, 1988; McNamee, 2008). 스포츠(sport)의 어원이 지닌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는 일상의 심각한 삶의 영역을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유희적이고 허구적이며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졌다.<sup>15)</sup>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놀이와 게임은 스포츠의 개념에 관련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놀이와 게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학자로서 네덜란드 역사학자 Huizinga와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Caillois를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놀이와 게임에 대해 논의를 펼치고 있으며, 자발적인 활동으로서의 놀이를 통해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Huizinga(1970: 47)에게서 “놀이는 시간과 공간의 일정한 제한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활동(a voluntary activity)이며, 놀이는 자유롭게 선택된 규칙에 따르긴 하지만 완전한 구속력을 지니며,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고 있고 긴장감과 기쁨 그리고 일상생활과는 다른 의식을 동반한다.” 놀이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해 봤을 때, 놀이는 심각하지 않으며(not serious), 일상생활(ordinary life)로부터 벗어나 있고, 자유로운 활동(a free activity)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놀이는 물질적 보상이나 이득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자발적인 행위이지만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것에 완전히 몰입(absorbing)되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놀이는 어느 정도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과 공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놀이는 비밀스럽게 그들을 둘러싸려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 일반 세계로부터 그들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사회적 그룹의 형성을 촉진하게 된다(Huizinga, 1970: 32). Caillois는 Huizinga의 놀이에 대한 견해를 일정 부분 따르고 있지만, 놀이를

---

15) 오늘날 스포츠는 일상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개인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활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스러운 내용을 지닌 사회적 활동의 근본으로 바라보는 Huizinga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놀이를 내용이 아닌 형식으로 그리고 성스러움의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Caillois(1961: 9-10)는 놀이를 “자유성(free), 분리성(separate), 불확실성(uncertain), 비생산성(unproductive), 규칙성(governed by rules), 허구성(make-believe)이라는 특성을 지닌 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에게서 놀이는 특징적 형태에 따라 아곤(agon; competition; 경쟁/시합), 알레아(alea; chance; 우연), 미미크리(mimicry; simulation; 모방/의태), 일링크스(ilinx; vertigo; 소용돌이/현기증)라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Caillois, 1961: 12-13). 스포츠와 체스는 아곤에, 룰렛과 로또는 알레아에, 연극이나 영화는 미미크리에, 그네타기, 스키, 등산은 일링크스에 속하게 된다.

Huizinga와 Caillois의 놀이에 대한 담론은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특징에 따른 활동의 분류가 각 범주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는 아곤이지만 스키는 일링크스이다—물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스키는 경쟁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히 설원에서 일정한 기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놀이와 게임, 스포츠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놀이의 영역에 스포츠를 포함한 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해 그들의 논의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힘들 수 있다.

Huizinga와 Caillois가 논의의 중심을 놀이에 두었다면, 체육학/스포츠학자들은 논의의 중심을 스포츠에 두었다. Weiss(1969)는 놀이, 게임 그리고 스포츠가 일상 세계(the daily world)와 그리고 예술과 과학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특히 스포츠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규칙에 의해 인간의 행위가 성립되는 활동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in and through their bodies) 탁월하고자 하는 인간에 의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exemplified) 전통화된 일련의 규칙(a traditionalized set of rules)이다.  
(Weiss, 1969: 143)

스포츠에 대한 Weiss의 정의에서 스포츠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을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을 하며, 그것은 신체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리고 스포츠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일련의 규칙에 의해 실현되는 활동으로, 규칙은 스포츠의 행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련의 규칙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공을 발로 차서 상대의 골대에 넣은 행위, 즉 축구라는 스포츠가 되는 것이다. 규칙으로 인해 수영은 수영, 농구는 농구가 되며, 각 스포츠 종목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 형식이 제시된다.

근대 스포츠의 특성<sup>16)</sup>을 밝히고 있는 역사학자인 Guttmann(1978)은 스포츠를 놀이, 게임, 경기/시합과 관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조직화된 놀이는 게임이고, 경쟁적인 게임은 경기/시합(contest)이며, 신체적인 경기/시합은 스포츠’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놀이→게임→스포츠’로 이어지는 진화론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스포츠는 조직화, 경쟁, 신체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어떠한 형태의 놀이로부터 스포츠로 발전될 수 있으며,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경쟁적이며, 신체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기초하여 스포츠를 제도화된 양식에 의한 기록 추구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포츠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스포츠철학자 Suits를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여러 저작은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Suits(1988a)는 게임—경쟁, 규칙, 제도화를 포함—과 스포츠를 구별 지으면서 스포츠의 네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

16)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일곱 가지 특성은 1) 세속주의(secularism), 2) 평등(equality), 3) 전문화(specialization), 4) 합리화(rationalization), 5) 관료화(bureaucratization), 6) 계량화(quantification), 7) 기록추구(records or the obsession with records)이다.

특성은 게임과 다르게 기술의 게임(a game of skill)이며, 그 기술은 신체적(physical)이어야 하고, 그 게임은 널리 보급되어야(a wide following) 하며, 보급되어 있는 정도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a certain level of stabi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스포츠는 신체적 기술을 토대로 벌어지는 게임이다. 신체적 기술로 이루어진 게임도 지역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열리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리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널리 보급됨’ 과 ‘일정 수준의 안정성’ 이란 특성은 상당히 모호하여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04년 올림픽헌장 제47조 ‘스포츠 프로그램, 종목, 세부종목, 세부경기의 채택(Sports Programme, Admission of Sports, Disciplines and Events)’ 에서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종목(sports), 세부종목(disciplines), 세부경기(events)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특히, 올림픽게임 종목(sports)은 최소 75개국과 4개 대륙에서 남성에게 의해 널리 실시되는 종목 및 최소 40개국과 3개 대륙에서 여성에게 의해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 하계올림픽에, 최소 25개국과 3개 대륙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 동계올림픽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Suits가 스포츠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히 모호하다. 최소 몇 대륙의 몇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널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마치 측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Suits가 스포츠 정의 논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모호한 언어사용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그는 게임의 범주 속에 스포츠를 포함시키고 있어 게임과 스포츠를 동일한 지위를 지닌 활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이, 게임, 스포츠를 비교하는 것은 범류오류(category mistake)를 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17) 올림픽게임의 종목, 세부종목, 세부경기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기계적 추진력에 의존하여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2004년 이후 2007년 개정판에서는 올림픽게임 프로그램의 종목, 세부종목, 세부경기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올림픽회의(the Session)의 권한에 의해 올림픽 프로그램의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Parry(1998: 205)는 스포츠를 신체적 능력이 경연되는(contested), 규칙에 의해 통제된 경쟁(rule-governed competitions)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상대와의 경쟁(contest), 규칙 준수의 의무,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 협력자(co-facilitator)로서 상대에 대한 존경을 스포츠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oxill(2003: 1-2)은 스포츠를 자유롭게 선택된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며, 두 가지 규칙—구성규칙(constitutive rules)와 예의범절에 관한 규칙(rules of decency)—에 의해 통제되고, 신체적으로 도전하게 되며, 탁월성(excellence)을 성취하기 위한 상호 도전 속에서 경쟁(competition)을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포츠를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규칙과 경쟁이 존재하는 신체적 활동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경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반드시 필요로 함으로 제도화를 통해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자로서 상대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였다(Kang, 2009).

스포츠사회학자 Loy(1968)는 스포츠를 게임 발생(as a game occurrence), 제도화된 게임(an institutional game), 사회적 제도(a social institution), 그리고 사회적 상황/체계(a social situation or system)로 바라보면서, 스포츠의 특성으로 즐거움(playful), 경쟁(competition), 신체적 기술, 전략, 운 (physical skill, strategy and chance) 그리고 고도의 신체적 기능(physical prowess)<sup>18)</sup>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에 근거하여 “스포츠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the demonstration of physical prowess)”으로 정의된다(Loy, 1968: 6).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단순한 신체적 기술과 다르게 많은 연습과 학습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스포츠는 조직화 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드러나는 게임이다.

Coakley(2001: 20)는 스포츠사회학적 시각에서 스포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

18) Physical skill과 physical prowess 모두 신체적 기술로 번역될 수 있다. Loy(1968: 6)는 “the demonstration of physical prowess는 상대를 제압하는 전체 신체적 활동의 맥락 내에서 고도의 신체적 기술과 그 능력의 적용이다”고 말하며, physical prowess는 developed physical skills라 칭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physical skill을 ‘신체적 기술’, physical prowess를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고 번역하였다.

고 있다.

스포츠란 개인의 흥미와 외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 참여자에 의한 격렬한 신체적 노력(rigorous physical exertion) 혹은 비교적 복잡한 신체적 기술의 사용(the use of relatively complex physical skills)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institutionalized competitive activities)이다.<sup>19)</sup>

그는 참여자의 동기와 신체성의 발현 정도 혹은 신체적 기술, 그리고 제도화와 경쟁을 스포츠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상정하고 있다. 그 중 스포츠 참여자가 내재적 혹은 외재적으로 동기화 된다는 그의 관점은 Parry나 Boxill이 제시하고 있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견해와 다소 차이를 지니고 있다. Coakley는 프로 스포츠를 염두에 두고 혹은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외재적 보상에 의해 참여자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 그 자체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간주한다면 외재적 동기에 의한 스포츠 참여는 성립되기 힘들다. 스포츠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규범적이라기보다 현상에 대한 기술적 접근에 기인한다.

Coakley의 이와 같은 맥락은 스포츠사회학자 임변장의 스포츠 정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임변장(1996: 44)은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실시할 때 ‘스포츠 활동의 형태’, ‘스포츠 활동의 조건’, ‘참가자의 주관적 성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스포츠는 내적 또는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하여 참가가 동기 유발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신체 발현을 포함하거나 혹은 비교적 복합적 신체기능을 구사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의 참여는 참여자의 성향에 의해 촉발되어 복

---

19) 그는 2009년 10판에서 “스포츠는 잘 확립되어진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제되는 경쟁적 신체활동(well-established, officially governed competitive physical activities)이며, 그 속에서 참여자는 내재적이고 외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스포츠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에 그가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다.

합적인 신체기능의 구사를 요구하는 형태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활동은 제도화와 경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의 견해도 Coakley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접근에 의존해 있어, 규범적인 한계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보인다.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의 영역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인간의 삶과 함께 해온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부여된 문화적 산물로 인식된다. 나영일(2002: 94)은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을 스포츠로 간주하고 탈육체화된 놀이 활동의 즐거움을 강조한 채 바둑이나 e-스포츠를 스포츠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사회적 경향을 경계하면서 스포츠는 “제도화된 경쟁적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문화”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견해에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외연이 확장된 놀이활동의 영역으로부터 스포츠의 본질적 요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스포츠 영역 안으로 편입하려는 유사 놀이활동에 대해 스포츠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서 ‘신체활동’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 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 삶에 가치가 부여되고 역사성을 지닌 문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성격을 지닌 신체성이 발현되는 활동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없으며, 신체문화의 성격규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남길(2004)과 신현규(2011)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체적 탁월성이 발현되는 문화로서 스포츠를 바라보았다. 하남길(2004: 84)은 스포츠와 게임을 구별하는 주요 속성으로 신체의 탁월성을 거론하면서, 스포츠를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미확정성, 규칙성, 경쟁성을 지닌 신체활동으로서 전술과 신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성을 추구하는 신체문화”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현규(2011: 123)는 스포츠를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나 또는 다른 대상과 신체적 탁월성을 경쟁하는 신체운동기술문화”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모두 신체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로서 스포츠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견해와 함께 박주환(2012: 173)은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인간 활동’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는 놀이(유희)적 속성을 지니고서 규칙(심판)에 의해 중재되는 경쟁적 활동으로 지정의가 동반된 체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적·동적 대근활동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인간의 활동이다.

그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문화적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놀이의 근원적 속성인 유희성을 지니면서 규칙을 토대로 대근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활동이다. 그리고 안용규 등(2011: 52)은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의 한자는 없으며, 영자는 sport 또는 sports로 표기한다. 스포츠란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경쟁적 활동으로서, 승패를 겨루는 데 있어 활발한 신체발현과 고도의 신체기량이 요구되며, 즐거움이나 재미 같은 내재적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 스트레스 해소, 생계유지 등과 같은 외재적인 이유도 그 참가동기가 될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이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제도화된 규칙’, ‘경쟁적 활동’, ‘신체발현과 고도의 신체기량’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 이유와 외재적 이유로 참여자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스포츠사회학적인 관점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스포츠 참여자의 참여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정의에 부분에 포함될 이유가 없으며, 스포츠 그 자체로 봤을 때 즐거움이나 재미는 내재적 요소라고 규정하기 힘들 것이고, 개인의 내적 참여동기를 생각하였을 때에도 스트레스나 건강 또한 내재적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홍식(2001)은 스포츠를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방식으로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여타의 놀이와 게임으로부터 스포츠가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정의에 근거했을 때, 스포츠의 경쟁이 지향하는 바는 신체적 탁월성이며, 그 경쟁은 제도화된

규칙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제도화된 규칙이라는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준호(2005: 122)는 스포츠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스포츠(sport)란 신체적 성취(physical achievement)를 목적(goal)으로 하는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이며, 스포츠(sports)는 스포츠의 복수형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스포츠의 영어 표기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는 신체적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적 성취를 통해서 스포츠는 여타의 활동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 역시 신체성을 스포츠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스포츠 개념 정의의 구조는 정의항과 피정의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A에 대한 정의는 ‘A는 이러저러한 B이다’ 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A는 피정의항이고, ‘이러저러한 B’ 는 정의항이다. A는 종개념에, B는 종개념을 포함하는 유개념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은 종차라고 칭하고 유개념에 포함된 종개념의 성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다’ 에서 ‘인간’ 은 피정의항, ‘사유하는 동물’ 은 정의항이며, 여기서 ‘사유하는’ 은 여타의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종차이다. 즉, 종차는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고유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기존 정의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스포츠가 ‘게임’, ‘활동’, ‘인간 활동’, ‘신체 활동’, ‘신체 문화’ 라는 유개념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게임’ 의 일부분으로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은 ‘놀이→게임→스포츠’ 라는 진화론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놀이→게임→스포츠’ 라는 진화론적 도식으로 스포츠를 생각하였을 때, 스포츠는 놀이와 게임이 지니고 있는 허구성, 분리성, 비생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스포츠는 현실과의 분리된 현상이라기보다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송형석, 2006a). 더군다나 프로 스포츠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되거나 허구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산업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적인 활동이자



노동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스포츠는 놀이와 게임의 영역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간 활동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를 ‘활동’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생물의 움직임에 포함하는 폭 넓은 영역을 견지하고 있다. ‘인간 활동’으로 스포츠를 바라봤을 때는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 활동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고, ‘신체활동’이란 측면에서 스포츠를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활동 중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 문화’로서 스포츠를 규정하였을 때 스포츠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는 문화로서 이해되며, 신체성에 기인한 문화의 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견해 모두 스포츠를 포함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지만, 스포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 ‘신체 활동’, ‘신체 문화’라는 유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하는 ‘인간 활동’이라고 규정했을 때 과연 스포츠가 그것들과 동일한 지위와 자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 활동’이나 ‘신체 문화’로 스포츠를 규정한다면 스포츠가 과연 정신과 대비되는 신체에 국한된 행위만을 일삼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acIntyre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정합적이고 조직적인 인간 활동인 실천을 스포츠의 유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천은 단순하고 확일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 의해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탁월성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성립되어 있으며, 그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는 바인 내재적 선에 의해 그 목적하는 바가 드러나는 인간 활동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천의 개념을 통해서 스포츠를 규범적 잣대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을 스포츠의 유개념으로 삼았다면, 이러한 실천이 어떠한 특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포츠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로부터 스포츠는 경쟁적 활동으로 이해된다. 기존 정의에서 스포츠는 승패를 결과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활동으로 승패는 상대와의 경쟁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

한 경쟁적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과 한계를 제시하여 일정한 형식을 지닌 행위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규칙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한 규칙은 일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닌 권위를 붙여 받은 제도에 의해 일관성 있게 표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것을 제도화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한 활동이 본질적으로 신체성을 발현하기 위한 활동인지 아닌지가 스포츠를 판가름 짓는 주요한 열쇠이다. 이때 말하는 신체성이란 신체적 탁월성을 포함하기도 하고 복잡한 신체적 기술, 활발한 신체 발현, 대근 활동을 포함하기도 함을 스포츠에 대한 기존 정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스포츠 정의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스포츠의 주요 구성요소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 학자별 스포츠의 구성요소

	경쟁	규칙	제도화	신체성	비고
Weiss		○		○	
Guttmann	○		○	○	
Suits	○	○	○	○	
Parry	○	○	○	○	존경, 자발성
Boxill	○	○		○	상호이해, 자발성
Loy	○	○	○	○	
Coakley	○		○	○	내·외적 동기
임번장	○		○	○	내·외적 동기
나영일	○		○	○	
하남길	○	○		○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미확정성
신현규	○	○	○	○	
박주한	○	○		○	유희성
안용규 외	○	○	○	○	내·외적 동기
김홍식	○	○	○	○	기존 논의 수정
강준호				○	

표1에서 제시된 것처럼 스포츠에 대한 기존 정의는 경쟁, 규칙, 제도화, 그리고 신체성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게 된다. 네 가지 구성 요소 외에도 자유롭게 선택된 자발적인 활동, 내외적 요인에 의해 참여자가 동기화된 활동, 유희성, 상

호이해와 존경 등이 스포츠 개념의 구성요소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스포츠 그 자체를 규정할 때 반드시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요소는 스포츠 참가자의 성향이나 인성적 특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경쟁, 규칙, 제도화, 신체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는 스포츠를 구성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우선적으로 스포츠를 ‘제도화된 규칙에 의한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실천의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시킨다면, 스포츠는 실천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내재적 선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즉,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일관적이고 복잡한 인간 활동의 형식으로, 내재적 선이라는 목적이 성취되는 실천이다.

## 2)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기존 논의

가치와 선<sup>20)</sup>은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Kang, 2009), 협의의 선은 도덕 지향을 나타내는 가치를 흔히 일컬으며, 광의의 선은 ‘ 좋음’ 일반을 의미한다(백종현, 2004). 스포츠에서의 가치와 선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선은 일반적으로 ‘ 좋음’ 일반을 의미하고 있다. 좋음과 가치 있음에 입각하여 그간의 스포츠의 선/가치가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간략하게

20) 흄(Hume)에 있어 선(가치)은 정서(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Moore에게 있어서 선은 단순 속성으로 정의 불가능하며, 선(가치)은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포이만, 피저, 2011; Moore, 1903). 하지만 다수의 도덕철학자들은 선이 존재하며, 그것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선을 여러 방법으로 구별한다. 선은 본래적 선(intrinsic or inherent goods)과 도구적 선(instrumental goods)으로 구별되며, 본래적 선은 진, 선, 미, 쾌락 등과 같이 그 자체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도구적 선은 경제적 안전 등과 같이 수단적으로 가치 있는 것 혹은 본래적 선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포이만, 피저, 2011). 칸트의 경우 선을 본래적 선(intrinsic good)과 완전한 선(complete good)으로 구별하는데, 본래적 선은 선에 대한 의지이고, 완전한 선은 완전하게 덕스러운 존재들의 체계이며, 그들은 덕에 맞는 행복을 누린다고 말한다(브로드, 2000). 또한 내재적 선(internal goods)과 외재적 선(external goods)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MacIntyre(1984)의 내재적 선이란 실천의 고유한 선으로 본래적 선과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외재적 선은 타 실천을 통해서도 추구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그에게서 선이란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 협의의 선 개념이 아니라, 좋음 일반을 의미하는 광의의 선이다.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Ⅲ장 참조.

살피도록 할 것이다. 스포츠의 선/가치를 내재적 선/가치와 외재적 선/가치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외재와 내재의 개념적 구분보다 기능하는 바에 따라 선/가치를 구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선/가치를 내재적과 외재적으로 구분하고 그것이 스포츠로부터 성취되는 바가 다르며, 그것이 스포츠에 작용하는 바도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어떠한 선/가치가 내재적으로 그리고 외재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와 외재적 선/가치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내재적 선/가치는 스포츠와 관계하지만 외재적 선/가치는 스포츠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sup>21)</sup> 내재적 선/가치는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선/가치로서 스포츠를 통해서 반드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며, 외재적 선/가치는 스포츠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획득될 수 있거나, 스포츠를 통해서 획득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의 외재적 선/가치는 건강, 재미(fun), 명성, 사회화, 재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포츠를 통하지 않고서도 획득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획득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의 경우에는 실천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내재적 선/가치의 예들이 내재적 선/가치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고 있다.

Reid(2002)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스포츠 그 자체에 참여하여 성취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이며, 운동선수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flow’, 즉 몰입을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제시하였다. 몰입에 대한 경험은 많은 운동선수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

---

21) 스포츠에서의 선/가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다. 박주한(2010)은 신체운동(sports & exercise)의 가치유형은 가치의 종합적 수용을 기준으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 예방의학적 가치와 재활치료적 가치,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쾌락주의적 가치와 금욕주의적 가치, 교육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현대사회에서 부각되는 신체운동의 가치는 예방의학적 가치, 재활치료적 가치, 교육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쾌락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 예방의학적 가치, 재활치료적 가치, 교육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잣대를 사용함으로써 명확한 경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 그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몰입이라는 경험은 비운동선수(non-athletes)에게 설명하기 힘들며, 일정수준을 지닌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된다. 즉, 몰입은 스포츠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이해되기에 힘들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몰입은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과 감정에 얽매어 있어 그것이 반드시 스포츠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몰입이라는 경험은 스포츠를 통해 성취되거나 획득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생각될 수 없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라는 실천의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을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상정할 경우 몰입이 스포츠의 목적이 되거나 스포츠에서 탁월성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몰입 그 자체를 스포츠의 목적으로 혹은 탁월성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Arnold(1997)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목적과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포츠의 목적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는 기술, 전통, 성취(achievements), 도덕적 덕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로서 기술은 스포츠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획득될 수 있으며, 스포츠의 목적이자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서 전통은 그 자체가 스포츠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기보다, 스포츠에로의 입문이 스포츠 전통에로의 입문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확대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스포츠의 전통은 역사적 흐름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전통은 스포츠의 목적으로 기능하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전통은 실제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선이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취 그 자체가 스포츠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든지 그것을 스포츠의 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덕은 실천의 선과의 관계에서 특

히 내재적 선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으로서 인성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지, 덕 자체가 내재적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두 학자에 의해 제시된 스포츠의 선/가치 개념은 선/가치를 내재와 외재로 구분하는 다소 이원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Kretchmar(2005)는 가치를 내재와 외재로 구분하지 않고, 스포츠의 주요한 가치를 체력(fitness), 지식, 운동 기술, 즐거움(pleasure)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네 가지 스포츠의 가치는 스포츠의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기능하는 지에 따라서 내재적으로 외재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스포츠의 가치가 지니는 존재론적 지위는 일원론적인 시각 내에 위치시키면서 그것이 스포츠 참여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기능적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네 가지 가치들이 경험의 형식으로 작용할 때 내재적 가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들이 수단으로 작용할 때 외재적 가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그에게서 ‘내재’와 ‘외재’는 존재론적인 지위를 지니는 것이기보다 기능적 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력, 즐거움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외재적 선/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Kretchmar는 그것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 내재적일 수도 있고 외재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재적 선/가치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체력이나 즐거움은 스포츠를 통해서 성취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스포츠 그 자체의 목적이나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내재적 선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스포츠의 가치는 다분히 스포츠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 스포츠 참여자에게 일어나는 내적 그리고 외적 동기 혹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sup>22)</sup>

---

22) 스포츠가 아닌 체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체육과의 성격—체육은 움직임 육구의 실현 및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공헌하는 교과이다.— 또한 이와 같은 비판의 칼날로부터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체육이라는 인간 활동의 측면에서 움직임 육구의 실현이란 그 내재적 가치라기보다 체육 참여자의 내적 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체

위에서 제시된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는 MacIntyre의 내재적 선이 해당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고, 실천의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며,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몰입이라는 경험은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 있으므로, 스포츠라는 실천 그 자체의 선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어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스포츠와 즐거움 사이에 필연적 관계를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도덕적 덕의 경우에 MacIntyre의 덕 이론에서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스포츠라는 실천의 내재적 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된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는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선의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이자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어 나타나는 탁월성에 대한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시도가 요구된다.

### 3. 왜 MacIntyre의 실천의 내재적 선인가?

MacIntyre(1984)는 자유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정의주의(emotivism)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통과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도덕과 윤리의 보편적 근거로서 덕을 상정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박관수, 2006; 이원봉, 2007). 그의 덕 이론은 Aristotle의 윤리학적 견해를 일정 부분 따르고 있으며, 목적론적 세계관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상황에 따른 감정과 행위의 올바른 선택을 중요시 하는 덕 이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

육 문화의 계승, 발전도 다소 체육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라기보다 체육에로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육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공동체의 개인과 실천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원봉, 2007; Haldane, 1994 재인용). 그러나 그의 견해가 상대주의라는 비판에 맞서 그는 개인의 행위에 따른 도덕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덕이라는 인간의 특징적 성질을 실천(a practice), 서사적 자아(a narrative self), 전통(traditions)과 관계시키며, 도덕적 준거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도덕적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는 덕이 실현되는 장으로서 실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복잡하고 일관된 인간 활동의 형식으로, 실천은 내재적 선의 성취를 통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며, 내재적 선에 대한 성취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MacIntyre, 1984). 실천과 내재적 선은 순환논리 속에서 상호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인간 활동이 실천이라면 내재적 선을 지니게 되고, 내재적 선은 실천의 목적으로서 그 근간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은 자신의 탁월성을 기준을 지니고 있고 그 탁월성의 기준으로 인해 하나의 실천은 여타의 실천과 구분 짓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탁월성의 대상으로 실천의 내재적 선을 이해할 수 있다.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내재적 선을 밝혀낸다면 그것에 의해 실천의 근본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의 성격 규명이나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MacIntyre(1984)의 실천 개념에 따르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의 준거로서 작용하며,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근거하여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실천의 개념적 틀 안에서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규범적으로 할 수 있다.

그의 덕 이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천은 건축, 풋볼, 농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조직적이고 일관된 인간 활동의 양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그의 덕 이론은 적용되고 있다. 그의 덕 이론은 교육학(유재봉, 2000; 홍은숙, 2002; 2006; 2009; MacIntyre & Dunne, 2002), 경영학(Beadle & Moore, 2006; Solomon, 1992;



2003), 의학(Pellegrino, 1995; 2001) 그리고 연구윤리(Israel & Hay, 2006; McNamee, Olivier & Wainwright, 2007)에 이르기까지 실천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인간의 활동 영역에 적용되어 덕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 활동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하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영역과 더불어 스포츠 또한 MacIntyre의 덕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으로 가정하고 체육/스포츠학(김홍식, 2005; 2007; 박정준, 2011; 양종구, 2005; 오현택, 2006; 임혜옥·김영선, 2005; 최의창, 2010b; Arnold, 1997; McFee, 2004a; 2004b; McNamee, 1995; 2008)에서도 그의 이론적 견해를 수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체육/스포츠학계에서는 스포츠의 개념 정의와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도덕적 판단을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스포츠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그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MacIntyre의 덕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스포츠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실천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Arnold(1997)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Arnold는 스포츠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적(descriptive) 방법이다. 기술적 방법은 흔히 각 개별 스포츠가 드러내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포츠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 방식은 스포츠를 규범적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방법은 스포츠가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드러내는데 안주해 있으므로 스포츠의 본성/본질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술적 방식은 ‘스포츠는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스포츠는 무엇(속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스포츠 성격 규정에 있어 규범적(prescriptive/normative) 방식이 적용될 것을 주장한다. 이는 MacIntyre의 실천 개념을 적용하여 스포츠를 실천 속으로 편입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실천은 자신의 근간을 유지하는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고, 내재적 선의 성취는

덕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의 구체적 삶을 실현하는 실천의 유지를 위해서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도덕적 방식으로 스포츠가 이해되어야 하며, 도덕교육으로서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천은 전통으로부터 역사성을 부여받아 사회적으로 성립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스포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스포츠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실천(a culturally valued human practice)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그가 제시한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가 실천의 내재적 선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 스포츠의 본성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McFee(2004a; 2004b)는 MacIntyre의 실천의 개념에 근거하여 스포츠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스포츠의 규칙이 지니고 있는 규범성을 강조하여 스포츠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섯 가지 가정—1) 스포츠가 본성적으로 혹은 내재적으로(intrinsically) 가치 있다면; 2)그러한 가치가 도덕과 어떤 관련이 있다면; 3)도덕 판단이 본질적으로 특별하다면(particular); 4)스포츠가 특별한 예들을 나타낼 수 있다면; 5)그리고 그러한 예들이 페어플레이와 같은 도덕적 은유(moral metaphor)를 구체화시킨다면—이 성립된다면 스포츠는 ‘도덕적 실험실(a moral laboratory)’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도덕적 실험실’은 내재적 선/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덕적 실험실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를 주장하는 McFee의 논리에 맞서 Culbertson(2008)은 메타윤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포츠가 도덕적 실험실로서 담당하는 역할은 중대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다시 McFee(2009)는 Culbertson이 자신의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스포츠는 실천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덕적 실험실’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재반론을 펼쳤다. 도덕적 실험실을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로 가정했다는 측면에서 McFee의 논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포츠의 선을 가정한다면

그리고 스포츠의 목적과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가정한다면 그의 논의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실험실이라는 것이 성취될 수 있는 대상인지, 탁월성의 대상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McNamee(1995; 2008)는 그의 학문적 영역의 전반—스포츠와 연구윤리 등—에 MacIntyre 덕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스포츠철학자이다. 그는 스포츠를 실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내재적 선의 추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실천으로서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MacIntyre(1984)가 병원, 학교와 같은 제도(institutions)는 다소 외재적 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실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선의 성취가 목적이 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듯, McNamee는 스포츠와 스포츠 관련 제도와의 관계에서 스포츠라는 실천이 올바르게 유지·계승되기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스포츠가 실제로 추구해야 할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sportsperson)이 지녀야 할 덕으로 스포츠퍼슨십(sportspersonship)의 함양이 요청되며, 이는 스포츠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스포츠라는 실천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재적 선을 단순히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목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스포츠학계에서는 김홍식(2005; 2007)에 의해 MacIntyre의 덕 이론이 스포츠에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MacIntyre의 덕 이론과 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적용한 Arnold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스포츠 성격 기술에서 탈피하여, 규범적 기술 방식에 의해 스포츠 성격을 규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MacIntyre의 덕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 서사적 자아, 전통의 개념에 입각하여 체육/스포츠가 도덕 교육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의 관점은 체육/스포츠를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있어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의 견해 또한 스포츠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도덕 교육으로서의 스포츠를 정당화하는 작업에 그치고 있어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종구(2005)는 MacIntyre의 실천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적 기술 방식을 이용하여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스포츠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성격 규정과 함께 덕 이론을 스포츠윤리와 체육교육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사회적 관습을 통해 그것이 지향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스포츠는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스포츠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가 진행한 스포츠의 성격 규정 방식은 여타의 활동—특히, 바둑—이 스포츠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스포츠의 목적이자 탁월성의 기준으로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현택(2006)은 MacIntyre가 제시한 덕의 세 가지 단계적 성향, 실천에 내재하는 선을 추구하는 성향, 전체적 인간 삶의 선에 기여하는 성향, 사회적 전통을 통해 구현되는 성향을 통해 덕 이론이 스포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적 성향을 덕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으로 파악하고, 실천에 내재하는 선을 추구하는 스포츠, 전체적 인간 삶의 선에 기여하는 스포츠, 사회적 전통을 계승하는 스포츠로 나누어 덕의 단계적 역할에 의해 스포츠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통의 개념에 입각하여 스포츠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논의는 덕의 단계적 역할을 통해 스포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덕 이론에 의해 스포츠계가 처해 있는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성격 규명의 잣대로 전통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며,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러 구성되고 미래에도 그것에 대한 구성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즉, 새로운 전통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전통의 관점에서 스포츠를 규정하는 방법은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라고 불리는 활동의 현상에 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MacIntyre에 의해서 제시된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활동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인간 활동이 실천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실천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정된 규범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지니고 있으며, 실천의 근본 목적으로서 내재적 선은 실천이 지향해야만 하는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학계에서 제시된 기존 논의들은 MacIntyre가 제시한 실천의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시키면서 스포츠를 덕 이론의 대상으로 편입하여, 스포츠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노력도 엿볼 수 있었으나, 스포츠의 목적으로서 그리고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것으로 내재적 선을 규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근본 목적을 밝히기 위해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내재적 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스포츠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를 드러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 Ⅲ. MacIntyre의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

철학이라는 우산 속에 존재하는 윤리학, 특히 기존의 규범윤리학은 행위의 결과와 동기를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반면에 덕 이론은 덕을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의무론이나 목적론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면, 덕 이론은 덕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덕 이론은 Aristotle의 윤리학적 견해로부터 출발하며, MacIntyre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현대 윤리학의 궤도에 진입하였다. MacIntyre의 덕 이론에서 실천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며,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는 실천의 목적으로서 그 근간을 유지하고 공동체 선의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을 견지하면서 본 장은 MacIntyre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에 대한 개념 파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덕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고, MacIntyre가 제시하는 이론적 관점의 근원인 Aristotle의 덕 이론과 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MacIntyre의 덕 이론의 성격, 실천과 내재적 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였다.

#### 1. 덕 이론의 성격과 덕의 개념

##### 1) 덕 이론의 성격<sup>23)</sup>

‘철학을 한다(doing philosophy)’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학문을 무엇에 관한 이론체계라고 규정하여, 이에 견주어 철학을 설명했을 때, 철학은 ‘철’에 관한 이론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백중현, 1995). 그러나 ‘철에 관한 학

---

23) ‘덕 이론의 성격’은 본 연구자의 논문(2012) ‘덕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스포츠 기업 및 기구를 중심으로’의 일부분인 ‘덕으로서 CSR과 스포츠 기업기구의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sup>24)</sup> 철학이란 고대 그리스어 ‘philosophia’의 번역어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철학하는 사람, 즉 철학자는 개념의 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다(김태길, 1996; 들뢰즈·가타리, 1995; 백종현, 1995).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본다면 ‘철학을 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하고, 개념 규정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포함한다.

철학은 크게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론철학은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포함하고 있고, 실천철학은 윤리학과 정치철학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삼고 있다(김태길, 1996). 실천철학 중 윤리학(ethics)은 도덕에 관한 지식체계로서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으로 불리기도 한다. 도덕(morality)이 삶의 방법이나 지침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윤리학은 그것들에 대한 개념적이고 조직적인 성찰을 통한 도덕에 관한 연구(the systematic study of morals)와 관련을 맺고 있다(Culbertson, McNamee & Emily, 2008). 윤리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연구로서 기술 윤리학(comparative or descriptive ethics)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관한 규범을 제시하는 규범 윤리학(normative or prescriptive ethics)이다. 기술 윤리학은 사회 과학적 방법에 의해 사람들이 무엇을 도덕적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 실험과 조사를 통해 밝히는 학문이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관해 밝히는 철학적 이론 체계이며, 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철학이다(강성민, 2012; Culbertson, McNamee & Emily, 2008).

규범 윤리학은 다시 크게 칸트주의로 대표되는 의무론(deontology), 결과주의나 공리주의로 불리어지는 목적론(teleology)과 덕 이론/윤리학(virtue theory/ethics)<sup>25)</sup>

24) ‘철학(哲學)’은 philosophy에 대한 번역어이며, ‘철(哲)’이란 ‘밝다’, ‘알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철인(哲人)’이란 ‘학식이 높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흔히 철학자들 지칭한다. 하지만 백종현(1995)은 ‘철학’이란 용어가 번역어로서, 의미전달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5) 의무론은 도덕적 행위의 판단 근거로 당위(ought to)를, 목적론은 그 근거로 행복의 총량(amount of happiness)을 제시하고 있으며, 덕 윤리학(덕 이론)은 도덕 판단의 근거로 덕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덕 이론을 덕 윤리학에 한계지어 사용한다.

로 나누어진다. 종래의 의무론적 윤리관과 목적론적 윤리관이 도덕적 행위의 규범에 대해 설명하였다면, 덕 이론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덕 이론은 해당 용어가 품고 있듯이 그 이론의 중심에 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덕이란 도덕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의 특질(trait)로 설명될 수 있다. 덕 이론에서 덕은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을 하며, 주어진 상황(a given situation)에 따라 나타나는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sup>26)</sup>

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격적 특성 혹은 성품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덕의 종류는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책임, 배려, 존경, 성실, 공정, 정의 등과 같이 인격적 존재인 인간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성격 특성을 말한다(Rachels, 1999; MacIntyre, 1984). 덕 이론에서만 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덕이 도덕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을 지라도, 유덕과 부덕은 인간의 본성적 특질을 설명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윤리학사에 있어 덕이라는 것은 의무론이든 공리주의든 어떤 사상체계를 막론하고라도 도덕 판단의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계몽주의 시대의 칸트주의나 공리주의와 같은 지배적 윤리관에 비해 덕 이론에서 덕은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범 윤리학과 차별성을 지닌다.

현대 덕 이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Aristotle의 윤리학적 전통을 이어받아 20세기 중반에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부활의 신호를 알린 철학자는 Anscombe

26) 상황에 따른 감정과 행동의 차이로 인해 덕 이론은 도덕 판단에 있어 상대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7) 사실 윤리학사에서 덕이 간과된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덕은 인간의 고유한 특질로서 이것이 간과될 경우 도덕에 관한 담론 자체의 성립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유덕한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인간의 성품을 함양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와 행위자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덕한지 부덕한지를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 다소 자연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도덕을 바라보고 있는 스피노자와 흄에 있어서도 덕이란 것은 도덕 판단의 기초적 근거로 자리하고 있다. 양선이(2002)는 흄의 도덕적 정서주의(Moral Sentimentalism)는 덕과 품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덕 이론의 전통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교수이며, 보살핌(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과 공감(Care and Empathy)을 강조하는 현대 덕 윤리학자인 슬로트(Slot)의 철학세계에서도 도덕적 정서주의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황경식·슬로트, 2009).



이다. Anscombe(1958)은 기존의 윤리학적 사조에서 벗어나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덕을 내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법, 의무 그리고 당위보다는 덕, 악덕, 그리고 인성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도덕 판단에 있어 당위나 행위의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윤리학적 사조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됨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녀의 논의는 의무론이나 목적론과 같은 종래의 지배적인 도덕 원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으며, 도덕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지닌다.

그 후 MacIntyre(1984)는 Aristotle의 윤리학적 관점을 계승하여 덕 이론의 본격적인 부활을 알리게 되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덕의 면모를 살피고, 실천(a practice),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hood) 그리고 전통(tradition)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덕의 역할과 그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를 통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근거로서의 덕의 작용은 다소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에 도덕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비판과 덕 이론은 현실세계를 간과한 채 다소 낭만적이거나 이상적 공동체를 희망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MacIntyre로 대표되는 덕 이론은 교육학(유재봉, 2000; 홍은숙, 2002; 2006; 2009; MacIntyre & Dunne, 2002), 경영학(Beadle & Moore, 2006; Solomon, 1992; 2003), 의학(Pellegrino, 1995; 2001), 연구윤리 (Israel & Hay, 2006; McNamee, Olivier & Wainwright, 2007), 체육/스포츠학(김홍식, 2005; 2007; 양종구, 2005; 오현택, 2006; Arnold, 1997; McFee, 2004a; 2004b; McNamee, 1995; 2008)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공동체 중심의 이상적 사회를 바라는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MacIntyre가 제시한 실천활동의 개념에 근거해, 교육, 경영, 의료, 연구, 스포츠 등을 실천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와 선 그리고 덕의 함양을 다루고 있다. 그가 밝히고 있는 실천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 전반을 의미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인간 활동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 2) 일반적인 덕의 개념

덕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덕은 도덕 발달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획득된 인간의 특질로서, 감정과 행동에 있어 중간적인 상태(intermediate state), 즉 중용(a mean)<sup>28)</sup>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 좋고 나쁨(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고, 이러한 중간적인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은 덕을 소유하거나 배양하는 과정이다(Kang, 2009). 덕 이론에서 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덕(그리고 악덕)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 덕(그리고 악덕)은 행위의 자극뿐만 아니라 반응으로서 행동과 감정의 모든 성향(dispositions)이다.
- 덕을 지닌 사람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은 옳은(right) 상황에서, 적절한(right)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 옳은(right) 이유에 대해 느껴지는 것이다. (Hursthouse, 1997: 108)

덕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덕은 도덕 판단과 행위에 있어 근거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덕은 Aristotle이 강조한 것처럼 행동과 감정에 관계된 것으로서 인간의 획득된 특질이며,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a certain situation)에서 올바르게 느끼고, 판단하며,

---

28) 『中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中者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中은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과함과 급하지 않은 것의 이름이요, 庸은 평상함이다); 君子 中庸, 小人 反中庸(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反)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군자가 중용을 함을 군자이면서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요, 소인이 중용에 반대로 함은 소인이면서 꺼림 혹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大學中庸 集註』, 성백효 역주 참조.

행동할 수 있다.

덕의 성격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중요하고, 감정과 행동에 있어 나타나며, 어떠한 상황에서 인간을 바르게 느끼고 행동하게끔 인도한다. 덕은 인간의 특질로서, 책임, 배려, 성실, 정의 등 다양한 종류를 지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덕은 성격의 좋은 성질(a good quality of character)이고, 특히 반응하거나 인정하는 성향(disposition)이며, 하위 덕들(items)은 탁월하거나 좋은(excellent or good) 방법으로 덕이 적용되는 분야 내에 존재한다.  
(Swanton, 2003: 19)

덕 이론에서 덕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근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하는 성향이며,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덕이 영향을 미치거나 작용하게 된다. 즉, 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본래적 성향을 말하며 올바른 행위에 대해 판단의 근거로 작동한다.<sup>29)</sup> 덕의 역할은 한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활동 속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 활동이 추구하는 선(a good)<sup>30)</sup>의 획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

29) 『論語』에서도 덕의 성격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德不孤，必有隣(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君子 懷德 小人 懷土，君子 懷刑 小人 懷惠(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자신이 처한 곳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혜택을 생각한다); 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仁者 必有勇 勇者 不必有仁(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에 맞는 말을 하지만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감하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꼭 어진 사람만 아니다). 『논어』 유일석 역주 참조.

30) 우리말에 있어 선(善)은 도덕적인 성격이 다소 강하지만, 영어에 있어 선은 ‘a good’ , ‘goods’ 혹은 ‘the good’으로, ‘좋은’ 일반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고, 도덕적 성격과 함께 쾌락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이 쾌락을 의미한다고 해서 쾌락 자체를 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술은 그것이 지니는 선(도구적 선)이 존재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련의 기술에 선이 존재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MacIntyre에게 있어 선은 도덕적 가치와 함께 기능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덕은 내재적 선(intrinsic goods)의 참여에 우리를 적합하게 하는 지적 능력 혹은 의지(intellect or will)의 획득된 특질(acquired trait)이다. …우리는 덕과 악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덕은 우리가 내재적 선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특질이며, 악덕은 내재적 선의 참여를 방해하는 특질이다. (Duncan, 1995: 78)

덕은 인간의 획득된 특질로서 흔히 악덕과 비교된다. 악덕은 어떠한 활동이 담지하고 있는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덕은 활동의 고유한 선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덕 이론의 관점에서 의료계에서 요구되는 덕을 지니고 있는 의사는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선, 즉 수술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환자에게 하고, 이와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하며,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자신의 의술을 펼칠 것이다. 그렇지만 덕을 함양하고 있지 못한, 즉 자신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의사에게서는 좋은 의사가 보이는 면모를 보기 힘들 것이며, 흔히 환자를 돈과 등가물로 생각하는 의사의 경우를 상기해보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덕 이론에서의 덕은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을 한다. 덕 이론에서의 도덕적 행위는 우리가 상황에 맞닿았을 때 올바른 감정을 느끼고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덕의 함양과 배양에 관계한다. 덕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하는 지를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덕은 구체적인 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활동에서 추구되는 내재적 선의 달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길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서 공동체는 바람직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도덕적 지식체계로서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의무론과 목적론이 추구하는 바와 덕 이론이 추구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의무론과 목적론의 두 가지 윤리학적 기반은 행위의 규범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반해, 덕

이론은 덕을 강조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과 그러한 구성원에 의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루어진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덕은 시대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였지만, 감정과 행동에서 올바른 도덕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격적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다. 다시 말해, 덕 이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성향을 제시함으로써 당위나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도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2. Aristotle의 덕 이론과 선의 실현

### 1) 덕의 개념

고대 철학은 Aristotle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7세기 이후 성장한 근대 철학도 그의 학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장하였다는데 비추어 볼 때, Aristotle은 철학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러셀, 2011). 그의 저작은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논리학, 자연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Nicomachean Ethics』<sup>31)</sup>는 윤리학의 대표적 저서이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 어떻게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고 있으며, 선의 성취와 덕(arete)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윤리학적 사상은 현대 덕 이론의 부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Aristotle에 있어 모든 사물은 일정한 목적(telos)을 지니며, 그 목적을 향해 사물은 움직인다. 즉, 그의 윤리학적 견해는 목적론적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견해는 당시 교양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어떻게 좋은 삶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올바른 그리스 시민

---

31) 영어 판 Aristotle (1999). *Nicomachean Ethics*(2nd ed.), (T. Irwin, Trans).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mpany를 주로 참고하였다.

을 양성해내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애링턴, 2005). 그에게 있어 올바른 시민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탁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즉 arete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sup>32)</sup> Arete는 일반적으로 덕(virtue) 혹은 탁월성(excellence)이라고 풀이되는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덕이 도덕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 반해, 고대 그리스 시대의 arete는 탁월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덕적 성격과 기능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강상진, 2007; 애링턴, 2005; Reid, 2002; Aristotle, 1999; MacIntyre, 1984). Aristotle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글에서 arete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모든 탁월성(arete: virtue or excellence)<sup>33)</sup>은 그것의 소유자들에게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그것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의 탁월성은 눈과 그것의 기능을 뛰어나게 (excellent)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눈의 탁월성)이 우리를 잘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말의 탁월성은 말을 뛰어나게 (excellent) 만들며, 질주하는데 있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있어서, 그리고 적과 맞섬에 흔들림 없이 서있는데 있어서 좋게(good) 만든다. 모든 경우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탁월성은 인간을 좋게(good) 만들고 인간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품성)상태일 것이다. (Aristotle, 1999: II. 6. § 2, 3)

펜의 arete란 펜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것, 즉 잘 써지는 것이며, 육상선수의 arete는 육상선수로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기능을 잘 하는 것, 즉 잘 달

32)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이란—정치체도의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일반적으로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남성을 일컫는다. Aristotle의 윤리적 견해는 남성의 우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노예제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그의 목적론적 관점은 현대의 윤리적 취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러셀, 2011).

33) Aristotle (1999). 『Nicomachean Ethics(2nd ed.)』 (T. Irwin, Trans)에서는 arete를 virtue로 번역하였고, Aristotle(1996). 『Nicomachean Ethics(H. Rackham & S. Watt, Trans)』에서는 excellence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는 문맥 상 arete를 excellence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탁월성이라고 번역하였다.

리는 것이다. 목적에 맞는 기능을 잘 한다는 의미에서 arete는 탁월성(excellence)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의미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탁월하게 잘 한다는 것, 즉 덕스러운 존재로 공동체 속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의 arete는 덕(virtue)을 의미한다.

Aristotle에게 있어 덕이란 양극단(extremes)의 중간적인 상태(an intermediate state), 즉 중용(a mean)을 말한다. 이는 어느 위치에 있어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의 중간을 뜻하는 것으로, 감정과 행위에 있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의 상태를 유지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덕을 정의하고 있다.

덕은 중간에 존재하면서 이성에 의해서 정의되는, 즉 분별 있는 사람은 중용을 정의할 수 있는, 상대적인 중간을 결정하는 어떠한 상태이다. 덕은 과함과 부족함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한 악덕은 부족함에 의해서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게 하고, 다른 것은 너무 과해서 옳은 것을 놓치게 한다. 그러나 덕은 무엇이 중간 상태인지를 찾고 선택하게 한다. (Aristotle, 1999: II. 7. § 15, 16)

덕의 역할은 중용을 찾아 도덕적 행위를 촉발시키며, 이성은 덕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에게서 덕은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중간 상태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도덕철학은 상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행위에 의해 덕이 드러난다면, 이는 ‘그 행위가 덕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자체로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유사한 감정과 행위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그의 윤리학적 관점은 객관적인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애링턴, 2005).

Aristotle은 두 가지 종류의 덕이 있다고 설명한다. 두 가지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인데, 지적인 덕(사고의 덕)은 교육에 의해 획득되며 지혜, 이해력, 지성이 있고, 도덕적인 덕(본성의 덕)<sup>34</sup>은 습관에 의해 획득되며 관용, 인내,

용기, 관대, 정의 등이 있다(러셀, 2011; 애링턴, 2003; Alessandro & Power, 2005; Aristotle, 1999). 그는 『Nicomachean Ethics』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도덕 구현을 다루고자 하였으므로, 주로 도덕적인 덕을 언급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덕의 예시를 통해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절제와 용기 그리고 다른 덕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뒷걸음치며 두려워하고 자신의 설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비겁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람은 무모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갖 쾌락을 탐닉하고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방탕하게 되며, 모든 쾌락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일종의 의식불명/무감각(insensible)하게 된다. 따라서 절제와 용기는 과도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파괴되며 중용에 의해서 유지된다. (Aristotle, 1999: II. 2. § 7)

위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도덕적인 덕은 감정이나 욕구와 관계된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깊다. 감정이나 욕구에 의해 발현되는 행위는 이성의 작용으로 도덕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작용은 이성(지적인 덕)과 관계를 맺게 되어 인간의 느낌이나 행위에 있어 중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덕은 단순한 느낌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덕(도덕적인 덕)은 이성(지적인 덕)의 작용에 의해서 중용을 찾게 되고, 적절한 감정과 행위를 나타내게 한다.

---

34) ‘virtue of thought’는 지적인 덕 혹은 사고의 덕으로 해석되고, ‘virtue of character’는 도덕적인 덕, 본성의 덕, 인격의 덕으로 해석된다. Aristotle(1999)은 도덕적 덕은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으나 본성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virtue of character를 본성의 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애링턴(2003)은 virtue of character가 감정이나 정서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본성의 덕으로 풀이하고 있다.



## 2) 덕의 역할과 선의 실현

Aristotle은 왜 그의 도덕철학의 중심에 덕을 위치시키는 것일까? 그는 인간의 삶의 과정이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덕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Nicomachean Ethics』의 첫 구절에서 그는 “모든 기술과 탐구는 모든 행위와 결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듯하다. 이것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선을 기술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이다(Aristotle, 1999: I. 1. § 1).” 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선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와 활동의 목적임을 의미하고 있다(애링턴, 2003). 그러므로 다양한 행위와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선의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선들은 궁극적인 선, 즉 궁극적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Aristotle에게서 그것은 최고선(the highest, best or ultimate good)이다. 그가 생각한 최고의 선은 그리스어 eudaimonia이며, 이는 흔히 행복(happiness)으로 번역된다.<sup>35)</sup> 그는 최고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행위에 있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성취될 수 있는(achievable) 선은 바로 목적(end)일 것이다. (중략) 많은 목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많은 목적 중 일부를 다른 무엇(something else)으로 인해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최고선은 완전한(complete) 어떤 것이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항상 선택의 가치가 있는 목적은 무조건적으로(without qualification) 완전하다. 여기서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조건적으로 완전하다. 우리는 항상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해 행복을 택하기 때문이다. (중략) 행복은 완전하고(complete) 자기충족적인(self-sufficient) 그 무엇이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들

---

35) eudaimonia는 행복(happiness), 번영(flourishing) 혹은 웰빙(well-being)으로 번역되기도 하며(유재봉, 2002; Baggini & Fosl, 2007; Hursthouse, 2007), 애링턴(2003)의 경우 eudaimonia가 행복 혹은 상황에 따라 성공(success)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Aristotle, 1999: 1. 7. § 1, 3, 4, 5, 8)

위의 인용문에서 밝힌 것처럼, 최고선은 세 가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애링턴, 2005). 첫째, 인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목적이다. 둘째, 그것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완전하여야 한다. 셋째, 다른 선의 목적으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거나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최고선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에게서 최고선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행복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선들의 목적을 소급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행복이라는 선은 최상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선이 행복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른 선들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하였다.

행복은 최고선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모든 선의 목적으로 작용을 한다. Aristotle은 행복이란 인간의 삶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선들의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에게서 행복한 삶을 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을 실천하는 삶은 지복(至福)에 이르러 덕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애링턴, 2005; Kang, 2009).

Aristotle은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여야 하며, 그러한 삶은 덕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덕은 어떻게 함양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는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나누고 있으며,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지혜나 지성을 쌓는 것이요, 도덕적인 덕은 습관에 의해 인간의 품성을 기르는 것이다. 도덕적인 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며, 본성에 의해 그리고 본성에 대항해서도 일어나지 않으나, 본성에 의해 덕을 획득할 수 있고, 습관을 통해 완전해진다(Aristotle, 1999). 그는 하나의 행위는 일련의 행위(a series of actions)의 결과라고 말할 만큼 습관에 의해 길러진 인격적 특성이 행위 하나하나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습관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며,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러셀, 2011). Aristotle(1999)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수치심과 순응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의 습득에 의해 도덕성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고 단계인 덕의 함양을 통해 도덕 발달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덕적 덕은 습관의 형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와 선을 익히고, 덕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과 행위의 반복은 습관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학생을 가정해 보자.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활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것이고, 이는 배려나 정의와 같은 도덕적 덕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감정과 행위의 반복은 습관으로 이르게 해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것은 인성의 발달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러셀, 2011; Kupperman, 2005).

Aristotle(1999)의 윤리학적 관점은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윤리학에서의 덕은 도덕 판단의 근거로 작용을 하며, 이것은 중용이라는 상태를 의미한다. 덕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은 선을 구할 것이요, 이는 선들의 목적인 최고선에 이르게 할 것이다. 최고선에 이른다는 것은 좋은 삶의 목적인 행복에 이름을 의미하며, 이는 덕스러운 삶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좋은 삶에 있어 덕의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덕적 덕은 행위의 반복, 즉 습관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습관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체에서 구현되는 가치 있는 활동의 참여를 통해 선을 획득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나 행위에서의 적절한 상태를 찾을 수 있는 덕의 함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최고선인 행복에 이르는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든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후대의 덕 이론에 많은 영

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인성과 덕에 관한 설명에 있어 그의 윤리학적 견해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3. MacIntyre의 덕 이론과 실천의 내재적 선

#### 1) MacIntyre의 덕 이론의 성격

덕 이론은 종래 윤리학을 지배하고 있던 의무론의 엄숙주의와 목적론의 결과주의가 도덕 판단의 근거로 상정한 행위로부터 벗어나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덕을 상정하고 최고의 선인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윤리학적 시도이다. 즉, 덕 이론의 입장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는 설명하는 행위중심의 도덕 규범을 강조하던 도덕철학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도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Kupperman, 2005). Aristotle의 윤리학적 견해의 부활을 알리게 된 Anscombe(1958)이 밝히고 있듯이, 덕 이론은 기존의 윤리학적 견해에서 벗어나 덕이 도덕 판단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MacIntyre(1984)는 『After Virtue』를 통해 본격적으로 덕 이론을 전개하였다. 『After Virtue』는 총 19장<sup>36)</sup>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반부는 메타윤리학에 근거를 둔 정의주의(emotivism)에 대한 반박과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도덕성 정당화 실패 등을 논의하고, 후반부는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덕의 역사를 고찰함과 함께 덕의 본성과 역할을 실천(a practice),<sup>37)</sup> 인간 삶의 통일성(the unity of a human life), 그리고 전통

36) 본 연구에서 인용되는 MacIntyre의 『After Virtue』는 1984년에 발간된 제2판으로,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은 2판에 대한 후기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중심 내용은 1장부터 18장까지 논의되고 있다.

37) 실천은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간의 활동 양식으로 이해되며, 그것의 내재적 선은 실천의 목적이 되어 실천의 근간을 유지하게 하므로 실천을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필

(tradition)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으며, 실천의 근거로서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MacIntyre는 현대에 나타난 도덕적 문제의 근원이 18세기 후반 일어난 계몽주의적 기획(the Enlightenment Project)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설명한다. 칸트의 도덕적 엄숙주의에서 보이는 규칙과 의무의 강조, 흄의 도덕적 자연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 등 인간의 정서에 기반을 둔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이 자유주의 시대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도덕적 위기는 도덕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위에 의한 도덕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인격적 특성인 덕으로의 귀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덕의 부활을 통해서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학이 실천적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MacIntyre의 덕 이론에서는 덕을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근본적 기제로 상정하고 있다. 공동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의 양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는 이를 실천(a practice)이라고 부른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실천의 참여를 통해 삶을 구현하고 있으며, 실천은 내재적 선의 성취를 통해 유지되므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은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와 관계하며, 이는 덕의 소유와 배양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실천은 역사적 흐름과 관계할 때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내재적 선과 그것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덕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에 있어 전제조건인 덕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덕의 세 가지 단계(stage)를 설정하고 있다. 세 단계는 실천, 인간(개인) 삶의 통일성, 그리고 전통의 단계이며, 덕은 세 가지 단계에서 그것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담당한다. 덕은 실천의 내재적 선(internal goods)을 달성하는데 있

---

수적 개념이다(이원봉, 2007; McNamee, 2008; Miller, 1994).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본 장 후반부 참조.

어, 한 개인의 삶과 관계하여 역사적이고 서사적 자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리고 실천과 개인이 담지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인 전통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홍은숙, 2009; MacIntyre, 1984).

덕의 소유와 배양을 통해 실천은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은 서사적 통일성을 유지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올바른 자아로 성장할 수 있고, 실천과 개인에게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 덕에 대한 그의 견해는 덕을 공동체 유지와 존립에 있어 올바르게 기능하는 역할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좋은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 삶의 서사적 통일성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하며, 덕은 이를 실현시켜 준다. 덕을 통해 인간 삶의 역사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의 정당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 덕을 통해 서사적 자아의 통일성을 부여받은 개인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실천에 입문함으로써 덕을 배양하고, 실천이 담지하고 있는 내재적 선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은 공동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의 역사적 맥락, 즉 전통에 참여하게 되며, 이것은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 올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개인은 전통의 담지자이다(김홍식, 2007; MacIntyre, 1984). 개인은 자신의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되고,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실천의 참여자로서 이해된다. 이때 개인의 삶은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홍은숙, 2009). 개인의 측면에서는 덕을 통해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자기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으며, 실천의 측면에서는 덕을 소유하고 배양한 개인에 의해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실천 참여를 통해서 그 내재적 선을 성취하게 한다. 이것은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서 위치시킨다.

MacIntyre(1984)에 있어 전통은 일련의 실천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전통은 각각의 실천이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받은 결과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올 때 성립

된다. 실천은 전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양식이며, 개인은 실천에 참여하여 전통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주체이다. 즉, 실천은 공동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개인이 전통을 학습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천은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내재적 선에 의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재적 선이란 실천의 고유한 선이며 본질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천은 건축, 농업, 의학, 교육, 학문(연구), 스포츠 등 다양하며, 이러한 연유에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응용윤리학 분야에서 다각도로 검증되고 있다.

MacIntyre의 덕 이론은 Aristotle의 목적론적 견해를 지향하고 있으며, 덕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실천과 내재적 선의 개념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실천은 지향하는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은 내재적 선이며 그것이 잘 기능함으로써 공동체의 좋음에 기여한다. 즉, 그의 덕 이론은 전체적으로 내재적 선의 성취와 관계 맺고 있다(McNameee, 2008). 실천은 내재적 선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고, 개인은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삶을 구현해나가며, 실천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전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선의 성취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외재적 선의 성취를 일삼는 제도(institutions)의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힘에 대항하여 내재적 선의 성취를 추구하는 실천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 덕은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천, 개인의 삶, 그리고 전통과 관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전제로서 기능한다.

## 2) 덕의 개념과 역할

Aristotle에 있어 도덕의 판단근거로서 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그의 윤리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MacIntyre에게서도 덕이란 도덕 판단의 근거로서 주

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덕은 여타의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에 의해서 획득되는 성질이다. 인간은 덕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덕을 소유하거나 배양할 수 있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의해 획득되는 인성적 특질인 덕은 인간의 실천, 인간 삶의 통일성, 그리고 전통의 유지와 발전에 관계하고 있다. 덕은 이와 같은 세 단계에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는 먼저 실천과 관련하여 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덕은 습득된 인간의 성질(an acquired human quality)이며, 덕의 소유와 배양(possession and exercise)은 실천 내에 존재하는 선들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고, 덕의 부족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의 성취를 방해한다.  
(MacIntyre, 1984: 191)

실천과 내재적 선 그리고 덕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천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선, 즉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 덕은 실천의 근본적 목적인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면서, 덕은 다시 실천을 통해 배양될 수 있다.<sup>38)</sup> 덕의 부족은 외재적 선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강한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내재적 선의 실현을 방해하게 되어 실천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외재적 선을 성취하려는 성향이 강한 제도에서 활동하는 덕이 부족한 학자, 의사, 운동선수를 상정해보자. 연구비에 눈이 어두운 학자는 연구비를 지원한 음료회사의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추고 긍정적 효과를 부풀릴 수도 있고, 환자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의사는 불필요한 수술과 약물치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만 뛰는 운동선수는 자신의 성취를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 쉬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속해 있는 실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실천의 근간을 흐리게 한다. 하지만 반대로 학자로서, 의사로서, 운동

38) MacIntyre(1984)는 실천(practices)을 통해서만 단지 덕의 작용과 배양이 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선수로서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위와는 다른 접근을 통하여 자신의 실천에 임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역사성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게 된다. 그리고 개인은 덕을 바탕으로 좋은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덕은 두 번째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덕은 실천을 유지하고 실천의 내재적 선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성향(dispositions)로 이해되며, 당면하게 되는 고통, 위험, 유혹, 고민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좋은 것에 대한 탐구에 있어 우리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덕은 우리에게 자기이해(self-knowledge)와 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성향으로 이해된다. (MacIntyre, 1984: 219)

덕의 유무는 실천의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덕의 소유는 실천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을 실현시키는데 바탕이 되며, 덕의 상실은 실천의 존재 이유를 희미하게 만든다. 그리고 덕은 실천뿐만 아니라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hood)와 관계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덕은 개인의 삶에 있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만들고, 좋은 것과 자신에 대한 인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해에 깊이를 더한다. 이러한 덕의 역할은 개인에게 삶의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란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좋은 삶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선에 대한 이해는 좋은 삶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최소 구성단위인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구현하는 실천에 있어 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덕은 개인에 의해 획득되고,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를 이끌며, 인간 삶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개인에게 풍부한 자기 이해와 더불어 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개인과 실천은 역사성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덕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덕은 개인과 실천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전통을 유지하게 하며, 관련 덕의 배양은 전통을 강화시키고 덕의 부족은 전통을 약화시키게 된다. 덕은 마지막 단계인 전통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실천들의 다양한 내재적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형식—개인은 그 형식 속에서 전 생애의 선을 추구(발견)할 수도 있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천과 개인의 삶 모두에 그들 자신의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덕은 그 의미와 목적(point and purpose)을 찾는다. (MacIntyre, 1984: 223)

앞에서 밝힌 것처럼 덕은 실천을 유지하고 실천의 내재적 선을 추구하는데 있어 기본 전제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덕은 개인에게 자기 이해와 선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만들어 서사적 자아로서 삶의 통일성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더해, 덕은 개인과 실천에게 역사적 맥락을 제공해 주는 전통을 유지하게 한다. 전통은 역사적 산물이며, 긴 시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의 정립된 전통은 그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며, 전통을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은 개인과 실천은 사회적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덕의 함양과 배양을 통해서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cIntyre는 덕이 실천, 인간 삶의 통일성,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 실천은 서사적 자아와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실천은 공동체의 개인들 혹은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그 형식과 내용이 구성되며, 개인들의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실천은 그 근본 목적을 의미하는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으며, 덕의 함양을 전제로 개인들은 그러한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천은 공동체의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전통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실천에로의 참여를 통해 선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개인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덕을 함양할 수도 있다. 실천은 개인으로부터 이해되어진 선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장이 되며, 전통은 실천의 지속으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생성되고 가치 부여된 결과로서 기능하게 된다.

### 3) 실천과 내재적 선의 개념

MacIntyre의 덕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천과 내재적 선 그리고 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천은 자신의 근본 목적인 내재적 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재적 선의 성취는 덕의 함양과 배양을 통해 가능하게 되므로, 덕은 실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조건이다.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고 실천의 내재적 선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MacIntyre에 있어 실천과 내재적 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선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참여에 의해 실현되고 전통에 의해 그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게 되는 실천이란 무엇일까? 실천이란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즉 자신의 역사를 지니며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 양식을 일컫는다. MacIntyre(1984: 187)는 실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socially established cooperative human activity)의 일관되고 복잡한(coherent and complex) 형식이다. 해당 활동의 형식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선은 그 활동의 형식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완벽한 탁월성의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능력(human power)과 그 활동이 품고 있는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human conceptions)가 조직적으로 확장되어진 결과로 인해 실현된다.

위의 정의에서와 같이 실천은 사회적 신뢰를 획득한 상호협조적인 인간의 활동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즉 단순하게 발현되는 행동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관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활동 양식이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실천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건반을 치는 행위 또한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실천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악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 있음이 인정되는, 역사적으로 일관되고 복잡한 인간 활동의 형식이다. 그리고 음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선은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음악의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여 성취될 수 있다. 스포츠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sup>39)</sup>

실천이 일관되고 복잡한 규범적 형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하나의 실천이 다른 실천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실천은 자신의 행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탁월성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음악, 미술, 스포츠가 다른 활동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실천이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격에 의해서 가능하다.

실천(a practice)은 선들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탁월성의 기준들과 규칙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실천에 입문하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기준들에 의해 판단된 자신의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불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MacIntyre, 1984: 190)

---

39) MacIntyre(1984: 187-188)는 실천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3목두기(tic-tac-toe)와 풋볼 던지기는 실천의 예가 아니다. 하지만 체스와 풋볼 게임은 실천이다. 벽돌을 쌓는 것은 실천이 아니지만 건축은 실천이며, 순무를 심는 것은 실천이 아니지만 농업은 실천이다. 실천의 범위는 다양하고 넓으며, 그것은 예술, 과학, 게임, 정치, 가족 삶의 생성과 유지 등 실천의 개념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실천은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선의 실현으로 인해,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되고 가치 부여된 활동이다. 이와 더불어 실천에로의 참여는 실천이 제시하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에 대한 이해와 규칙에 대한 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와 준수를 통해 실천의 내재적 선이 달성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실천이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천의 참여자는 그것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전제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통해서 내재적 선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예를 들어, 음악이라는 실천이 지니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을 인식하지 않고는 해당 실천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음악에 입문한다는 것은 참여자가 음악의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을 이해하여, 그 속에서 행위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내재적 선의 추구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탁월성의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제반 규칙에 대한 수용이 선행되어야만 스포츠에로의 참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내재적 선이 성취될 가능성은 없다.

전통은 일련의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천은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통으로 이해된 각 실천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MacIntyre, 1984). 음악은 음악의 역사, 미술은 미술의 역사, 건축은 건축의 역사, 스포츠는 스포츠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실천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역사는 실천의 형식과 내용이 유지되어온 시간의 흐름이요, 전통은 이것의 퇴적이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결과이다. 전통은 각 실천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고, 실천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실천과 다른 실천을 시간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구별 짓는 근거로서 작용한다.<sup>40)</sup>

각 실천이 시간적 맥락 속에서 각기 다른 전통을 유지한 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준과 규칙을 수용하면서 그 내용을 퇴적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은 실천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바이자 실천이 지향하는 행위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이에 대한 수용

40) 그러나 실천이 현재와 미래에도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 새로운 전통을 생성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천을 구분 짓는 준거로서 전통은 다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이원봉, 2007).

은 내재적 선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이때 탁월성의 기준이 대상하는 바는 내재적 선에 의해 규정되어, 실천의 내재적 선은 무엇에 대한 탁월성의 기준 인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음악적 탁월성의 기준은 음악이 추구하는 선, 즉 음악을 잘 연주하는 것에 대한 탁월성의 기준이다. 스포츠의 경우, 탁월성의 기준이란 경기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탁월성의 기준이다. 체스가 지닌 탁월성의 기준이란 체스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탁월성의 기준이다. 즉, 실천의 내재적 선이란 그 활동이 추구하는 바인 목적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선은 탁월성의 기준이 되는 근거로서 그리고 탁월성의 대상으로서의 파악될 수 있다.<sup>41)</sup> 그러므로 실천은 내재적 선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명확히 하게 되고 여타의 실천과 자신을 구분 짓게 된다.

MacIntyre에 있어 선은 내재적 선(internal goods)과 외재적 선(external goods)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선은 내재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천과 특별히 관계하여 그 실천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고유한 선이며 실천의 근본 목적이요, 외재적 선이란 실천과 특별하게 관계없는, 즉 굳이 해당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도 추구될 수 있는 선을 의미한다(이원봉, 2007; 홍은숙, 2009; Kallenberg, 2003; MacIntyre, 1984). 그는 체스에 입문하는 어린이에 대한 예를 통해 두 가지 선에 대한 차이를 밝히고 있다.

체스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두 가지 선이 있다. 하나는 외재적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체스하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사회적 환경의 우연에 의해 다른 실천들에 부착된 선—어린이에게는 캔디, 어른들에게는 위신, 지위, 부(富)—이다. 그러한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고 그것의 성취는 단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면에 체스하기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41) 유재봉(2002)는 탁월성의 기준은 내재적 선과 관련된 것으로 실천의 내재적 선을 성취한다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을 해석해보면 내재적 선에 탁월성의 기준이 존재하며, 내재적 선은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는 바를 의미하므로, 내재적 선의 성취는 탁월성의 기준을 충족하여 탁월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낸다.

혹은 특별한 종류의 다른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질 수 없는, 체스라는 실천에 내재하는 선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내재적’ 이라고 부른다. 첫째, 우리는 단지 체스 혹은 특별한 종류의 다른 게임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게임의 예시에 의해 그것(선)을 단지 구체적으로 명시할(specify)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내재적 선은 해당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식될(identified and recognized) 수 있기 때문이다. (MacIntyre, 1984: 188-189)

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MacIntyre는 선이 실천에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실천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을 내재적 선이라고 하고, 해당 실천과 특별히 관계하지 않고도 성취될 수 있는 선을 외재적 선이라고 한다. 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선이냐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는 선이냐는 것이다. 내재적 선은 실천을 통해서만 추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천의 고유한 선이다. 반면 외재적 선은 해당 실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해당 실천에 근거하지 않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 선이라는 것은 실천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한 선이며, 외재적 선은 실천의 우유적 속성에 기초하고 있는 선이다. 여기에 덧붙여, 어떠한 선을 내재적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실천을 통해서만 그러한 선이 성취가능하며, 실천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러한 선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실천으로부터 성취될 수 있는 선이냐 혹은 그것과 관계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취될 수 있는 선이냐에 따라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은 구분된다. 그리고 그러한 선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적 차이를 드러냄으로 인해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으로 구별된다.

우리는 지금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의 중요한 차이를 알아차릴 단계가 되었다. 그것이 성취될 때 그것은 항상 어떤 다른 개인의 재산과 소유

라는 것은 외재적 선이라고 불리는 것의 특성이다. 더군다나 특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더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은 그것을 덜 소유한다는 것이다. 가끔씩 필연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같이, 가끔씩 우연한 환경(contingent circumstance)에 의해서 부(富)와 같이 이것은 사실로서 증명된다. 외재적 선은 특징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경쟁의 대상(objects of competition)이다. 내재적 선은 확실히 뛰어나기(to excel) 위한 경쟁의 결과이나, 내재적 선의 특성은 그것의 성취가 실천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에 선/좋은(a good)이라는 것이다. (MacIntyre, 1984: 190-191)

권력, 지위, 명예, 부(富)와 같은 외재적 선은 한 개인의 소유물로서 어느 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덜 가져야만 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특성과 유사하다. 승자에게는 패자가 존재하듯 권력자에게는 비권력자가 존재하고 부자에게는 빈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MacIntyre(1984)가 주장하듯 외재적 선 자체가 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천과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 종류를 달리하는 제도에 의한 외재적 선에 대한 성취는 실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재적 선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실천은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바인 내재적 선의 성취를 통해 유지 가능하다. 내재적 선은 실천이 제시하는 탁월성의 대상이며,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선으로, 실천의 목적 그 자체이면서 실천에 참가하는 본래적 이유이다. 이와 같이 실천과 내재적 선의 관계는 긴밀하다. 실천은 내재적 선을 지니면서 내재적 선에 의해 그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양자는 순환되는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내재적 선의 성취는 실천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지탱하여 준다는 점에서, 실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현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실천에로의 참여를 통한 내재적 선의 추구는 공동



체에 좋음으로 작용한다. 공동체가 굳건히 지탱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내재적 선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덕의 역할이 요구된다.

실천과 내재적 선뿐만 아니라 덕과 내재적 선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재적 선의 실현을 위해서 덕이 요구되지만, 덕과 내재적 선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한 선(the good for men)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완전한 인간 삶을 의미하고, 덕은 그러한 삶에 필수적이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많은 수단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덕은 많은 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선의 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덕과 선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덕의 배양은 선이라는 목적에 적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선이라고 여기는 것, 즉 완전한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덕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간을 위한 선을 특징지을 수 없다(MacIntyre, 1984).

#### 4. 소결론

본 장에서는 덕 이론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관련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 덕 이론의 근원적 배경이 되는 Aristotle의 덕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실천, 인간 삶의 통일성, 전통과 관련을 맺고 있는 덕의 역할과 실천의 내재적 선에 관한 개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MacIntyre의 덕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덕 이론은 종래의 지배적 윤리관이던 의무론과 목적론과는 거리를 두고, 도덕 판단의 근거로서 덕을 상정하여 인간의 됨됨이, 즉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덕은 인성적 성질(a quality of character)로 규정되는 인간의 특질(trait)로서, 인간은 덕을 배양하고 소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덕을 배양한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느끼고 판단하며 행할 수 있게 된다. 현대 덕 이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MacIntyre의 윤리학적

견해는 목적론에 기반을 두면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목적으로 덕을 상정하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덕은 실천, 개인의 삶, 전통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실천이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이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전통이 일련의 실천이 지니는 역사적 맥락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선의 실현과 관계하고 있다.

실천은 탁월성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탁월성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에 의해 실현된다. 탁월성과 탁월성의 기준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실천의 내재적 선이다. 실천과 내재적 선은 순환 구조 속에서 상호 자신의 역할을 찾게 만든다. 그것은 내재적 선이 실천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줄뿐만 아니라 실천은 내재적 선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내재적 선은 외재적 선과 구별되는 것으로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고, 실천을 통해서만 명시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실천이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에게 삶에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부여된 전통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이 지닌 본연을 유지하게 하는 내재적 선의 추구는 공동체에 좋음으로 인식된다. 외재적 선의 추구에 맞서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덕의 함양과 배양이 필요하게 되며, 이때 덕은 선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인간 선(the good for man)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MacIntyre의 견해를 통해 스포츠를 이해한다면, 덕의 함양과 배양을 통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성취는 스포츠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고 스포츠와 스포츠 공동체에 좋음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 IV.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

실천은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발현되어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천의 개념에 비추어 스포츠를 바라봤을 때, 스포츠는 내재적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반영된 활동이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여 스포츠의 근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나아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실현은 공동체의 좋음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의 존립 근거를 나타내고, 스포츠가 지니는 규범적 성격과 의미를 제시하며, 공동체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의 성격을 제시한 다음, 그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밝혀보고자 한다.

### 1. 실천으로서 스포츠

#### 1) 실천의 조건

MacIntyre(1984)에 있어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인간의 활동으로,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실천 자신이 지향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의 참여는 그것이 요구하는 기준과 규칙을 수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천의 참여는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의 추구는 실천을 유지시켜 공동체 전체의 선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

서는 덕의 소유와 배양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덕은 실천의 내재적 선의 추구를 가능하게 해주며, 덕의 결핍은 그러한 선의 추구를 방해한다. 그가 제시한 실천에 대한 개념은 활동의 근간과 도덕적 인간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규명해준다는데 있어 의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철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진 MacIntyre의 덕 이론에 관한 논의는 그가 제시한 실천의 개념에 근거하여 스포츠를 실천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이는 스포츠를 실천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거나 전통의 입장에서 스포츠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스포츠라는 실천의 본질적 목적인 내재적 선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는 상대적으로 허약한 편이다. 실천의 근간은 내재적 선이며, 내재적 선은 실천의 목적이다(이원봉, 2007; Kallenberg, 2003). 그러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규명을 통해 스포츠라는 실천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포츠(학)계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소홀히 간주한 채 그것이 지니는 외재적 선에 대한 추구를 일삼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스포츠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와 스포츠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스포츠라는 실천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치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것의 선결 조건으로 스포츠가 과연 실천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MacIntyre에 있어 내재적 선은 실천의 내재적 선으로 어떠한 인간 활동이 실천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으로 실천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의 내재적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MacIntyre의 실천의 개념에 입각하여 스포츠를 해석하는 것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작업이다. 왜냐하면 실천은 내재적 선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실천이라면 스포츠는 내재적 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

스포츠는 자신의 근본 목적을 찾게 된다. 제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MacIntyre(1984)는 실천의 예시로 풋볼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풋볼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스포츠는 그가 말하는 실천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리는 다소 빈약하므로, 그가 제시한 두 가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서 실천의 성립 조건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socially established cooperative human activity)의 일관되고 복잡한(coherent and complex) 형식이다. 해당 활동의 형식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선은 그 활동의 형식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완벽한 탁월성의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능력(human power)과 그 활동이 품고 있는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human conceptions)가 조직적으로 확장되어진 결과로 인해 실현된다. (MacIntyre, 1984: 187)

실천(a practice)은 선들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탁월성의 기준들과 규칙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실천에 입문하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기준들에 의해 판단된 자신의 성과(performance)에 대한 불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MacIntyre, 1984: 190)

위의 두 가지 실천의 개념과 MacIntyre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의 예시에 기초하여 Miller(1994)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sup>42)</sup> 하나는 내재적 선이고 다른 하나는 탁월성의 기준이다. 그는 MacIntyre의 견해에 따라 내재적 선을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외재적 선은 그것과 관계없이도 획득될 수 있는 물질적 보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선(the goods of excellence)을, 외재적 선은 효용성의 선(the goods of

---

42) Miller(1994: 247)는 MacIntyre가 제시한 실천의 예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게임(체스와 풋볼), 생산적 활동(농업과 건축), 지적 활동(과학과 역사), 예술적 추구(미술(painting)과 음악) 그리고 정치(정치적 공동체 창조하기).

effectiveness)을 특징적으로 의미한다(Miller, 1994). 내재적 선은 탁월성과 깊은 관련을 지닌 것으로, 삼목두기(tic-tac-toe), 풋볼 던지기, 벽돌쌓기, 순무심기와 같은 단순 행위는 역사적으로 발달된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내재적 선을 결여하고 있다(Miller, 1994). 그는 실천의 특징을 MacIntyre의 실천의 핵심인 내재적 선과 그 내재적 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천의 성립 조건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유재봉(2002)은 실천의 준거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 가지 준거는 1)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 2) 내재적 가치의 성취, 3) 탁월성의 기준, 4) 규칙에 대한 복종, 5) 실천 그 자체의 발달이다.<sup>43)</sup> 그리고 홍은숙(2009)은 실천의 특징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여 유재봉(2002)의 논의보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덟 가지 특징은 1) 사회적으로 확립된 인간 활동, 2)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3) 탁월성의 기준, 4) 실천의 내재적 가치, 5) 덕, 6) 규칙에 대한 복종, 7) 역사적 전통의 발전, 8) 구성원의 성장이다. 이들이 제시한 실천의 조건 중 적어도 네 가지는 상호 합의점을 보이고 있다. 이 네 가지 조건은 1)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 2) 내재적 선(내적 가치), 3) 탁월성의 기준, 4) 규칙에 대한 복종이다.

첫째,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이라는 실천의 조건에 대해서 홍은숙(2009)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과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은 실천의 구조로 이해되는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유재봉(2002)의 경

---

43) MacIntyre의 a practice의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저자마다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재봉(2002)은 사회적 실제로, 홍은숙(2009)은 실천전통으로, 그리고 그들은 internal goods를 내적 가치로 번역하고 있으며, 각 문장의 번역 내용도 본 연구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는 a practice를 실천으로 internal goods를 내재적 선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저자가 용어 사용을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본 연구자가 번역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에도 첫째 조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활동’,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 ‘복잡하면서 일관성을 이루고 있는 활동’이라는 세 가지로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은 홍은숙(2009)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적어도 두 가지로 조건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력하는 인간활동’ 그리고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이다.

둘째, 실천의 내재적 선이다. 실천의 내재적 선은 실천의 목적으로서 실천의 근간을 유지한다. MacIntyre(1984)뿐만 아니라 Miller(1994), 유재봉(2002), 홍은숙(2009)과 그 외 논의에서도 내재적 선의 특징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내재적 선은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능력과 실천의 목적과 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 나타나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실천의 궁극적 목적과 선에 대한 사고가 체계적인 확장을 통해서 내재적 선은 실현된다. 그리고 내재적 선은 실천의 의미와 목적으로서 실천과 관계해서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는데 반해, 내재적 선과 대비되는 개념인 외재적 선은 실천의 궁극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없으며 실천과 우연적으로 관계한다.

셋째, 실천은 자신의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 실천은 탁월성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어 나타나며, 탁월성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형식을 규정하게 된다. 탁월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MacIntyre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으나, 탁월성의 기준을 통해서 음악과 미술 그리고 스포츠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의 형식을 지니게 된다. 즉, 탁월성의 기준은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내재적 선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 실천마다 그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천의 탁월성의 대상과 탁월성의 기준은 내재적 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내재적 선의 성취는 탁월성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Miller, 1994; 유재봉, 2002).

넷째, 실천은 규칙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스라는 실천에 입문하기 위해 탁월성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스의 규칙을 따

라야만 한다. 즉, 체스의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만 체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체스는 더 이상 체스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활동이 제시하고 있는 탁월함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체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실천이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르는 것은 실천의 입문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 외 유재봉(2002)은 ‘실천 그 자체의 발달’을 언급하였다. 그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실천의 준거이기보다 하나의 효과 정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실천 그 자체의 진보이자 실천의 실천가(practitioner)의 이해와 실천이 일어나는 상황(situation)의 발달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홍은숙(2009)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전통의 발전’, ‘구성원의 성장’과 일정부분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소 실천 그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기 보다 실천을 통해서 발생하는 특징적 효과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홍은숙(2009)이 제시한 ‘덕’이라는 것도 실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기 보다 실천의 내재적 선이 성취되기 위한 그리고 실천을 유지할 위한 전제 조건이자 실천의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덕이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획득되고 배양되는 것은 아니라고 MacIntyre(1984)는 밝히고 있다—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실천으로서 성립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 2)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3) 내재적 선, 4) 탁월성의 기준, 5) 규칙에 대한 복종.<sup>44)</sup> 아래에서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각 조건과 관련하여 스포츠가 어떻게 특징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44) 탁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실천의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조직적 확장은 실천 자체의 특징이기 보다 내재적 선의 특징과 관련되어 실천의 조건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 2) 실천의 조건에 부합하는 스포츠

### (1)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으로서 스포츠

실천의 첫 번째 조건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이다. MacIntyre의 실천 개념은 우선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유재봉, 2002; 홍은숙, 2009). 실천은 사회의 합의에 의해 가치 부여된 것이며,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실천은 사회 속에서 존속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사기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천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실천은 협력하는 인간 활동이어야 한다. 협력하는 인간 활동이란 말 그대로 개인의 행위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의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대상이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가치 부여된 인간 활동으로서 실천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스포츠는 고대 그리스의 제전경기로부터 현대의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 인간 활동의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제전경기의 그 기원과 원인을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arete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가치 정향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Swaddling, 2004; Finkelberg, 1998). 그리고 19세기 영국 근대 스포츠의 발달은 학교의 역할, 사회적 변화, 산업화와 과학화, 정부와 종교단체의 영향에 기인할 정도로 사회적 맥락과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다(하남길·옥광, 2008). 신체활동에 익숙해 있던 퍼블릭스쿨 출신의 사회 지도자들이 스포츠를 사회로 확산시킨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발생한 신흥 부르주아의 증가는 스포츠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은 대중적인 스포츠를 확산시켰으며, 정부와 종교단체도 각종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의 발달을 가져왔다(하남길·옥광, 2008).

이와 함께 근대 올림픽의 발달사는 현대 세계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현대 스포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가치 정향을 이해해야할 정도로 스포츠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 맥락과 관련을 맺고 있는 스포츠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인간 삶과 관계하여 존속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사회와 그 구성원에 의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포츠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해왔으며, 그것이 순수하게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와 교육적 수단 등으로서의 가치로 인해 사회 구성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한 개인의 활동이 아닌 공동체의 협동적인 체계의 산물로 인식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경쟁적 산물로 인식할 때 그 경쟁은 스포츠 공동체에 속하는 타자와의 관계 설정에 의해 가능하고,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행위 방식으로 표출할 때 가능하다. 만약 어떠한 행위의 방식이 공동체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는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협동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이다.

## (2)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닌 스포츠

MacIntyre(1984; 1988; 2009)는 실천의 범위를 인간의 삶과 관계된 다양한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실천의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풋볼 던지기, 벽돌 쌓기, 순무심기는 실천이 아니지만 풋볼, 건축, 농업은 실천이다. 실천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이라는 조건에 기인한다. 풋볼 던지기는 단순하고 일회적이지만 풋볼은 복잡하고 일관된 형식인 전문적 기술(a set of technical skills)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다(홍은숙, 2009; MacIntyre, 1984; McNameee, 2008).

스포츠는 일종의 전문적인 기술이 실현되는 장이다. 유재봉(2002: 148)은 “예컨대, 축구를 할 때, 선수가 상대방에게 정확히 패스하기보다는 마구잡이로 공을 찬다면 일관성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 한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복잡하고 일관된 형식의 의미를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을 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마구잡이로 공을 찬다는 행위 자체를 일관성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축구는 일련의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형식의 틀에서 구현되어진다. 즉, 스포츠에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의 형식 내에서 복잡한 인간의 활동이 기술이라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는 규칙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는 기술의 일관성과 복잡성을 유지하고 있다.

### (3) 내재적 선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MacIntyre(1984)에게 있어 실천은 내재적 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원봉, 2007; 홍은숙, 2009; Kallenberg, 2003). 실천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내재적 선은 실천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탱하며, 실천의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재적 선에 대한 이해는 실천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맥락 속에 있게 된다. 실천으로서 스포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내재적 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능력과 스포츠의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스포츠의 목적이다. 이에 근거하여 내재적 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으로 성립된 인간 활동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으로 스포츠를 바라봐야만 한다. 이러한 시각은 스포츠 경기의 결과인 승부에만 집착하는 승리지상주의(win-at-all-costs attitude)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스포츠 경기를 바라보는 견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목적 그 자체로서 내재적 선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는 스포츠 경기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내재적 선은 실천과 관계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외재적 선과 구별된다. 내재적 선은 실천의 내에 있기 때문에 실천의 참여를 통해서 이해되고 확인되는 반면 외재적 선은 특정한 실천과 관계하지 않고 있으며, 명예와 돈, 권력 등을 일컫는다. 그리고 내재적 선은 실천과 관계하지만, 외재적 선은 제도(institutions)와 관계한다.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내재적 선과 관계하고 스포츠 기구는 외재적 선과 관계한다. Arnold(1997: 17)는 실천으로서의 스포츠와 내재적 선, 스포츠 기구와 외재적 선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MacIntyre의 견해를 따르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실천(practices)을 제도(institutions)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국제테니스연맹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천은 내재적 선, 성취 기준, 수행의 보호(preservation)와 관련된 것인 반면에 제도는 동일한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특징적으로 권력, 지위, 명성, 돈과 같은 외재적 선의 관리와 분배에 깊이 관계하고 있다. 스포츠와 같은 실천이 제도처럼(institutional) 되면 그 조직과 행정은 관료화 된다. 그 임원들은 해당 실천의 홍보(promotion), 후원(sponsorship), 의식화(ritualization)와 같은 문제와 그와 관련된 수많은 특정 기능을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중략) 스포츠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 실천으로서의 스포츠가 지닌 차이점은 스포츠의 제도화는 대규모 조직과 외재적 선의 장려와 분배에 관계한다면 실천으로서의 스포츠는 내재적 선의 추구하고 고양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기구 없는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행정적·조직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포츠라는 실천이 없는 스포츠 기구는 존재 목적을 잃게 되듯이 실천과 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오현택, 2006). 하지만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 기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실천을 통해서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은 스포츠의 목적으로서 스포츠가 지향해야만 하는 방향을

설정해주게 된다. 이때, 외재적 선의 추구를 지향하는 스포츠 기구의 성향에 맞서 스포츠라는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는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의 함양과 배양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 (4) 탁월성의 기준을 지닌 스포츠

실천은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활동이 해당 실천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하는 기준이다. 탁월성의 기준은 실천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실천을 여타의 실천과 구분 짓게 만든다. 스포츠의 탁월성의 기준은 음악의 탁월성의 기준과 달라 스포츠와 음악을 상이한 실천으로 구분하게 한다. 음악의 탁월성은 악기나 목소리로 심미적인 표현을 잘 해내는 것이고, 스포츠의 탁월성은 스포츠 경기를 잘 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스포츠 경기를 잘 해냄으로써 스포츠의 탁월성에 도달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발생한다.

내재적 선을 성취한다는 것은 내재적 선이 가정하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재봉, 2002). 즉, 내재적 선과 탁월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대상을 의미한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과 의지가 발현되어 나타나게 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이 무엇에 대한 탁월성인지를 제시해야만 한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우선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잘 기능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탁월성은 인간의 신체에 의해 구현된다는 측면에서 신체적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그렇다면 신체적 탁월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낸다면 내재적 선의 규명이 가능하게 된다.

스포츠는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함과 동시에 스포츠는 도덕적 탁월성

---

45) 제II장 스포츠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는 신체적 탁월성 혹은 신체적 능력이 경쟁되는 인간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을 요구한다. 스포츠는 인간 삶과 관련된 활동으로 도덕적 영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는 신체적 탁월성이 발현되는 장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탁월성이 실현되어야 하는 장이다. MacIntyre의 실천 개념에 기초한다면, 내재적 선이 성취되기 위해서 덕의 함양과 배양이 전제되어야 하듯이, 스포츠의 탁월성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탁월성이 요구되어진다. 도덕적 탁월성은 인성적 특질인 덕의 함양을 통해서 성품, 정서, 태도에 있어 올바르게 기능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때 도달 가능하다.

#### (5) 규칙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스포츠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이며, 내재적 선과 탁월성의 기준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MacIntyre, 1984). 실천의 참여자는 탁월성에 이를 수 있는 능력과 실천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조직적으로 확장하여, 내재적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이 제시하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을 인식하고 실천의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실천의 규칙에 대한 복종은 실천의 참여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칙이 해당 실천에서의 가능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축구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필드플레이어가 공을 손으로 이동하겠다고 한다면 그가 축구라는 실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즉, 규칙은 어떠한 행위가 해당 실천에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스포츠는 일련의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활동으로, 스포츠 규칙은 세 가지—구성규칙(constitutive rules), 규제규칙(regulatory rules), 가치규칙(axiological rules)—로 나눌 수 있다.<sup>46)</sup> 구성규칙은 하나의 스포츠 종목을 규정하는 규칙으

46) 규칙을 Boxill(2003)은 구성규칙(constitutive rules)과 예의범절에 관한 규칙(rules of decency)으로, Lumpkin, Stoll & Beller(2003)는 구성규칙(constitutive rules), 금지규칙(proscriptive rules), 스포츠맨십규칙(sportsmanship rules)으로, Torres(2000)은 구성규칙

로, 그 스포츠 종목의 경계를 밝혀 특수성을 제공해준다. 규제규칙은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으로, 반칙이란 행위의 결과를 낳게 한다. 가치규칙은 구성규칙과 규제규칙과는 달리 규칙집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문율이며,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칙, 즉 도덕적 영역에 해당한다. 가치규칙은 스포츠의 행위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스포츠 참여와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적 특질이다.

“스포츠는 일련의 규칙이며 그것은 경기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Weiss, 1969: 142). 왜냐하면 스포츠에서의 규칙은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구분하여 행위의 형식을 제공해주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특수한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수단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사태를 유발하는 쪽으로 향하는 활동에 참여/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태에서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수단은 규칙이 부재할 때보다 그 범위가 더 제한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태에서 그러한 제한적 상태를 수용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Suits, 1967: 156)

규칙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칙이 제시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애물(unnecessary obstacles)을 극복하는 자발적인 노력이다”(Kretchmar, 2005; McNamee, 2008; Suits, 1978). 불필요한 장애물이란 규칙에 의해서 제한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상태를 수용하게 되면서 게임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스포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관한 이해와 복종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실천의 조건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정 부분 중복되어 있다. 위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인간의 활동으로 규칙에 의

---

(constitutive rules), 규제규칙(regulative rules), 보조규칙(auxiliary rules)으로 나눈다.

해서 한계 지어지는 기술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탁월성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이해가 발휘되어 내재적 선이 실현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의 목적으로서 내재적 선은 스포츠라는 실천 그 자체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선으로 스포츠의 참여를 통해서만 성취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예를 통해 인식될 수 있는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이다.

## 2. 실천으로서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

### 1) 신체적 탁월성: 신체성의 부활

햇살이 비치는 따스한 오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시야에 펼쳐진 한가로운 호수와 잔디밭을 바라본다. 물속에 불쑥 나온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자라 한 마리가 눈을 껌벅이다 물 속으로 슬며시 들어가 한가롭게 물질을 해댄다. 새들도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치기도 하며 연신 비행을 즐기기 위해 날아올랐다 다시 내려앉아 우아한 발놀림을 뽐낸다. 부모와 함께 잔디밭에 산책 나온 어린 아이들은 공을 주고받으며 한없이 밝은 미소를 보내고, 상큼한 색상의 운동복과 세련된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은 연신 팔과 다리를 흔들며 어디론가 뛰어다닌다. 문득 생각이 든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제 I 장 첫머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움직임이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인간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인간의 삶은 다양한 움직임의 연속이다. 인간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움직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같은 무목적적인 움직임 그리고 스포츠와 같은 복잡한 신체적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



은 곧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사후의 영생을 위한 활동은 어찌면 영원히 살아 있고 싶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하다. 현실에서의 살아있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단순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요, 그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활동은 스포츠이다.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민은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완성됨을 향해 달려갔으며, 제전경기를 통해서 인간은 신과 조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고대 그리스의 제전경기는 신에 대한 제례의식이라는 명분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의 인간이 극명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매우 경쟁적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인간은 생존 방법을 터득해야만 했고, 스포츠는 이러한 방편의 일환이었다(Finkelberg, 1998).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강건한 시민을 양성해야함과 동시에 도시국가의 구성원인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신체적 단련이 요구되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최선의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arete<sup>47)</sup>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agon)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 제전경기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호머 시대에는 시민에게 훌륭한 전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후 지속된 평화의 시기에도 강건함은 올바른 시민의 조건에 포함되었다(구효송, 2006). 도시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arete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기능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는 신체적 경쟁을 통해 arete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강렬한 태양 아래 올리브기름과 얇은 입자의 흙을 곱게 바른 채 팔레스트라(Palaestra)와 짐나지온(Gymnasion)에서 달리고 던지며 몸을 부딪쳐 일군 구릿빛 근육을 지닌 육

---

47) Arete는 탁월성이나 덕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현대어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arete는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도달하기 위한 목적이자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유재봉, 2002; 메치코프.에스테스, 2005: 70)

체는 인간의 살아있음을 강렬하고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고된 훈련을 통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경기에 이르러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rete를 발휘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중립국이었던 도시국가 엘리스(Elis)의 의해 주최된 고대 올림픽은 운동선수로서의 arete, 즉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스포츠 경기였다. 고대 올림픽의 참가는 시민에게 제한되어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Finkelberg, 1998).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회는 완전한 인격체, 즉 이상적인 전인이 지녀야 할 가치로 kalokagathia—미선성(美善性): 아름다움과 선함—을 상정하고 있었다(이경희, 2005; 최의창, 2010a; IOA, n.d.; Kang, 2009).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영혼과 신체의 조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으며, 그것은 인간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 필수적이었다. 특히, Aristotle(1999)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탁월성(arete)을 성취하는 과정에 의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탁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기능은 그 종류의 탁월한 개인의 기능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하프 연주자의 기능과 탁월한 하프 연주자의 기능은 동일하다. 만약 우리가 탁월성(arete; virtue; excellence)에 따라서 뛰어난 성취에 그 기능을 부가한다면, 이것은 모든 경우에 조건 없이 동일이다. 하프 연주자의 기능은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하프 연주자의 기능은 그것을 잘 연주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인간의 기능을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성을 포함하고 있는 영혼의 활동과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탁월한 인간의 기능은 이것을 잘 그리고 훌륭하게(well and finely) 행하는 것이다. 각 기능은 그 종류에 적합한 탁월성에 따라 완벽히 수행할 때 완전하게 되는(completed well) 것이다. (Aristotle, 1999: 1. 7. § 13, 15)

역할에 부여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맞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하여야 하며, 이는 곧 탁월성을 지향할 때 가능한 것이다. Aristotle이 말하고 있는 하프 연주자의 탁월성에 기초하여 운동선수의 탁월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고대 올림픽 선수의 기능은 탁월한 선수의 기능과 동일하며, 탁월한 선수의 기능이란 경기를 훌륭하게 잘 하는 것이고, 경기를 훌륭하게 잘하는 것은 그 경기가 지향하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기능을 잘 성취해내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탁월한 운동선수의 기능을 의미하고 있다.

운동선수의 탁월성이란 운동 경기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운동 경기는 무엇에 대한 탁월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운동선수의 탁월성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하프 연주자의 그것과 다르며, 그 차이는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목적하는 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하프 연주자는 음악이라는 실천이 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할 때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스포츠가 추구하는 바를 훌륭하게 잘 수행할 때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만약 운동선수가 하프 연주자의 탁월성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면, 운동선수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운동선수의 탁월성은 하프연주자의 탁월성과 다른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각자 참여하고 있는 실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운동선수의 탁월성은 경쟁(agon)을 통해 실현되었다. 스포츠는 고대 그리스 제전 경기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그것의 역사적 전통은 신체적 활동, 그것도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에 그려진 운동선수들의 훈련과정이나 시합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전경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격렬한 신체적 활동이었으며, 이것은 상대와의 경쟁을 통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신체적으로 드러날 때 가능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제전 경기로부터 현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기본적 요소는 스포츠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신체적 탁월성을 목적으로 삼는 경연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에 참가한 운동선수의 탁월성

은 신체적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종류의 탁월성은 음악, 미술, 건축 등 여타의 실천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의 종류와 상이한 것이며, 그 기준 또한 다르다. 스포츠의 경쟁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는 신체적 탁월성이며, 그것에 대한 경쟁이 제도화된 규칙 내에서 일어날 때 스포츠는 가능하게 된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이란 운동선수라는 인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신체적 탁월성은 단순히 운동선수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운동경기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때 실현가능한 것이며, Aristotl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크기의 탁월성(arete; excellence)은 신장, 가슴의 깊이, 어깨의 폭에 있어서 평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나, 그 크기가 과하여 움직임이 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운동 탁월성(athletic excellence of body)은 크기(size), 근력(strength), 속도(speed)의 조합을 의미한다—왜냐하면 속도가 빠른 사람은 근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길고 빠른 보폭을 가지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다리를 내딛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달리기에 적합하고, 붙잡기와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레슬링에 적합하며, 주먹으로 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투에 적합하다. 그리고 권투와 레슬링 양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판크라티온(pancratation)에 적합하며, 이들 모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5종 경기에 적합하다. (Aristotle, 1960, I . 5. 1361b)

몸집이 크다는 것은 어떠한 운동경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에서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운동경기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적절히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는 신체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운동경기는 어떠한 행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형식이 제시된다. 이때 규칙은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고,

가능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때 경쟁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에 있어서 신체적 탁월성이란 경기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제시된 행위 형식에 따라 충실히 경쟁하여 해당종목의 운동선수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도달 가능하며, 그것은 좀 더 나아지기를 실현하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운동선수가 획득하기 원하는 탁월성이란 이전에 획득된 것보다 더 큰 탁월성이다. 그는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길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길 원한다. 그가 이전에 성취했던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성취할 수도 있는 것은 시간과 환경에 있어 어느 특정한 시기와 관련된 탁월성이다. 또 다른 시간과 경우에 더 뛰어난 상태 혹은 수행(a superior state or performance)이 아마도 생산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그 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료하게 한다. (Weiss, 1969: 14)

스포츠에서 신체는 직접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자신을 향상시켜 구조화된 상태를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때 신체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어 있고, 제한된 행위를 통해 스포츠가 목적으로 하는 바인 탁월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신체와 신체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스포츠의 규칙이 지닌 특징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에 입문한다는 것은 스포츠가 제시하고 있는 난관—규칙에 의해 제한된 행위의 형식—들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도전이 필요로 하게 된다(Suits, 1978; Weiss, 1969). 신체적 도전을 통한 탁월성의 추구는 완전히 성취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특정한 상황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상태를 지향할 때 가능하게 된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에 대한 추구는 상대와의 경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경쟁은 경기의 규칙이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

체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Suits(1978)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pre-lusory goal’에 대한 의지가 ‘lusory attitude’<sup>48)</sup>의 수용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발현된다. 스포츠에서의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규칙에 의해 제한된 신체적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 탁월성에 대한 추구는 스포츠에서의 일차적인 목적으로서 작용한다. 신체적 탁월성은 단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체를 통해서 구현되는데, 이때 신체는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자(agent for excellence)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단순한 물질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훈련되어 구조화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스포츠에서 신체는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어 행위에 있어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체에 의한 탁월성의 발현은 스포츠의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이다. 스포츠에서의 신체는 규칙에 의해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한 행위의 형식을 통해서 상대와 마주하여 경쟁하게 되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신체적 노력과 도전이 요구된다. 즉,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규칙에 의해 제시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 의지의 발현이 신체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때 탁월성은 완벽히 성취되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서 탁월성(arete; excellence)은 우월성(superiority)과 구분 지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중요시되는 경기의 결과로서 승패는 신체적 탁월성에 대한 개념을 통해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스포츠에서 상대와 신체적 탁월성을 겨룸을 통해 생산되는 승패는 신체적 탁월성이 본질적으로 대상하는 바가 아니며,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승자는 우월하고 패자는 열등하다는 이분법적 논리와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은 서로 합쳐 제로가 된다는 제로섬게

---

48) Pre-lusory goal이란 더 많은 득점을 해야 한다든지, 더 멀리 점프해야한다든지 하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지니게 되는 목적—이는 운동선수의 개인적 목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을 뜻하며, lusory attitude는 pre-lusory goal을 성취하기 위한 성향(disposition)으로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의미한다(McNamee, 2008).

임(zero-sum game)의 논리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것은 스포츠의 본질적 맥락을 빗겨나간 것이다.

이에 더해서 스포츠에서 탁월성이란 최고의 단 하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스포츠에서 최고의 단하나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Weiss(1968)가 제시한 것처럼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종목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탁월성=최고의 하나’ 라는 논리를 따라간다면 1980년대를 풍미했던 육상선수 칼루이스는 육상선수로서의 탁월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며, 1990년대 세계적인 축구선수였던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축구선수로서의 탁월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 육상에서는 자메이카의 볼트, 축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승리지상주의와 제로섬게임의 논리와 그 맥락을 공유한다. 스포츠에서 신체적 탁월성은 스포츠 참여의 동기로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발현된 것으로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이다. 스포츠에서 탁월성은 신체적 난관을 극복하는 전 과정으로서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함에 있어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잘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목적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즉,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수행하는 과정으로서의 탁월성이지, 상대를 짓밟아 무너뜨리려는 우월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할 때,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 2) 도덕적 탁월성: 덕의 함양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호머시대 이후 안정기를 맞이한 고대 그리스 사회에도 도시국가 간의 분쟁이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고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해서 코치와 선수 등으로 이루어진 선수단의 이동이 요구되었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구효송, 2006).

신탁을 통해 계시를 받은 그리스인들은 고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범 그리스에 휴전(Olympic Truce)을 명하게 되었고, 경기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구효송, 2006; 김복희·오동섭, 2002; Swaddling, 2004). 실제적으로 경기에서 도시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를 기리기 위한 고대 올림픽 경기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고대 올림픽은 신체적 탁월성의 추구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어 경쟁을 통해 운동선수가 연마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그 순수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경쟁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도시국가의 영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수 자신은 그에 해당하는 물질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고대 올림픽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신체적 탁월성에 대한 시험대로서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했다. 고대 올림픽 참가자는 그리스 시민이어야 했으며, 9개월 이상 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개최이전에 엘리스(Elis)에서 2개월여 동안 합숙을 통해 신체적 기량을 갈고 닦아야 했다(구효송, 2006). 이는 고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체적 탁월성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운동선수는 자신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그것은 규칙에 대한 이해와 규칙에 대한 준수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 참여자는 pre-lusory goal을 지니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향(disposition)인 lusory attitude를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참여는 이러한 태도를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 규칙에 의해 제시된 불필요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즉, “스포츠 참여자는 태도, 성격, 신체, 그리고 장비를 갖추고 경기에 입문하게 된다(Weiss, 1969: 148)”는 말과 같이 스포츠 경기에서의 입문은 신체적 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상대와 규칙 등을 대하는 태도와 올바른 인간됨을 요구한다.



인간의 삶이 타자와의 연속된 관계 속에서 도덕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 내에 위치한다면, 스포츠는 인간의 산물이자 인간 삶의 일부분이므로 스포츠 또한 도덕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이게 된다. 스포츠 참여자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moral agent)이며, 특히 높은 수준의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사회는 스포츠 참여자가 경기에서 공정하게 겨루고 상대와 심판에 대해 존중하며, 겸손한 승자와 너그러운 패자(modest winners and magnanimous losers)가 될 것을 요구한다(Jone, 2005). 이러한 면에서 스포츠의 참여자에게 도덕적 탁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여기서 탁월성이란 신체적 탁월성에서 제시된 탁월성 개념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적 탁월성은 사회 구성원인 인간으로서 운동선수가 바르게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탁월성의 개념을 누구를 뛰어넘어 우위를 점하며, 이를 통해 지배적인 지위를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도덕적 탁월성이란 성립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누구를 뛰어넘는 우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탁월성을 우월성과는 다르게 어떠한 기능을 잘 하기 위한 과정이자 그에 대한 시도와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도덕적 탁월성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스포츠에서의 도덕적 탁월성은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며, 스포츠를 통해서 함양되고 획득될 수 있는 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Arnold(1997: 16)는 스포츠의 목적과 그 기준이 어떻게 추구되어야만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규칙에 의존하는 경쟁적인 신체적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스포츠의 내재적 목적과 기준은 그 자체를 위해 도덕적 방법으로 추구되어진다.

스포츠의 본질적 목적은 외부적인 요소에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 그 자체

를 위해서 도덕을 기반으로 할 때 추구되어진다. 그 목적이 성취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도덕의 기반 아래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 진다면 목적 그 자체는 순수한 의미를 잃게 되거나 퇴색될 수 있다. 실천의 목적이 순수한 의미를 잃거나 퇴색된다든지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그것이 상실된다는 것은 실천 자체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라는 실천이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탁월성이 요구된다. 스포츠의 도덕적 탁월성이란 스포츠 공동체에서 요구되고 추구되는 덕의 함양과 소유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전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덕적 탁월성이 추구될 때 스포츠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만약 스포츠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도덕적 관계의 정립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포츠의 목적하는 바는 왜곡될 수 있다. 승리에만 집착한 채 규칙에 대한 준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도핑과 승부조작과 같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기에서의 상대를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때, 스포츠가 지향하는 목적인 신체적 탁월성의 추구는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올바르게 입문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경쟁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정립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스포츠의 경쟁은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하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스포츠는 승자의 이익이 패자의 손실로 직결되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신체적 탁월성에 대한 겨룸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승패는 그 겨룸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과 경기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삶의 과정이다. 스포츠의 목적이 아니라 경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승리와 패배는 이익과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운동선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스포츠 공동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의 함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스포츠는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기 위한 인류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산물로써, 스포츠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해와 규칙에 대한 준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공정성 등과 같은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덕목에 대한 이해와 성취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에 참여하기 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를 온전히 실현하여 상대와 올바르게 겨루어야 하며, 이는 스포츠가 생명처럼 여기는 전제 조건인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흔히 인간이 삶의 미래에 대해 확연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의 필연적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스포츠의 묘미를 스포츠 경기 혹은 스포츠의 경쟁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공정성이 무시된다면 스포츠의 불확실성은 의미를 잃고 만다. 이는 승부가 조작된 경기의 예에서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듯 스포츠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정의나 공정성과 같은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

스포츠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덕목은 스포츠 참여자의 덕인 페어플레이(fair play)와 스포츠퍼슨십(sportspersonship)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스포츠 덕목은 완전히 상이하다거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상호 교차하는 성격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다(Kang, 2009). 페어플레이는 공정성이라는 일반 덕목에 기반을 두고 공정하게 경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스포츠의 덕목이라면, 스포츠퍼슨십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향으로서 행동과 태도에 있어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와 심판 그리고 관중에 대한 존경을 포함하는 스포츠의 덕목이다(Arnold, 1997; Kang, 2009; McNameee, 2008; Sheridan, 2003). MacIntyre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과 덕의 관계에서 스포츠를 바라보았을 때,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인 신체적 탁월성이 올바르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과 같은 덕의 함양이나 소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스포츠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규칙에 대한 준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성적

특질인 덕의 함양은 도덕적 탁월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스포츠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스포츠 공동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특수한 성질의 덕인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이 존재한다. 이것의 함양과 배양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 실현에 대해 스포츠 공동체가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을 때 그리고 스포츠 참여자의 삶의 전 과정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덕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스포츠 공동체가 그것을 추구할 때 스포츠라는 실천의 참여를 통해서 덕의 함양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도덕적 탁월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된다면 스포츠에서 도덕적 탁월성은 신체적 탁월성을 실현하는 전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3.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내재적 선

#### 1) 내재적 선의 특징

일반적으로 선(the good)은 인간의 삶이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내용은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스피노자는 선을 참된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칸트는 선에 대한 인간의 의지만이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흄은 선을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무어는 선 그 자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 ‘선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애링턴, 2003). 덕 이론의 관점에서 Aristotle(1999: 1. 1. § 1)는 인간의 “모든 기술과 탐구는 모든 행위와 결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듯하다” 고 하였으며, MacIntyre(1984)는 선을 어떠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선은 단순히 ‘ 좋음 ’ 이란 의미로부터 떠나 ‘ 도덕적으로 좋음 ’ 이나 ‘ 착함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인 진(眞)·선(善)·미(美) 중 하나이며,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이며 실현해야만 하는 바이므로 당위적 가치로 이해된다(백종현, 2004). 선은 가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선은 가치 있다는 것은 성립된다. 즉, 선은 가치의 일부분으로서, 도덕과 윤리와 관계 맺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가치이다.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선의 의미로부터 확장하여, Aristotle이나 MacIntyre가 규정하고 있는 선은 도덕과 관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MacIntyre가 강조하고 있는 선은 ‘ 좋음(the good) ’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가치에 국한된 선을 실천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는 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특정한 실천의 맥락 내에서 특정한 역할에 있어 인간에게 유익한 것, 이 양자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좋은 인간이란 인간으로서 그리고 특징적으로 특수한 실천의 맥락 내에서 특정 역할 혹은 기능의 이행자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다. 누군가는 양심적이고 쾌활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양치기나 간호사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할 것이다. (MacIntyre, 2010: 65)

여기서 MacIntyre는 좋은 인간이 되고자 하지 않더라도 좋은 양치기, 즉 양치기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목양(sheep farming)이라는 실천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추구하므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의 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좋은 양치기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의 내면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실천의 선, 특히 내재적 선의 실현은 공동체에 좋은 것, 공동체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좋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각의 실천에 의해서 실현된다. 실천의 전통이 공동체에서 유지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인 내재적 선의 성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켜준다. 그렇다면 내재적 선의 조건은 무엇인가? 제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재적 선은 외재적 선과 구별되는 것으로 실천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천의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천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실천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외재적 선이 선과 구별되는 악이나 가치와 반대되는 반(反)가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외재적 선이란 내재적 선과는 달리 해당 실천과 관계하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는 실천의 선이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내재적 선이 실천과 공동체 전체의 좋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외재적 선은 필연적으로 실천과 공동체 전체의 좋음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선의 과도한 추구는 실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재적 선이란 공동체의 공동선과 맥락을 공유한다(MacIntyre, 1984). 내재적 선은 공동체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실천의 올바른 실현을 통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증진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한다.

MacIntyre는 체스에 참여하는 어린아이의 예를 통해서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내재적’이라고 부른다. 첫째, 우리는 단지 체스 혹은 특별한 종류의 게임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게임의 예시에 의해 그것(선)을 단지 구체적으로 명시할(specify)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내재적 선은 해당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식될(identified

and recognized)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것이 성취될 때 그것은 항상 어떤 다른 개인의 재산과 소유라는 것은 외재적 선이라고 불리는 것의 특성이다. 더군다나 특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더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은 그것을 덜 소유한다는 것이다. (중략) 외재적 선은 특징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경쟁의 대상(objects of competition)이다. (중략) 내재적 선의 특성은 그것의 성취가 실천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에 선/좋은(a good)이라는 것이다. (MacIntyre, 1984:188-191)

실천의 내재적 선은 공동체 전체에 좋음을 선사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소유가 타인의 소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실천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실천의 참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실천 고유의 참된 선이다. 이것은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목적으로서 가치 부여된 선이며, 그리고 이러한 선의 성취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탁월하게 되거나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떠한 활동이나 조직의 구성원에게 좋은 것을 의미한다(MacIntyre, 2010).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와 지향하는 가치가 반영된 인간 활동이며, 내재적 선은 실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둑질은 실천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좋은 도둑’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도둑질의 내재적 선 또한 없다. 왜냐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反)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된 내재적 선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그것이 실현되는 인간의 활동은 실천이다.
- 2) 그것은 공동체의 기능을 증진하는 좋은 것이다.
- 3) 그것은 해당 실천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다.
- 4) 그것의 성취가 타인에게 어떠한 손실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2)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내재적 선

인간 완성을 위한 근본적 가치인 kalokagathia—미선성(美善性)—와 함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arete였다. Arete는 덕(virtue) 혹은 탁월성(excellence)로 일반적으로 풀이되지만, 현대의 용어로 완벽하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메치코프·에스테스, 2005; MacIntyre, 1984; Miller, 1991; Reid, 2002).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arete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경쟁 혹은 스포츠 경기를 의미하는 agon이 사용되었으며,<sup>49)</sup>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스포츠의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스포츠 경쟁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과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근대로 이어져 19세기 영국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스포츠는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하남길, 2004; Javie, 2006; Kang:2009; Sheridan, 2003).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의 실마리는 그것의 근본 목적인 내재적 선에서 찾을 수 있다. 스포츠라는 실천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실천에 대한 MacIntyre의 견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socially established cooperative human activity)의 일관되고 복잡한(coherent and complex) 형식이다. 해당 활동의 형식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선은 그 활동의 형식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완벽한 탁월성의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능력(human power)과 그

---

49) 고대 그리스에서 agon은 스포츠 경쟁 혹은 경기뿐만 아니라 음악과 시 등을 포함하는 행사의 경쟁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며 그 외연을 확장하기도 하였다(메치코프·에스테스, 2005). 그리고 agon은 성인 남성의 치열한 경쟁이었으며, 유희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스포츠와 비교해서 심각한 경쟁이었다(Young, 1984).



활동이 품고 있는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human conceptions)가 조직적으로 확장되어진 결과로 인해 실현된다. (MacIntyre, 1984: 187)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가 실천의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MacIntyre의 실천 개념에 따라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성립된 인간 활동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적합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과 스포츠의 목적과 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현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스포츠의 형식은 규칙을 통해서 제공된다. 그리고 그 내재적 선은 규칙이 제공되는 형식에 따라 상대와의 경쟁을 바탕으로 신체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러한 형식에 근거한 신체적 구현은 해당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와 선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것은 탁월성의 기준이 무엇을 대상으로 있는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일어난다.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끊임없는 과정은 그 기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와 관계한다. 실천의 목적으로서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대상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스포츠라는 실천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의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이 대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내재적 선/가치에 대한 논의는 스포츠 그 자체에 대한 내재적 선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실천의 내재적 선 개념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스포츠는 인간의 산물이자 인간에 의해서 구

현되어 그것이 목적하는 바인 선이 실현되는 실천으로, 그것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 그 자체의 고유한 선이자 스포츠가 지향해야 하는 바이다. 스포츠 그 자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것은 성취될 수 있다. 즉,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란 스포츠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포츠에로의 참여는 그것의 성취를 담보로 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목적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스포츠를 통해서 파생되는 부산물이 아니라 스포츠의 목적 그 자체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목적이면서 탁월성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이란 경기에서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상태와 노력하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체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제시하였다.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은 신체적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신체적 탁월성이다. 고대 그리스의 제전경기로부터 현대의 올림픽게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신체를 통해 실현되는 탁월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목적 하는 바이자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체적 탁월성은 신체를 통해서 탁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Aristotle(1960)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의 신체적 능력이란 해당 운동 경기에서 적합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 달리기에서는 빠르게 다리를 잘 내딛는 능력이고 레슬링에서는 상대를 잘 붙잡아 제압하는 능력이다. 이때 신체적 능력은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신체적 능력은 체격의 우월함, 체력의 우수함, 신체적 기술의 뛰어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능력이 발현되는 스포츠 현장에서 체격의 조건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체격 조건이 반드시 해당 스포츠의 탁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수영선수로서 상대

적으로 체격 조건이 열세한 박태환의 경우나 축구선수 중에서 왜소한 체격 조건을 지닌 메시의 경우만 보아도 체격 조건이 반드시 스포츠의 탁월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운동선수에게 체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단지 심폐지구력이 우수하다고 혹은 유연성이 우수하다고 해당 스포츠 종목에서 신체적 탁월성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운동경기에서 신체적 능력은 규칙에 의해 제시되는 제한적인 행위 형식에 적합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체격이나 체력 조건은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스포츠에서의 신체적 능력 중 신체적 기술의 뛰어난 것은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운동 경기가 제공하는 행위의 형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결과로서 승패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경기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는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활동이고,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신체적 탁월성으로 대변되며, 신체적 탁월성은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이다.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적 기술이란 규칙에 의해서 제시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획득되고, 의도적이며, 유목적적 능력(acquired, intentional, purposeful capacities)을 말한다(Torres, 2000). 즉, 규칙이 제공하는 제한적 행위 형식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발현되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신체적 기술이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스포츠에서 신체적 기술은 규칙에 의해 제시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에서의 신체적 기술은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닌 신체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체적 기술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학습 등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스포츠의 수준—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과 개인적 수준에 따라 그 기술의 완성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탁월성의 개념에 따라 스포츠의 신체적 기술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기보다 완벽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신체적 기술은 단순한 움직임과 구별되어 훈련과 학습에 습득되며 신체적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Loy, 1968). 신체적 기술은 신체적 기능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기능이란 기술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에서 제시된 신체적 기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신체적 기술이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으로서 신체적 기능을 의미하게 된다. 스포츠에서 신체적 기능은 신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규칙을 통해 제시된 행위의 형식에 신체가 올바르게 적합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봤을 때,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인 신체적 탁월성은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 신체적 기술의 능력의 탁월성,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무엇에 대한 탁월성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파악되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며, 스포츠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단순하고 일반적일 수 있지만,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이다.<sup>50)</sup> 이는 탁월성의 성취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조직적으로 확장되어 성취될 수 있으며, 그 성취와 성취 과정은 스포츠를 스포츠이게끔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인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제시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MacIntyre(1984)가 밝히고 있는 ‘내재적’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50) 공예, 요리 등에서도 고도의 신체적 기능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근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그 활동의 내재적 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예와 요리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단지 특별한 종류의 게임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게임의 예시에 의해 그것(선)을 단지 구체적으로 명시할(specify) 수 있다. 둘째, 내재적 선은 해당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식될(identified and recognized) 수 있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스포츠 종목과 그 스포츠의 예를 통해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하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에서의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예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플립-플랩(flip-flap)으로 알려진 엘라스티코(elastico) 드리블, 시저스 킥 등은 축구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피겨스케이팅의 트리플 악셀은 피겨스케이팅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의 목적으로서 여타의 실천의 목적과 구별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와 스포츠가 아닌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 종목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건축이나 음악과 같은 여타의 실천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스포츠가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는 해당 스포츠 종목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내재적 선의 네 가지 특징을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잘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해볼 차례이다. 첫째, 내재적 선이 실현되는 인간의 활동은 실천이어야 한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은 역사와 전통을 지니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실천으로서 스포츠에서 실현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은 만족한다. 둘째, 내재적 선은 공동체의 기능을 증진하는 좋은 것이어야 한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라는 실천을 근본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선이므로, 스포츠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으로 규정했을 때,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는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셋째, 내재적 선은 해당 실천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축구와 피겨스케이팅의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동안의 연습, 훈련, 학습을 통해 습득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해당 스포츠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그것에 참여를 통해서만 경험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스포츠의 참여를 통해서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당 스포츠의 참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내재적 선의 성취가 타인에게 어떠한 손실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경기의 승패에 절대적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 자체의 성취로 인해 타인의 이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한 개인이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가 타인의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덜 소유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내재적 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서 성립 가능하다.

### 3) 도덕적 탁월성에 기초한 내재적 선의 실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과 덕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Aristotle(1999)의 윤리학적 사상을 따르는 MacIntyre(1984)의 덕 이론의 관점에서 덕은 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특징적 성향으로 이해된다. 덕의 결핍은 선을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반대로 덕의 함양은 선의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스포츠가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발휘되어 내재적 선을 성취하고자하는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는 인간이 ‘고도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탁월함에 이르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향해 있으며, 이는 도덕적 탁월성<sup>51)</sup>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덕적 탁월성의 실현이 덕의 함양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스

51) 다시 말하지만, 이때 탁월성은 우월성을 의미하거나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그 차체를 일컫지 않으며, 그 탁월성 또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탁월성은 실천의 기준과 실천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향해 끊임없이 경주하는 노력 혹은 그러한 과정을 의미한다.

스포츠 공동체에서 추구되는 스포츠퍼슨십과 페어플레이와 같은 덕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이 지녀야 하는 성향으로서 스포츠 공동체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덕은 스포츠라는 실천의 목적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스포츠에서의 덕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인의 삶이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바르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함께 덕은 실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을 지닌 실천의 전통이 올바르게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만든다. 스포츠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덕을 두루 갖춘 운동선수를 상기해보자. 그는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를 뚜렷이 알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성취하고자 할 것이며, 슬럼프의 난관과 도핑의 유혹에 봉착했을 때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것이다. 덕스러운 운동선수는 실천의 전통을 물려받아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이어지게 하며, 이와 같은 운동선수가 말로 스포츠라는 실천이 지니고 있는 전통의 올바른 실천가(practitioner)가 되는 것이다.

스포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사태를 목도한다면 스포츠 전통의 올바른 실천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쩌면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현실은 이상과 괴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탁월성이 어떠한 상태나 단계에 있어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여 탁월성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과정이듯이, 이상적인 스포츠 공동체와 스포츠 참여자의 모습도 그것을 지향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실천의 이상과 실천을 조직적·제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제도가 추구하는 현실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실천과 제도가 추구하는 선의 차이에 기인한다.

체스, 물리학, 의료는 실천(practices)이며, 체스 클럽, 실험실, 대학교, 병원은 제도(institutions)이다. 제도는 특성 상 그리고 필수적으로 외재적 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제도는 돈과 다른 물질적 소유물(material

goods)에 관여하고 권력과 지위에 관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보상으로 서 돈, 권력, 지위를 분배한다. 제도는 자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실천의 소지자(bearers)로서 실천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무용하다. 어떤 실천도 제도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실천과 제도의 관계는 친밀하다—결과적으로 문제 시 되는 것은 실천의 외재적 선과 내재적 선의 관계이다—. 제도와 실천은 특성 상 단일한 인과관계의 순서(a single causal order)를 형성한다. 그 인과관계의 순서에서 실천의 이상과 독창성은 항상 제도의 욕심(acquisitiveness)에 취약하고, 실천의 공동선(common goods)에 대한 상호 협력적 배려(cooperative care)는 제도의 경쟁력(competitiveness)에 취약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덕의 본질적인 기능은 명확하다. 정의, 용기, 진실성과 같은 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천은 제도의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여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MacIntyre, 1984: 194)

실천과 제도의 관계는 긴밀하며, 제도의 존재 이유가 실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 현실적인 이익과 관련된 외재적 선의 추구에 안주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중계권료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미국의 방송사들은 자국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에 맞추어 경기 시간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IOC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예는 스포츠 실천이 이상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공동선이나 실천의 내재적 선이 제도의 이해관계에 의해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점은 지구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가치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기구의 핵심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구 또한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강성민, 2012). 이는 스포츠 기구가 스포츠라는 실천을 근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기구의 근본 목적은 이익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선의 성취를 통한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올바른 정립에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기구 또한 그러한 책임을 지니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천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라는 실천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재적 선의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덕의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체 스포츠 공동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스포츠 공동체는 스포츠라는 실천의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여 덕의 함양을 추구할 때, 그 공동체 구성원은 스포츠에로의 참여를 통해 덕의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가 올바르게 지탱될 수 있다. 이것은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덕의 역할에 의해서 가능하다. 후기 로마 시대에 펼쳐진 오락과 도박을 위한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역사는 덕의 함양을 통한 내재적 선의 성취와 실천의 유지와의 관계에 있어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스포츠라는 실천의 유지와 발전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진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고, 이는 덕의 함양에 의한 내재적 선의 성취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을 올바르게 이어받을 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으로서 스포츠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퍼슨십과 페어플레이는 스포츠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전통을 유지·계승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성향으로 이해된다. 덕의 함양을 위해서는 스포츠에로의 참여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반성적인 노력과 도덕적 모범(moral exemplar)으로서의 역할이 개인에게 요구되며,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지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여야 한다. 이는 스포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가치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 4. 소결론

MaIntyre(1984)의 견해에 따르면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활동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으로, 그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실천은 그것이 지향하는 그리고 탁월성의 기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재적 선에 의해 자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이때 탁월성이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발현에 의해서 추구될 수 있으며, 우월성과 구별하여 누군가보다 우위에 자신을 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좀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키거나 어떠한 지향점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실천의 조건에 부합하는 스포츠의 탁월성은 신체를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는 신체적 탁월성을 일차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탁월성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제시된 일정한 행위 형식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스포츠는 신체에 의해 그 목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신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간 활동이며, 정신에 의해서 압박받았던 신체가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되는 장으로서 스포츠는 자신 지향하는 근본 목적이 존재한다. 그 목적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며,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신체적 탁월성은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이며, 이는 다시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적 기술이란 단순한 움직임과 구별되어 오랜 기간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을 뜻한다.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은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이며, 기능은 기술에 대한 능력을 포함하므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다. 이것은 스포츠라는 실천의 근간을 이루며, 그것의 성취는 공동체의 좋음을

실현시킨다. 그러나 내재적 선에 대비되는 외재적 선의 과도한 추구는 실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제도는 명예, 권력, 돈과 같은 외재적 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20세기 중후반 이데올로기에 휩싸인 스포츠계의 면모나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스포츠 산업을 바라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스포츠라는 실천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과 같은 덕이 필요하다. 이 같은 덕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여 실천과 개인 그리고 전통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한다.

## V.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적용

내재적 선과 관계하는 실천으로서 스포츠와 외재적 선과 관계하는 스포츠 기구는 각기 지향하는 선의 상이함으로 인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도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실천으로서 스포츠와 관계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외재적 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스포츠라는 실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고 그 목적을 희미하게 만든다.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이다.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스포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 본장에서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실제로 적용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을 내재적 선에 기반을 두고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 1.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적용한 스포츠의 개념 규명

20세기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Wittgenstein은 그의 후기 철학에서 일상 언어의 사용과 개념화를 주요하게 문제 삼고 있다(김홍식, 2000). 그의 후기 철학은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으로 대변되는 게임이론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일상 언어의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sup>52)</sup> 가족유사성이란 가족 구성원들의 생김과 행동을 관찰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

52) Wittgenstein의 가족유사성에 근거한 후기 철학—게임 이론—은 예술(art)의 개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예술을 정의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론가(theorists)와 반이론가(anti-theorists)의 입장으로 양분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전자는 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Wittgenstein의 이론에 따라 예술이란 개방 개념(open concept)으로서 정의가 불가능하며, 예술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유사성만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Kaufman, 2007).

다. 다시 말하면, 얼굴생김이나 걸음걸이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단일하게 나타나는, 가족이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기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유사성(similarities) 혹은 관련성(relationships) 정도라는 것이다(Wittgenstein, 1968). 그는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게임(games)<sup>53)</sup>을 예로 들고 있다. 게임으로 불리는 활동—보드게임, 카드게임, 볼게임, 올림픽게임—을 통해서 모든 게임에 공통된 어떤 하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은 힘들며, 그것이 게임이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유사성이다.<sup>54)</sup>

Wittgenstein의 이러한 시각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언어적 인식은 개방 개념(open concept)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게임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공통된 요소에 의해 그것을 정의하거나 단정 짓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견해는 새로운 대상이 하나의 개념 속으로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된다(Kaufman, 2007; McNamee, 2008). 그는 게임이란 단어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하는 공통적인 하나의 것은 없지만, 그러한 단어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Wittgenstein, 1968, § 65).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철학의 주요 논의는 놀이와 게임으로부터 스포츠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포츠철학계에서 Wittgenstein의 열린 개념을 받아들여 스포츠에 대한 개념 정의의 불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McBride, 1975; McFee, 2004b; McNamee, 2008). 그들의 관점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유사성과 관련

53) Wittgenstein(1968, § 66)은 독일어 원문에서 ‘Spiele’ 을 사용하였으며, 영문판 번역자인 Anscombe(1968)은 ‘games’, 한국어판 번역자인 이영철(1994)은 ‘놀이’ 로 번역하고 있다. 해당 문단에서 Brettspiele(board-games; 판 위에서 하는 놀이들), Kartenspiele(card-games; 카드놀이들), Ballspiele(ball-games; 공놀이들), Kampfspiele(Olympic Games; 격투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놀이라기보다 게임으로 지칭됨으로 게임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54) Wittgenstein은 어떠한 것이 여타의 이유에서 게임이 될 수 없다고 논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봐라(Don’ t think, but look!)’ 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성에 대해 밝히는 것이며, 하나의 본질적 요소에 의해서 스포츠를 정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Wittgenstein의 관점에 근거해 우리가 스포츠를, 특히 스포츠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Wittgenstein의 관점에서 근거한다면 단어가 표상하는 대상으로부터 유사성을 발견하여 이해할 수도 있고, Aristotle이 말한 것처럼 정의(definition)는 어떠한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를 통해서 대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McNameee, 2008). 전자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언어의 세계를 통해서만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고, 후자는 사물의 본성은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Wittgenstein의 관점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견해임에 분명하다. 그의 견해처럼 각 활동의 가족유사성으로 인해 그것을 이해하는데 정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유사성을 이해된 대상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여 이해하거나, 정의함으로 인해 대상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즉, 정의하기에 의해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 다른 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그것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

개념은 생각의 구성요소이다. 대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일은 생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유용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의하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Wittgenstein의 게임이론은 개념의 인식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는 다소 그것이 사용되는 언어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파악에 의존하여 있다. 예를 들어, cybersport(혹은 e-sport)라는 단어에서 spor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연유로 그것을 쉽게 스포츠라고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Wittgenstein은 그러한 논증을 떠나 sport라는 개념의 인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보다 규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입각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스포츠를 규범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Moore(1903)는 ‘선’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선’은 ‘노랑’과 마찬가지로 단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 속성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며 더 이상 정의하기의 방법—피정의항(중개념)=정의항(중차+유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더라도 스포츠는 단순 속성이 아니라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실천의 내재적 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규범적으로 그것을 한계 지어 스포츠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의 개념에 관한 초기 논의는 놀이, 게임, 스포츠의 유사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진화론적 시각에서 놀이는 게임으로, 게임은 스포츠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제II장의 스포츠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는 경쟁, 규칙, 제도화, 신체성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먼저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의 상호 얽혀 있어 쉽게 풀 수 없는(inextricable) 관계를 경쟁, 규칙, 제도화, 신체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먼저 경쟁은 놀이에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게임과 스포츠에서 찾을 수 있는 구성요소이다. 규칙은 놀이에서는 일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게임에서는 일시적이거나 느슨한 형태의 규칙 혹은 조직화된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스포츠에서는 규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나타난다. 제도화는 놀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게임에서는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스포츠에서는 IOC, FIFA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신체성의 경우, 놀이와 게임에서 일정부분 드러나 있지만,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

지 않거나 그 신체적 능력이 경기에 임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Kang, 2009). 놀이, 게임,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상호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Suits(1988b)와 Meier(1988)는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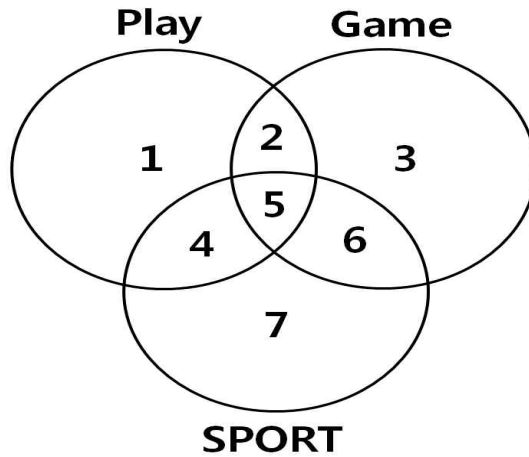


그림1. Suits의 벤다이어그램

- 1: 원시놀이, 2: 정교한 놀이, 3: 비운동성(nonathletic) 프로게임,
- 4: 아마추어 퍼포먼스, 5: 아마추어 스포츠, 6: 프로 스포츠,
- 7: 운동성(athletic) 프로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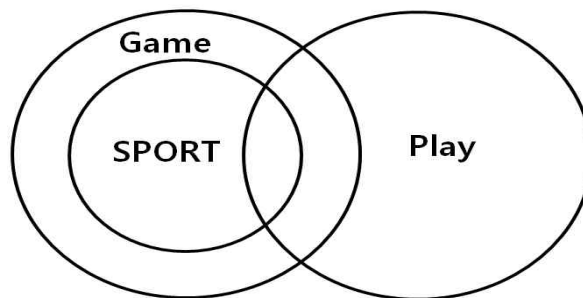


그림2. Meier의 놀이, 게임, 스포츠 도식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놀이, 게임, 스포츠는 상당히 중첩되거



나 일정 부분 상호 포함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Schneider(2001)은 Ryle(1967)이 제시하고 있는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sup>55)</sup> 개념을 적용하여 Suits와 Meier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녀에게서 놀이는 게임과 스포츠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며, 놀이하는 것(playing)은 활동의 종류(a type of activity)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양태(a mode of performing any activity)이다. 즉, 그녀의 주장은 놀이가 게임과 스포츠와 동일한 계층에서 범주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이는 게임과 스포츠 사이에서 중첩되는 요소를 지닌 동일한 논리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놀이, 게임, 스포츠의 유사성과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설명하려는 의도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게임과 스포츠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게임과 스포츠는 어느 정도 유사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게임과 스포츠가 논리적으로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지는 의문시 된다. 만약 Meier(1988)의 주장처럼 모든 스포츠가 게임에 속한다면 게임과 스포츠는 논리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지닌 범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게임과 스포츠를 동일한 논리적 위치에 놓고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의미 없게 된다. Suits(1988a)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임과 스포츠의 관계에서 게임 중 신체적 기술의 게임을 스포츠로 정의하고 있는데, 게임에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스포츠 개념 논의도 범주 오류에 속하게 된다. 또한 ‘놀이→게임→스포츠’로 발전되는 진화론적 모델은 상호 포함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범주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는 사실상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Suits와 Meier를 비롯한 여타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일반적인 놀이, 게임, 스포츠에 관한 논의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생물의 진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진영에서 다음과 같은

55) 범주 오류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말을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말로 생각하는 오류이다(교육학용어사전). 이는 해당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개념을 적용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해당 개념들에 익숙하나 추상적인 사고의 수준에서 그 개념들을 그것이 속하지 않는 논리적 종류(logical types)에 위치시키기 쉬운 상태에서도 발생한다(Ryle, 1967: 16-18).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동물원의 침팬지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들이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밀림 속에서 인간으로 진화하지 못한 침팬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 부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설명의 한계로부터 ‘놀이→게임→스포츠’의 도식을 생각해본다면, 놀이로부터 게임으로, 게임으로부터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논리적 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 진화론적 사고에 기반을 둔다면 놀이가 게임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게임으로, 게임이 스포츠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스포츠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체스와 바둑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리고 cybersport(혹은 e-sport)는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놀이→게임→스포츠’의 도식으로 그려지는 진화론적 사고는 그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놀이→게임→스포츠’의 관계는 강한 관계(strong connection)라기 보다 약한 관계(weak connection)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게임 중 신체적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단지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확실성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필연적이기 보다 개연적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적 주장은 확실성에 근거한 논리적 설득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는 탁월성이 대상하는 바인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으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신체성에 기반을 두고 실현되며, 이는 놀이와 게임과 구별되는 스포츠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게임과 구별되는’ 이라기보다 ‘스포츠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에 적합하다. 정신과 신체라는 경계의 명확한 분리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는 정신에 대한 신체의 종속성으로 인해 신체의 열등함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는 신체적 탁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실천으로, 이원론적인 시각을 견지하더라도 정신에 종속된 신체성이라는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신체적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인간 활동이다.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하며, 그 속에서 구현되는 신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성은 어떠한 활동으로부터 스포츠이게끔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스포츠 속에서 구현되는 신체성의 대상은 우선 ‘신체적 탁월성’이다. 그리고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은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거나 큰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형식, 즉 규칙에 기초하여 신체가 직접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탁월성을 의미한다.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어 스포츠 종목이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칙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이때 ‘신체적 능력’이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적 기술’이란 ‘나’와 ‘타자’에 대한 이해, 규칙에 대한 이해,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고 학습되어 발달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신체적 탁월성의 구체적인 대상이다.

실천은 내재적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을 밝혔을 때,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고, 이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다. 스포츠는 이러한 내재적 선이 실현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통해서 스포츠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된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스포츠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탱시켜 준다. 그리고 MacIntyre의 견해에 따라 외재적 선에 입각한 제도와의 갈등으로부터 스포츠라는 실천의 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

위의 논의를 적용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는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능력이 발휘되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다.’ 이때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나’와 ‘타자’에 의해 구성

되는 경쟁과 제도화에 의해 권위를 부여 받아 표준화된 규칙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신체에 의해 실현되며,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의 함양을 전제할 때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2.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적용한 스포츠 논쟁에 대한 논의

### 1) 스포츠 논쟁의 쟁점: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

실천은 자신이 지향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MacIntyre, 1984). 특정한 실천의 탁월성이 지니고 있는 기준은 여타의 실천이 지니고 있는 탁월성의 기준과 다르며,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인 실천의 내재적 선을 통해서 해당 실천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낸다. 내재적 선은 실천이 목적하는 바이며, 실천은 자신의 내재적 선에 대한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할 때 실천의 성격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실천의 내재적 선은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그것의 실현은 해당 실천의 근간을 유지시키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MacIntyre, 1984; 2010).

실천으로서 스포츠는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근대 올림픽 그리고 다양한 종목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쳐 인간의 삶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해 왔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타의 활동과 구별되는 자신의 내재적 선의 성취에서 찾을 수 있다. 제Ⅳ장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신체적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다. 이는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발현되어 권위를 부여 받은 일정한 행위 형식 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인간과의 경쟁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다. 즉,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목적으로서 여타의 실천으로부터 스포츠를 특징적으로 존재하게끔 한다.

실천의 내재적 선이 해당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외재적 선은 해당 실천을 통하지 않고라도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내재적 선과 대비된다. 외재적 선을 악이나 반(反)가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외재적 선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실천의 근본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MacIntyre(1984)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천과 그것에 관계하는 제도와의 성격 차이는 양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실천은 내재적 선의 추구를, 제도는 권력, 명예, 재화와 같은 외재적 선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실천은 제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현되고, 제도는 실천을 그 존재 이유로 삼고 있지만 양자는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 차이로부터 그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스포츠 논쟁의 쟁점을 이러한 연유에서 찾을 수 있다.

실천은 그 활동의 근본 목적으로서 내재적 선의 추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제도는 실천을 수단으로 하여 성취될 수 있는 외재적 선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존립하려는 경향이 짙다(MacIntyre, 1984).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라는 실천은 내재적 선의 추구를 통해서 그 존재 근거를 가지는 반면, 제도로써 스포츠 조직이나 기구는 권력이나 돈과 같은 외재적 선에 깊이 관계하고 있다(Arnold, 1997). 권력이나 자본을 지향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실천의 성격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도의 이해관계에 의해 실천의 본질적 특성은 상쇄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스포츠 기구에 의한 바둑의 스포츠 논쟁에 잘 나타나 있다.

MacIntyre(1984)가 제시한 실천의 예는 건축, 농업, 체스, 풋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의 실천의 예에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풋볼과 체스가 상이한 실천이라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그의 견해 또한 스포츠와 체스는 동일한 실천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

스와 유사한 ‘바둑의 스포츠 논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적 활동 (sedentary activity)의 스포츠 영역에로의 포함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주한, 2002). 바둑의 스포츠에로의 편입은 바둑 선수들의 처우개선, 새로운 수요창출과 자원 확대, 국위선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전개되었다(오현택, 2006).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는 스포츠의 근본 목적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도가 추구하는 선, 즉 외재적 선과 관계하고 있다.

바둑협회는 한국의 스포츠 기구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었고, 체스와 카드게임의 일종인 브리지(bridge)도 IOC의 인정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개념에 포함되기 힘든 여타의 활동이 제도의 이해관계에 의해 스포츠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자체는 바둑, 체스, 브리지가 스포츠라는 실천이라는 것을 논증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바둑, 체스, 브리지협회와 대한체육회, IOC와 같은 거대 스포츠 기구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의해 제도적 차원에서 스포츠로 용인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둑, 체스, 브리지와 같은 활동이 스포츠에 편입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행정적 이익과 스포츠 기구의 시장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발생한 현상이다.

제도의 이해관계에 의해 스포츠와는 이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활동의 스포츠 기구에로의 가입이 대중의 스포츠 개념화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바둑, 체스, 브리지가 스포츠라는 것을 논증적으로 증명해주지는 않는다(Kang, 2009). 실천은 그 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인 내재적 선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이고, 그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자본을 통한 시장의 확장, 지배구조의 단일화, 권력의 확대 재생산 등 외재적 선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스포츠 기구에 의해 정적 활동을 스포츠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의 목적이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바와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제도는 그 존재의 이유를 실천에 두고 있으면서도 스포츠라는 실천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포츠를 수단으로 하여 파생될 수 있는 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스포츠 기구에 의해 바둑, 체스, 브리지를 스포츠로 승인한 사실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규범적 준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간의 활동을 스포츠로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스포츠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이 스포츠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함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포츠라고 불리는 활동이 나타내고 있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접근이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규범적(normative/prescriptive) 접근이다. 스포츠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은 스포츠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 즉 내재적 선에 근거하고 있다.

기술적 접근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스포츠가 지향하는 개념 자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오현택, 2006). 기술적 접근은 바둑의 스포츠 논쟁에 있어 그 힘을 실어주었으며, 대한체육회에 바둑협회가 가맹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sup>56)</sup> 바둑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으로 인해 대한체육회의 시장과 조직 확대와 더불어 바둑협회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바둑 선수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양자에게 모두 좋은 것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스포츠의 본질적 성격 규정에 신중했어야 했다. 바둑의 대한체육회 가맹은 대한체육회와 바둑협회와의 이해관계의 합의에 의해 가능했으며, 이는 MacIntyre가 밝히고 있듯이 외재적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다. 바둑이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스포츠와 바둑이라는 실천이 추구하는 목적, 즉 내재적 선의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6) 특히, 김정명은 체육의 확대된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에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둑과 같은 활동 또한 스포츠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바둑을 스포츠 영역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바둑<스포츠’가 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이분법적인 신체 활동의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다. 김정명·원영신·양진방(2002). 좌담: 스포츠와 몸의 성취. **전통과 현대**, 20, 120-152 참조.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은 스포츠 기구가 추구하는 외재적 선과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추구하는 내재적 선의 성격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둑의 스포츠 논쟁에서처럼 제도의 현실적인 목적에 의해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이 위협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이유 중 하나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 형성의 미비와 외재적 선의 추구에 몰입한 나머지 실천의 본질적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의 과실이다. 스포츠라는 실천은 자신이 지향하는 근본 목적인 내재적 선,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스포츠를 스포츠이게끔 만들어 스포츠를 여타의 인간 활동과 구별 짓는 중요한 규범적 준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근거하여 스포츠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라는 실천은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스포츠 논쟁에 대한 논의

체스와 바둑은 스포츠 논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체스와 바둑은 스포츠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의 구성요소 중 경쟁, 규칙, 제도화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실천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박주한, 2002; MacIntyre, 1984; Suits, 1988a). 체스와 바둑도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로서 놀이나 게임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오랫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스포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스포츠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신체성이 덜 발현되는 실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활동의 근본 목적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스와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하는 쪽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라고 불리는 활동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정명·원영신·양진방, 2002).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에서는 확대된



외연이 시장의 확장과 권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체스와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분히 외재적 선의 추구에 입각해 있으며, 스포츠라는 실천 그 자체에 관여하기보다 스포츠라는 실천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효과나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견해는 외재적 선의 추구에 관심이 높은 제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체스와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체스와 바둑은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신체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며, 대근활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포츠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주한, 2002; Suits, 1988a). 스포츠에서의 신체성은 대근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근활동과 소근활동이 복합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신체적 탁월성’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주체적 신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스포츠에서의 신체적 탁월성이란 ‘고도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탁월성’을 의미하며, 그 탁월성은 신체를 통해서 발현되어 경기의 과정이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체스나 바둑이 스포츠가 아니라는 사실은 엄연하다. Weiss(1969: 143)는 신체성에 근거하여 하키와 체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하키는 신체적 노력(bodily exertion)을 요구한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하키는 규칙을 준수하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test). 체스는 규칙과 역사를 지니고 있고, 수준급 게임에서는 상당한 스테미너를 요구할지라도, 체스는 신체로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니다. 이 두 예에서 정신과 신체는 다소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하키에서 판단과 결정은 신체적 성취에 부차적인 것이고, 체스에서 신체는 효과적인 판단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만 사용된다.

체스와 바둑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앉거나 팔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등 기본적인 신체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Weiss가 말한 것처럼 수준 높은 체스의 경기나 바둑 경기를 지켜본다면 일정 정도의 체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체스와 바둑과 같은 실천에 있어 체력적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신체적 탁월성이 대상하는 바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를 요구하지 않는다. 체스나 바둑에서 신체적 활동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의 요소에 불과하며, 신체적 활동 자체가 그 경기의 과정에 전적으로 개입하거나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리고 체스와 바둑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엄연히 신체적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이 쉽게 밝혀질 것이다. 체스와 바둑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겨루는 실천으로서 스포츠와는 상이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실천의 내재적 선은 해당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의 참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테니스의 백핸드 스트로크나 농구의 비하인드 드리블의 경우 테니스와 농구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체스나 바둑에서 말이나 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신체적 기술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이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선수들의 처우개선, 새로운 수요 창출과 재원 확대, 국위선양—로 인해 바둑이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었다 하더라도, 가맹 자체가 ‘바둑C스포츠’라는 식의 성립을 논증하는 것은 아니다. 바둑이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었다는 사실은 다분히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입각한 결정이라기보다 외재적 선의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체스나 바둑은 신체적 탁월성이 목적으로 하는 바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추구하는 실천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즉, 체스와 바둑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스포츠와 이종(異種)의 실천이다.

**e-스포츠**의 스포츠 논쟁은 일정부분 체스와 바둑의 스포츠 논쟁과 맥락을 공유한다(오현택, 2006). 컴퓨터의 발명과 발달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

고 산업의 진보를 가져오는 등 인류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Ferguson & Perse, 2000). 컴퓨터로 인해 게임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단순한 아케이드 게임으로부터 롤플레이밍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동호인 집단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대중적 관심을 바탕으로 게임은 스포츠화된 양식을 지닌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게임 산업은 프로화 된 리그를 탄생시켜 대중의 이목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ang, 2009).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게임 산업의 발전과 함께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게임의 조직적인 보급이 시작되었고 게임은 스포츠화 된 양식을 갖추게 되어 e-스포츠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e-스포츠는 컴퓨터라는 가상(virtual) 공간을 통해 진행되며, 가공되고(artificial), 탈육체화 되고(disembodied), 유해하다는(unhealthy) 점에서 본질주의 자들에 의해서 스포츠로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Hemphill, 2005; Fairweather, 2002; Miah, 2002). 스포츠는 현실 속 인간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한 행위 형식에 의거해 활동을 구현하는 반면, e-스포츠에서는 현실의 인간이 제시된 가상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행위를 구현한다는 이유에서 스포츠와 e-스포츠는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체스와 바둑의 스포츠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는 신체성의 결여 또한 e-스포츠를 스포츠로 규정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는 진영에서는 e-스포츠는 상당량의 신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화된 규칙과 경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스포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Hemphill, 2005). 전통적인 스포츠와는 다르게 e-스포츠는 가상 세계에서 탈육체화(disembodied)된 형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의해서 개최되는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외재적 선을

지향하는 제도에 의한 승인 자체가 어떠한 활동이 스포츠라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외재적 선의 추구에 입각한 제도는 실천의 본질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스포츠는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경쟁, 규칙, 제도화 그리고 일정 수준의 신체성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체스와 바둑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체적 움직임이 그 활동의 목적인지, 신체적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경기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하여 논쟁거리를 발생시킨다(Kang, 2009). e-스포츠는 의자에 앉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며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e-스포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자판의 두드림을 빠르게 조절하고 마우스를 빠른 속도로 클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e-스포츠는 체스와 바둑과 비교해 봤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세련된 신체적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체적 능력이 경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e-스포츠가 그러한 신체적 능력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자판을 빠르게 조절하고 마우스를 시의적절하게 클릭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기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능력의 성취가 e-스포츠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다. 만약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고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e-스포츠에 있어 탁월성을 갖추었다고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스포츠가 실천으로서 스포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e-스포츠에서 성취될 수 있는지 그리고 e-스포츠가 그러한 선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통해 e-스포츠를 스포츠로 규정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스포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며, 그것이 일정 부분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 자판을 빠르게 조정하는 능력과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자에 앉아 일정한 자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e-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이며 그것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자판을 두드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에 대한 기술의 종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즉, e-스포츠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탈육체화된 게임으로서 체스와 바둑이 지향하는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결국 e-스포츠 또한 체스와 바둑이 그러하듯이 스포츠로 인정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양궁과 사격**은 역사적으로 수렵을 하거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 삶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양궁이,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이, 1896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남자 사격이,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에서 여자 사격이 실시되었으며, 양궁과 사격은 현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IOC, 2012). 양궁과 사격을 올림픽이라는 제도권에 편입된 사실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이들은 스포츠라는 실천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입장에서 양궁과 사격이 일정한 정도의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여겨지므로, 스포츠라는 실천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스포츠를 활발한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양궁과 사격은 스포츠로 인정되기에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IOC라는 스포츠 기구에 의한 인정 자체가 어떠한 활동이 실천으로서 스포츠를 논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입각하여 양궁과 사격이 스포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축구, 육상, 수영 등을 고려해봤을 때, 스포츠는 상당한 신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어느 정도의 신체적 노력이 요구되어야만 어떠한 활동이 스포츠로 규정될 수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Coakley, 2001), 이러한 활동과 유사한 수준의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스포츠라는 실천으로 규

정한다면, 양궁이나 사격은 스포츠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노력의 양만으로 혹은 그것을 측정하여 스포츠 혹은 비(非)스포츠임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스포츠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인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서 논증될 수 있다. 제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양궁이나 사격이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를 그 활동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들을 스포츠라는 실천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실 양궁과 사격은 마라톤이나 축구에서 요구되는 양만큼의 신체적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양궁과 사격 선수의 훈련과정과 경기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성취에 있어 요구되는 노력은 상당할 것이다. 양궁과 사격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균형과 근력은 양궁과 사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활을 당기고 쏘는 기술과 방아쇠를 안정적으로 당기는 기술이 존재한다. 그리고 양궁과 사격에서 활과 총은 신체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활과 총은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로 테니스나 탁구에서의 라켓과 같은 존재이다. 특히, 양궁은 스탠스(stance)-노킹(nocking)-그립(grip)-후킹(hooking)-세트업(set-up)-드로잉(drawing)-앵커(anchor)-풀드로(full-draw)-릴리즈(release)-팔로스루(follow-through)의 연결된 신체적 동작을 거쳐 화살을 정해진 목표물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두산백과). 양궁에서의 드로잉이나 앵커와 같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양궁에서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양궁은 그것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의 숙련도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양궁과 사격은 활과 총을 이용하여 정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 인간 활동이다. 과녁에 명중하기 위해 스탠스의 안정성과 하체와 상체의 균형, 그리고 팔과 손을 이용한 활의 당기고 놓음과 팔과 손가락을 이용한 방아쇠의 당김 등과 관계되는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학습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경기의 과정과 승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양궁과 사격에 있어서 탁월성은 화살과 탄환을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의 발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가 요구된다. 즉, 양궁과 사격의 탁월성이 대상하는 바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다. 축구와 육상과 같이 강인한 근력과 지구력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신체 전반의 균형과 안정적인 활의 놓음과 방아쇠의 당김을 양궁과 사격에서는 요구하게 된다. 즉, 양궁과 사격은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으로서 스포츠이다.

**승마와 동력경기도** 스포츠 논쟁에 있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전차경주(chariot race)로부터 근대 올림픽의 승마경기로 이어지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말을 이용한 경기, 즉 승마스포츠(equestrian sports)는 스포츠라고 불리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sup>57)</sup> 승마스포츠는 전통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유구한 역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립해 온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주 등을 포함하는 동력경기(motorized sports)는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스피드를 즐기려는 대중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스포츠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스포츠가 탁월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의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 발현되어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승마나 동력경기를 스포츠로 인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Coakley, 2001). 만약 말이나 자동차를 테니스나 탁구의 라켓과 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실현하기 위한 신체의 연장이라고 여긴다면 승마나 동력경기는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말이나 자동차가 인간의 신체적 탁월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스포츠에로의 편입될 가능성이 펼쳐질

57)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Coubertin(2000: 716)은 체조경기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근대올림픽 종목으로서 승마스포츠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육상경기, 수영(수중)경기, 승마스포츠, 방어스포츠(the sport of defense)와 동일한 기초에 근거하여, 체조경기는 필수적이고 바꿀 수 없는 올림픽 프로그램이었다.” 즉, 그는 근대올림픽의 필수 종목 중 하나로 승마스포츠를 생각하였다.

지도 모른다.

IOC의 2004년 올림픽헌장 제47조 ‘스포츠 프로그램, 종목, 세부종목, 세부경기의 채택(Sports Programme, Admission of Sports, Disciplines and Events)’은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건 중 하나는 기계의 추진력에 의존하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승마는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 인정받는 반면, 위의 근거에 의해 동력경기는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승마는 스포츠이며, 동력경기는 비(非)스포츠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도에 의한 승인 자체만으로 실천의 정체성을 논하기는 힘들다. 올림픽 종목이 되거나 IOC에 의해서 스포츠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활동이 본질적으로 실천으로서 스포츠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스포츠라는 실천의 내재적 선에 그러한 활동의 목적이 부합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느냐이다.

스포츠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다. MacIntyre(1984: 187)는 “해당 활동의 형식에 존재하는 선은 그 활동의 형식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완벽한 탁월성의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능력과 그 활동이 품고 있는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조직적으로 확장되어진 결과로 실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근거했을 때,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능력과 스포츠의 목적과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일어나서 구체화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그 내재적 선은 인간에 능력에 의해 실현된다. 그렇다면 승마나 동력 경기에서의 탁월성은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이나 자동차의 능력의 발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인간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의 대상이다. 승마는 인간과 말 그리고 동력경기는 인간과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승마나 동력경기에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지만 그 행위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의 발현을 위한 것인지 말이나 자동차의 능력을 발현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의 능력이 고스란히 인간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문제 시 된다. 승마에서는 말의 능력이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발현되는지, 아니면 인간의 기술의 발현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모호하다. 자동차 경주에서도 자동차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 중 어느 것에 의해서 그 능력이 발현되는지 애매모호하다.

승마의 마장마술의 경우 일정한 표현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인간에 의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말에 의해서 가능한지 완벽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승마에서는 인간과 말의 조화를 통해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발현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 인지, 인간에 의한 말이 구현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 인지 의문이 들며, 오히려 그것은 말의 신체적 기능을 표현하고자 하는 종목에 가깝다. 즉, 인간에 의해 조종되는 말의 연기가 마장마술 경기의 관건이다. 이는 완전하게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그 내재적 선이 실현되는 리듬체조<sup>58)</sup>와는 다르다. 만약 마장마술이 인간에 의해서 발현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말을 매개로 하여 말을 타고 있는 선수의 신체적 표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상무예—무예와 스포츠의 차이를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다—의 경우 말을 이용하고 있지만, 말 위에서 인간의 능력이 구현되는 활동인 반면 마장마술의 경우는 인간의 능력이기보다 인간을 통한 말의 능력이 실현되는 활동이라는 성격이 짙다.

---

58) 리듬체조와 같이 흔히 미적 스포츠(aesthetic sports)라고 불리는 스포츠의 경우 무용과 같은 예술과 비교될 수 있다. Best(1985)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요소가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스포츠를 예술로 바라보려는 견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그는 미적 스포츠의 경우에 모호함이 있지만, 스포츠는 예술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무용의 경우, 신체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나 감정을 전달하게 된다(Stevenson, 1975). 물론 무용에서도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을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서 신체적 능력이 이용된다. 그러나 리듬체조의 경우 심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신체적 기능 그 자체의 성취를 목적으로 함으로 리듬체조는 스포츠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무용은 신체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이며, 리듬체조는 예술적이지만(혹은 예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예술이 아니라 스포츠이다.

자동차 경주는 정해진 코스를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며, 자동차 관련 산업의 막대한 자본에 힘입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동차경주대회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있다(Connaughton & Madsen, 2007). 이러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2010년 전라남도는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는 2013년 5월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을 시행하여, 이들 토대로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올림픽이나 축구 월드컵 등의 국제스포츠경기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에 의해 그것이 국제스포츠경기로 인정되어 국제스포츠경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경주는 스포츠라는 실천으로 규명되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승마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경주가 과연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의 능력에 의해 목표 지점을 빠르게 도달하려는 것인지, 인간의 능력에 의해 그 목적하는 바를 수행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말과 다르게 자동차는 인간의 조종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인간의 조종 능력이 경기에 절대적인지, 인간의 능력은 부수적이며 자동차의 능력에 의해 경기가 좌우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승마의 경우에도 인간이 조종하는 말의 능력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판가름 되듯, 자동차 경주에 있어서도 인간의 능력 자체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종 능력을 기초로 자동차의 추진 능력에 의한 탁월성이 발현되며, 인간의 능력은 자동차의 탁월성의 발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근거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규정했을 때, 스포츠는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능력이 발현되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이 성취되는 실천’이다. 승마는 말의 신체적 능력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활동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말의 능력에 의해 뛰고 달리고, 표현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경주 또한 자동

차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경기이다. 이들은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능력보다는 말과 자동차의 능력을 발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매개체로서 말과 자동차를 조종할 뿐이다. 매개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매개체의 기술적 완성도에 의해서 경기의 결과를 달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내재적 선인 인간에 의해 발현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성취되는 실천으로서의 자격을 승마와 동력경기가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3. 소결론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기초하여 스포츠의 개념을 규정했을 때, 스포츠는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능력이 발현되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이 성취되는 실천이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상대와의 경쟁과 제도화된 기구에 의해 제정된 표준화된 규칙의 기반 아래에서 신체를 통해 구현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스포츠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활동이 스포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준거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그것은 외재적 선의 추구에 집착하는 제도로부터 실천을 특징적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실천을 통해 유지되는 공동체에 좋음을 기여한다.

여타 활동의 스포츠 논쟁은 내재적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과 외재적 선을 성취하려는 제도와의 대립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도는 자본을 통한 시장의 확장, 지배구조의 단일화, 권력의 확대 재생산 등에 관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활동이 제도에 의해 스포츠(계)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본질적으로 실천으로서 스포츠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실천의 근본 목적인 내재적 선을 통해 스포츠와 비(非)스포츠의 구

범적 준거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스포츠 논쟁에 적용했을 때, 체스, 바둑, e-스포츠 그리고 승마, 동력경기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을 그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실천으로서 스포츠로 규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스포츠의 제도는 스포츠라는 실천을 그 존재이유로 삼고 있으며, 그 실천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되어야 자신의 존재이유 또한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재적 선의 유혹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스포츠계가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스포츠 공동체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외재적 선에 흔들림이 없이 스포츠라는 실천의 근본 목적을 지켜나가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덕의 함양 또한 요구된다. 스포츠 공동체는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를 그 근본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각인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신체적 기능을 개발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실천으로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Ⅵ.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스포츠의 내재적 선으로 상정하고, MacIntyre의 실천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제기된 스포츠의 내재적 선/가치에 대한 논의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MacIntyre의 덕 이론에서 제시되어 있는 실천과 그 내재적 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탁월성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파악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서 스포츠의 개념 규정과 여타활동의 스포츠 논쟁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Aristotle의 목적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MacIntyre의 덕 이론은 행위 중심의 규범윤리학과 대비되는 인성 중심의 윤리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에서 실천은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 구현되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천과 관계하고 있는 내재적 선은 실천의 본래적 목적으로 실천이 유지되기 위한 근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일관된 삶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일련의 실천들은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아 전통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는 실천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실천과의 관계를 통해서 개인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을 맺게 된다.

실천은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이 지니고 있는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의미하며, 그것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는 인간의 능력과 이해가 발휘되어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실천은 고유한 탁월성의 기준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어떠한 인간 활동에 대한 규범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의 내재적 선은 규범적 준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천이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고, 내재적 선은 실천의 목적을 제시하여 그 근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실천과 내재적 선은 순환구조 속에

서 상호 존재 이유를 제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재적 선을 밝혀내는 작업은 실천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여 실천이 지향해야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실천의 내재적 선은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의 발현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실천을 통해서만 성취 가능하고 실천을 통해서만 이해되며, 그러한 선의 성취가 타인에게 손실과 피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내재적 선은 실천의 근간을 유지하여 개인 삶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전통을 유지·계승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좋음을 선사한다. MacIntyre는 내재적 선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실천이 존재하고 그것의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천과 내재적 선에 대한 그의 논의를 통해서 실천의 내재적 선은 탁월성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해당 실천이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이 무엇에 대한 탁월성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실천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재적 선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천은 일정한 규범적 틀을 지니고 있어서, 공 던지기나 벽돌 쌓기와 같은 단순한 행위와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반(反)하는 행위는 실천이 될 수 없다. 반면 고대 그리스의 제전경기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스포츠는 오랜 기간 동안 가치 있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협동적 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스포츠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일련의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행위의 형식이 존재하고, 규칙에 의해 한계지어 지는 기술의 일관성과 복잡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근본 목적으로서 내재적 선을 지니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여타의 활동과 구분되는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의해서 파악 가능하다. 이러한 실천에 조건에 부합하는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인간의 활동으로 규칙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는 기술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탁월성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이해가 발휘되어 내재적 선이 실현되는 실천으로 이해된다.

실천으로 이해되는 스포츠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이란 운동 경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제전경기나 근대 올림픽에서 증명되듯이 그것은 신체에 의해서 실현된다. 즉,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이란 신체적 탁월성을 뜻하게 된다. 스포츠에서 제시되는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신체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러한 신체적 노력은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신체적 노력은 일정한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의 형식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규칙에 의해서 제시된 행위의 형식에 기초하여 인간의 능력이 그것에 도달하고자 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운동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포츠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체적 탁월성은 경기의 목적을 행위 형식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는 전 과정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른 뛰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절대적인 우월성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Weiss, 1969). 스포츠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체적 탁월성의 실현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목적하는 바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지향하는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즉,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이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이며,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의한 신체적 탁월성의 대상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다. 먼저 신체적 탁월성이란 탁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의 탁월성이며, 신체적 능력이란 단순히 체격의 우월함이나 체력의 우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과 학습에 의해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은 신체적 탁월성으로, 이는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의 탁월성을 의미하며,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탁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스포츠에서의 탁월성의 대상은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며, 이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다. 즉, 스포츠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을 성취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탁월성을 신체적 탁월성을 규정하고 함과 동시에 신체적 탁월성이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성취되기 위해 도덕적 탁월성이 전제되어야함을 피력하였다. 이는 MacIntyre가 밝히고 있듯이 실천의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필요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스포츠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에 속하고, 스포츠가 목적하는 바인 내재적 선의 성취를 위해서 도덕적 탁월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에서 추구되는 덕인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의 함양을 통해 도덕적 탁월성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재적 선의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 제도로부터 실천이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스포츠 공동체가 그러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위의 논의에 기초하였을 때, 스포츠는 실천이라는 규범적 틀과 자신의 준거인 내재적 선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념 규정될 수 있다.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된 인간의 활동으로 규칙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는 기술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능력이 발현되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 높은 신체적 기술에 대한 능력, 즉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내재적 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다. 이때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나’와 ‘타자’에 의해 구성되는 경쟁과 제도화에 의해 권위를 부여 받아 표준화된 규칙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신체에 의해 실현되며,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은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의 함양을 전제할 때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실천으로서 스포츠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 스포츠의 개념 규정과 더불어 스포



츠의 내재적 선을 적용하여 여타활동의 스포츠 논쟁과 관련된 논의를 본 논문에서 진행하였다. 여타활동의 스포츠 논쟁의 쟁점을 내재적 선과 외재적 선의 대립으로 보았으며, 자본을 통한 시장의 확대, 지배구조의 단일화, 권력의 확대 재생산 등 외재적 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은 제도에 의한 여타활동의 스포츠로의 승인이 그 활동을 스포츠라는 실천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라는 실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 목적인 내재적 선이 판단의 준거로 작용하여야 한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준거로 하여 기준에 제시되고 있는 여타활동의 스포츠 논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체스, 바둑, e-스포츠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의 성취 자체가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 그리고 양궁과 사격의 경우 비록 신체적 노력의 정도가 타 스포츠에 비해 적을지라도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의 성취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발휘되어 나타나는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고려하였을 때, 승마와 동력경기는 인간의 신체적 탁월성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이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의 형식인 실천은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실천은 자신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스포츠라는 실천도 자신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여 나아가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게 된다. 어떠한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 목적인 스포츠의 내재적 선의 성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은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현대 프로스포츠계를 바라본다면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목적으로서 역할보다는 외재적 선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외재적 선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경향을 쉽게 바라볼 수 있으므로, 다시금 스포츠 공동체에 그 단순함의 중요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라는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통해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상기해야 하며, 스포츠 공동체가 그것을 지향해 나갈 때 스포츠라는 실천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활동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대변되는 외재적 선에 맞서, 스포츠의 근본 목적인 내재적 선을 통해 스포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스포츠 공동체가 추구하는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과 같은 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탐구한 본 연구는 연구자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스포츠의 내재적 선을 세분화시켜 다층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재적 선이 성취되기 위한 전제로서 덕의 함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스포츠 공동체에서 추구되는 페어플레이와 스포츠퍼슨십에 대한 덕 이론적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의 내재적 선인 고도의 신체적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교육되고 학습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금 스포츠의 근본 목적을 상기시켜 스포츠 공동체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論語

中庸

- 강상진(2007).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카톨릭철학**, 9, 11-39.
- 강성민(2012). 덕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스포츠 기업 및 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7(6), 91-103.
- 강성민(2013). 영미 스포츠철학과 스포츠윤리학의 동향.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1(2), 97-113.
- 강준호(2005). 스포츠산업의 개념과 분류. **체육과학연구**, 16(3), 118-130.
- 구효송(2006). **신들의 축제, 고대올림픽**. 서울: 상아기획.
- 김동규(2005). 체육철학의 연구동향. **한국체육학회보**, 83, 22-23.
- 김복희·오동섭(2002). **그리스 경기관습**. 서울: 대한미디어.
- 김선희(1996). **자아와 행위**.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영갑·권육동(2006). 현대 체육개념의 적용과 한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3), 29-39.
- 김정명·원영신·양진방(2002). 좌담: 스포츠와 몸의 성취. **전통과 현대**, 20, 120-152.
- 김태길(1996).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연구소 편저, **철학강의**(11-52쪽).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홍식(2000). **체육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선험적 정당화론 비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홍식(2001).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체육교과서에서 놀이·게임·스포츠의 개념 정의와 규칙의 문제. **한국체육학회지**, 40(4), 77-85.
- 김홍식(2005). 스포츠 성격 해명의 두 가지 방식과 체육교과의 지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161-173.
- 김홍식(2007). 체육의 도덕교육적 정당성: 맥킨타이어 덕론의 시사. **움직임의**

-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5(2), 93-109.
- 나영일(2002). 탈육체성의 스포츠. **전통과 현대**, 20(여름호), 90-101.
- 노희덕(1991). 체육의 개념변천에 관한 연구. **체육연구소논집**, 12(1), 1-17.
- 들뢰즈·가타리(1995).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윤정임 역. 서울: 현대미학사.
- 러셀(2011). **서양철학사**. 서상복 역. 서울: 을유문화사.
- 매킨타이어(1997). **덕의 상실**. 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 메치코프·에스테스(2005).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철학**. 김방출 역. 서울: 무지개사.
- 박관수(2006). 윤리적 상대주의의 대안으로서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의 의의와 한계. **통합연구**, 19(1), 119-147.
- 박정준(2011).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스포츠 인성교육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9(3), 173-202.
- 박주한(2002). 바둑의 스포츠 논쟁.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0(2), 91-112.
- 박주한(2010). 신체운동(Sports & Exercise)의 새로운 가치 탐색.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8(3), 93-106.
- 박주한(2012). 스포츠의 개념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4), 163-175.
- 백종현(1995). **칸트 실천이성비판 논고**. 서울: 성천문화재단
- 백종현(2004). **철학의 주요개념 1·2**.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브로드(2000). **윤리학의 다섯 가지 유형**. 박찬구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비트겐슈타인(1994).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서광사.
- 포이만·피저(2011).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박찬구·류지한·조현아·김상돈 역. 서울: 울력.
- 사또(2005). 身體教育을 哲學한다. 권오륜 역. 서울: 무지개사.
- 송형석(2006a). 스포츠에 나타난 근대성: 알렌 굿맨(Allen Guttmann)의 근대 스포츠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47, 391-410.
- 송형석(2006b). **함께 읽는 체육·스포츠 이야기**.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송형석(2012). 체육학 발전방향 소통의 관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2), 69-84.
- 신현규(2008). 체육의 정의를 찾아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6(1), 79-98.
- 신현규(2011). 스포츠의 정의를 찾아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9(1), 107-127.
- 안용규·김동규·권오륜·송형석·김홍식(2011).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 재정립.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9(4), 33-60.
- 양선이(2002).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관하여: 흄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 연구**, 59.
- 양종구(2005). **사회적 실천 개념에 근거한 체육의 정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 애링턴(2003). **서양 윤리학사**. 김성호 역. 서울: 서광사.
- 오현택(2006). **맥킨타이어의 덕론이 스포츠에 주는 함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재봉(2000). 교육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실제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학연구**, 38(3), 235-253.
- 유재봉(2002). **현대 교육철학 탐구: 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및 대안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이경희(2005). 실러의 미학 이론에 나타난 젠더 불평등 연구: 『우미와 존엄』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95, 5-24.
- 이원봉(2007). 맥킨타이어와 칸트의 덕: 인간선의 실천으로서 덕. **사회와 철학**, 14, 171-200.
- 임번장(1996).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혜옥·김영선(2005). 도덕교육으로서의 스포츠의 과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3(1), 1-10.
- 정응근·오정석·박현우(1992). Somatic Education으로서의 체육의 가능성. **한국여**

- 성체육학회지, 6, 21-31.
- 최의창(2010a). **가지 않은 길 3**.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2010b).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하남길(2004). **움직임 예술과학의 이해**. 서울: 대한미디어.
- 하남길·옥광(2008). 영국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 하남길 편저,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149-173쪽).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 한왕택(1999). 우리나라 개화기에 있어서 체육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1), 36-48.
- 함정혜(1996). 체육·스포츠·사회체육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0(1), 51-61.
- 허건식(2001). **동양무도의 문화적 해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홍은숙(2002). 공동체주의 교육의 개념 연구: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철학**, 27, 173-198.
- 홍은숙(2006). 후기 허스트의 도덕교육론 고찰: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관에서의 도덕교육. **도덕교육연구**, 17(2), 163-186.
- 홍은숙(2009). **교육의 개념: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황경식·슬로트(2009, 가을). 정감 어린 여행. **철학과 현실**, 82.
- 황태상(1996). 개화기 체육관련 용어의 의미에 관한 고찰. **경남체육연구**, 1, 81-98.
- Alessandro, A. & Power, F. C. (2005). Character, responsibility, the moral self.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pp. 101-120).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Anscombe, E. (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124), 1-19.

- Aristotle (1960). *The rhetoric of Aristotle* (L. Cooper, Tra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ristotle (1999). *Nicomachean ethics* (2nd ed.), (T. Irwin, Trans.).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mpany.
- Arnold, P. J.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 Baggini, L. & Fosl, P. S. (2007). *The ethics toolkit: A compendium of ethical concepts and method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Beadle, R. & Moore, G. (2006). MacIntyre on virtue and organization. *Organization Studies*, 27(3), 323-340.
- Berryman, J. W. (2010). Exercise is medicine: A historical perspective. *Current Sports Medicine Reports*, 9(4), 1-7.
- Best, D. (1985). Sport is not a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12, 25-40.
- Boxill, J. (2003). Introduction: The moral significance of sport. In J. Boxill (Ed.), *Sports ethics: An anthology* (pp. 1-12). Oxford: Blackwell.
- Bucher, C. A. (1975). *Foundation of physical education* (7th ed.). Sain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 Caillois, R. (1961). *Man, play, and games* (M. Barash, Tran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Caldwell, C. (1834). *Thoughts on physical education*. Boston: Marsh, Capen & Lyon.
- Cashmore, E. (2005). *Making sense of sports* (4th ed.). New York: Routledge.
- Coakley, J. (2001; 2009). *Sport in society : Issues and controversies* (7th; 10th ed.). New York: McGraw-Hill.
- Coakley, J. & Donnelly, P. (2004). *Sports in society : Issues and controversies*. Toronto: McGraw-Hill Ryerson.
- Connaughton, J. E. & Madsen, R. A. (2007). The economic impacts of the North Carolina motorsports industr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 21(2), 185-197.
- Core, C. S. (2010). *Professional prepar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New Delhi: Sports Publication.
- Coubertin, P. (2000). The Olympic Games and gymnastics. In N. Müller (Ed.), *Olympism: Selected writings* (pp. 716-719). Lausanne: IOC.
- Culbertson, L. (2008). Does sport have intrinsic value? *Sport, Ethics and Philosophy*, 2(3), 302-320.
- Culbertson, L., McNamee, M., & Ryall, E. (2008). Resource guide to the philosophy of sport and ethics of sport. In *Hospitality, Leisure, Sport and Tourism Network*, pp.1-43.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 Duncan, S. M. (1995). *A primer of modern virtue ethic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Fairweather, N. B. (2002). Disembodied sport: Ethical issues of virtual sport, electric games and virtual leisure. In A. Miah & S. B. Eassom (Eds.), *Sport technology: History, philosophy and policy* (pp. 235-249). Oxford: Elsevier Science.
- Ferguson, D. A. & Perse, E. M. (2000). The world wide web as functional alternative to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ic Media*, 44(2), 155-174.
- Finkelberg, M. (1998). Time and arete in Homer. *The Classical Quarterly*, 48(1), 14-28.
- Guttmann, A. (1978). *From ritual to reco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ldane, J. (1994). MacIntyre's Thomist revival: What next? In J. Horton & S. Mendus (Eds.), *After MacIntyre: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work of Alasdair MacIntyre* (pp. 91-107). Oxford: Polity Press.
- Hemphill, D. (2005). Cyberspo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32(2),



195-207.

- Henry, F. (1964). Physical education: An academic discipline.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35(7), 32-33.
- Henry, F. (1978). Academic discipline of physical education. *Quest*, 29, 13-29.
- Huizinga, J. (1970).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London: Paladin.
- Hursthouse, R. (2007). Virtue ethics and the emotions. In D. Statman (Ed.), *Virtue ethics: A critical reader*(pp. 99-117).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IOA (n.d.).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Olympia: IOA.
- IOC (2004). *Olympic charter*. Lausanne: IOC.
- IOC (2012). *Factsheet: The programm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Lausanne: IOC.
- Israel, M. & Hay, I. (2006). *Research ethics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Sage.
- Jarvie, G. (2006). *Sport,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 Jones, C. (2005). Character, virtue and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1(2), 139-151.
- Kallenberg, B. J. (2003). The master argument of MacIntyre' s After Virtue. In N. Murphy, B. J. Kallenberg & M. T. Nation (Eds.), *Virtues and practices in the christian tradition: Christian ethics after MacIntyr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Kang, S. M. (2009). *Defining sport: Philosophical conflicts between the practices of sport and cybersport*. Unpublished Thesis: University of New Brunswick.
- Kaufman, D. A. (2007). Family resemblances, relationalism, and the meaning of art.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7(3), 280-297.
- Kretchmar, R. S. (1970).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other in sport*. Unpublished Doctor' 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retchmar, R. S. (2005). *Practical philosophy of sport and physical activity* (2n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Kupperman, J. J. (2005). How not to educate character.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pp. 201-217).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Loy, J. W. (1968). The nature of sport: A definitional effort. *Quest*, 10(1), 1-15.
- Lumpkin, A., Stoll, S. K., & Beller, J. M. (2003). *Sport ethics: Applications for fair pla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2nd ed.).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cIntyre, A. (1988). *Whose justice, which rationality?* London: Duckworth.
- MacIntyre, A. (2010). *Dependent rational animals: Why Human beings need the virtues*. Chicago & La Salle, IL: Open Court.
- MacIntyre, A. & Dunne, J.(2002). Alasdair MacIntyre on education: In dialogue with Joseph Dunn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1), 1-19.
- McBride, F. (1975). Toward a non-definition of spo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2, 4-11.
- McFee, G. (2004a) Normativity, justification, and (MacIntyrean) practices: Some thoughts on methodolog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31(1), 15-33.
- McFee G. (2004b). *Sport, rules and values: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into the nature of sport*. London: Routledge.
- McFee, G. (2009). The intrinsic value of sport: A reply to Culbertson. *Sport, Ethics and Philosophy*, 3(1), 19-29.
- McNamee, M. (1995). Sporting practices, institutions and virtues: A critique and a restatemen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22(1), 61-82.
- McNamee, M. (2008). *Sports, virtues and vices*. London: Routledge.

- McNamee, M., Olivier, S. & Wainwright, P. (2007). *Research ethics in exercise, health and sports sciences*. London: Routledge.
- Meier, K. (1988). Triad trickery: Play with sport and game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15(1), 11-30.
- Miah, A. (2002). Immersion and abstraction in virtual sport. In A. Miah & S. B. Eassom (Eds.), *Sport technology: History, philosophy and policy* (pp. 225-233). Oxford: Elsevier Science.
- Miller, D. (1994). Virtues, practices and justice. In J. Horton & S. Mendus (Eds.), *After MacIntyre: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work of Alasdair MacIntyre* (pp. 245-264). Oxford: Polity Press.
- Miller, S. G. (1991). *Arete-Greek sports from ancient sourc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ore, G. E. (1903).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ry, J. (1998). Violence and aggression in contemporary sport. In M. J. McNamee & S. J. Parry (Eds.), *Ethics and sport* (pp. 205-224). London and New York: E&FN Spon.
- Pellegrino, E. D. (1995). Toward a virtue-based normative ethics for the health professions.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5(3), 253-277.
- Pellegrino, E. D. (2001). The internal morality clinical medicine: A paradigm for the ethics of the helping and healing profession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26(6), 559-579.
- Rachels, J. (1999).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3rd ed.). New York: McGraw-Hill College.
- Reid, H. L. (2002). *The philosophical athlet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 Ryle, G. (1967).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Barnes & Noble, Inc.
- Sansone, D. (1988). *Greek athletics and the genesis of spor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neider, A. (2001). Fruits, apples and category mistake: On sport, games and play.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28(2), 151-159.
- Sheridan, H. (2003). Conceptualizing 'fair play':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9(2), 163-184.
- Siedentop, D. (2009).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fitness and sport* (7th ed.). New York: McGraw-Hill.
- Simon, R. L. (1991). *Fair play: sports, values and society*. Boulder, CO: Westview Press.
- Solomon, R. C. (1992). Corporate roles, personal virtues: An Aristotelean approach to business ethics. *Business Ethics Quarterly*, 2(3), 317-339.
- Solomon, R. C. (2003). Victims of circumstances? A defence of virtue ethics in business. *Business Ethics Quarterly*, 13(1), 43-62.
- Stevenson, C. L. (1975). The meaning of movement. *Quest*, 23, 2-9.
- Suits, B. (1967). What is a game? *Philosophy of Science*, 34, 148-156.
- Suits, B. (1978). *Grasshopper: Games, life and utop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uits, B. (1988a). The elements of sport. In W. J. Morgan & K. V. Meier (Eds.), *Philosophic inquiry in sport* (pp. 39-48).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uits, B. (1988b). Tricky triad: Games, play and sport.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15(1), 1-9.
- Swaddling, J. (2004). *The ancient Olympic Game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Swanton, C. (2003). *Virtue ethics: A pluralistic vi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orres, C. (2000). What counts as part of a game? A look at skill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27, 81-92.

Warren, J. C. (1846). *Physical educ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health* (2nd ed.). Boston: William D. Ticknor.

Weiss, P. (1969). *Sport: A philosophic inquiry*.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 (196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3rd ed, G. E. M. Anscombe Tran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Young, D. C. (1984). *The Olympic myth of Greek amateur athletics*. Chicago: Ares.

교육학용어사전. 2013년 5월 1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2&docId=510782&mobile&categoryId=282>

두산백과. 2012년 10월 10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03218&mobile&categoryId=200000047>

두산백과. 2013년 6월 3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24166&mobile&categoryId=200000377>

표준국어대사전. 2013년 6월 7일.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Abstract

### The Internal Good to Sport as a Practice

Sung-Min K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 is a practice, which presents the life of a human being through physical activity. A sporting practice is a form of the human activity, including its own end as well as its tradition. The end of sport is its internal good that is the basis upon which sport stands. To illuminate the internal good to sport is to discover the end of spor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port and to retain the integrity of sport.

This work explored the internal good to sport through the object of excellence in sport, employing MacIntyre's notion of a practice. Following Aristotle's ethical point of view, the virtue theory of MacIntyre places a practice and its internal good as well as virtue in an important position. A practice as a coherent and complex form of socially established cooperative human activity involves its internal good. At the same time, the internal good presents the genuine meaning and end of the practice, both in this relationship suggest the reason for each being. In addition, a practice has the standards of excellence and its internal good presents the object of excellence. A human being may achieve the internal good to the practice on the way to reaching the standards of excellence.

Sport is a socially valued practice, which involves the coherent and complex form of skill limited within rules, and where an internal good to sport is achieved in process of reaching the standards of excellence. The excellence

in sport signifies the physical excellence of a human being that meets the end of a sport. The physical excellence implies the excellence in physical ability, which is the ability for having good command of demanding skill. Such an ability explains the highly developed physical skill, achieved through training and learning. The highly developed physical skill is interpreted as physical prowess. That is, the excellence in sport is the excellence in physical prowess, and the internal good to sport is physical prowess. Sport as a practice pursues physical prowess for the sake of sport.

Based on the concept of a practice and the internal good to sport, sport is a practice that implies a form of socially established cooperative human activity, which involves the coherent and complex form of skill limited within rules, and where physical prowess is achieved through the human will and ability to reach the standards of excellence. At this point, physical prowess can be realized through a human body within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y one and the other, and of the rules institutionalized under the authority of an institution. The physical prowess may be achieved in a moral way when one possesses and exercises the virtue, which a sporting community aims for. Considering physical prowess as the normative criterion of a sporting practice, moreover, chess, baduk, cybersport, equestrian sport, and motorized sport may not be within the realm of sport while archery and shooting sport are sports.

A sporting practice is recognized as a socially valued human activity when it is not considered as the means of something else but as the end of itself, which is accomplished by achieving the internal good of physical prowess. Importantly, physical prowess takes precedence over others such as money and fame when dealing with sport as a practice. It is because physical prowess, simple but fundamental, is the internal good to sport, which is the genuine end of sport. Therefore, a sporting community ha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internal good of physical prowess as the end of sport. A sporting practice will continue to exist when inculcating the value of its end i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Furthermore, the possession and exercise of fair-play and sportpersonship is necessary to achieve physical prowess.

Keywords: A practice, the internal good, sport, the internal good to sport,  
physical prowess

Student Number: 2010-30418



## 감사의 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초등학생이 축구부를 그만두게 되면서 교수라는 장래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교수라는 직업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를 계속해야함을 알게 된 이후부터 공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조교를 하고 있던 2005년 어느 날 지금은 퇴직하신 임변장 선생님께서 박사학위 취득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시작 지점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분들에게 여기에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늘 챙겨주시고 편이 되어주신 나영일 선생님, 깊이 있는 학문적 견해를 제시해주신 최의창 선생님, 항상 의견을 존중해 주신 권순용 선생님, 힘을 북돋아 주신 이옥선 선생님, 1999년 대학원에 입학한 후 인연을 맺게 되어 공부와 삶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극제가 되어 주신 김홍식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 1학년부터 지금까지 늘 아껴주신 김의수 선생님, 항상 걱정해주시고 삶의 지침이 되어주신 정응근 선생님, 멀리서 지속적으로 바라봐 주신 정철수 선생님,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신인식 선생님, 항상 위안이 되어 주신 김방출 선생님,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묵묵히 지켜보고 힘이 되어주신 권성호 선생님, 타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윤리과 박찬구 선생님과 정창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을 돌아올 때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신 Gabriela Tymowski,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Scott Kretchmar, 다정하게 이방인을 맞이해주신 Jim Parry, 맥주와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신 Graham McFee, 책을 읽을 때마다 강력한 어조가 생각나는 Mike McNamee, 친구 Matt Lewellyn, John Gleaves, Leonardo Mataruna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선후배님, 지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뒷바라지 해주시고, 항상 믿고 바라봐주시며, 어떠한 시련에 봉착하더라도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심초사 손자 걱정하시는 할머니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앞세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기꺼이 대학원생 남편의 삶을 받아준 아내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2013년 7월 30일

강 성 민 드림